



2020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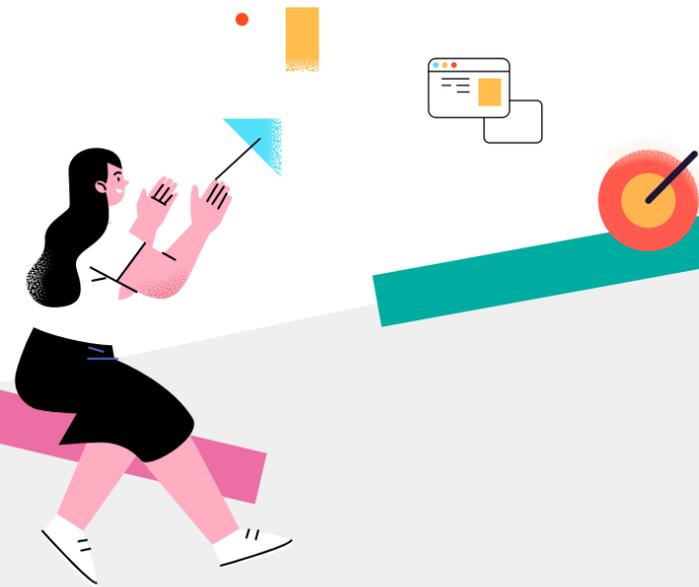
2020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권금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잠식하며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저성장 사회로 변화하며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감염에 대한 염려와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감, 소통 부족 등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돌봄 부담 증가를 경험했고 이 부담은 특히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외활동 제약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한 여가보다는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여가활동의 다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사회와 가족의 삶도 바꾸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고 있어 사회변화에 유연하고 건강하게 대응하는 가족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형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 서울시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광역센터로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서울시민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실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에 제동이 걸린 올 한 해 동안 '변화'는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축제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족정책 및 서비스 전달 방식에 변화를 이끌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적 가족정책 요구도를 발견하여 가족생활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과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현황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울시 가족의 현재', '일과 생활을 같이: 서울의 균형', '행복한 가족관계: 서울의 포용', '함께하는 돌봄: 서울의 혁신', '든든한 1인생활: 서울의 지원'으로 나누어 대상별, 상황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가치, 가족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서울시민의 단기 중단적 변화를 확인하고 인식과 요구에 대한 추세를 탐색하였습니다. 서울가족보고서가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서울가족의 다양한 모습이 존중받고 민주적인 가족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장

서울시 가족의 현재	
1 서울시 가족 현황	8
2 서울시 가족 변화: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3개년 비교	13
3 서울시 가족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23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26



2 장

일과 생활을 같이 서울의 균형	
1 아빠, 돌봄의 주체로 서다	30
2 엄마, 경력을 쌓다	34
3 일터, 가족을 응원하다	39
4 가족, 함께 여가를 누리다	47



3 장

행복한 가족관계 서울의 포용	
1 소통, 가족의 행복 원칙	56
2 다양성, 가족의 힘	61
3 위기 극복, 가족의 레질리언스	73

함께 하는 돌봄 서울의 혁신	
1 언제 어디서든, 영유아 보살핌	82
2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동의 성장	94
3 공동체가 같이, 어르신의 일상	101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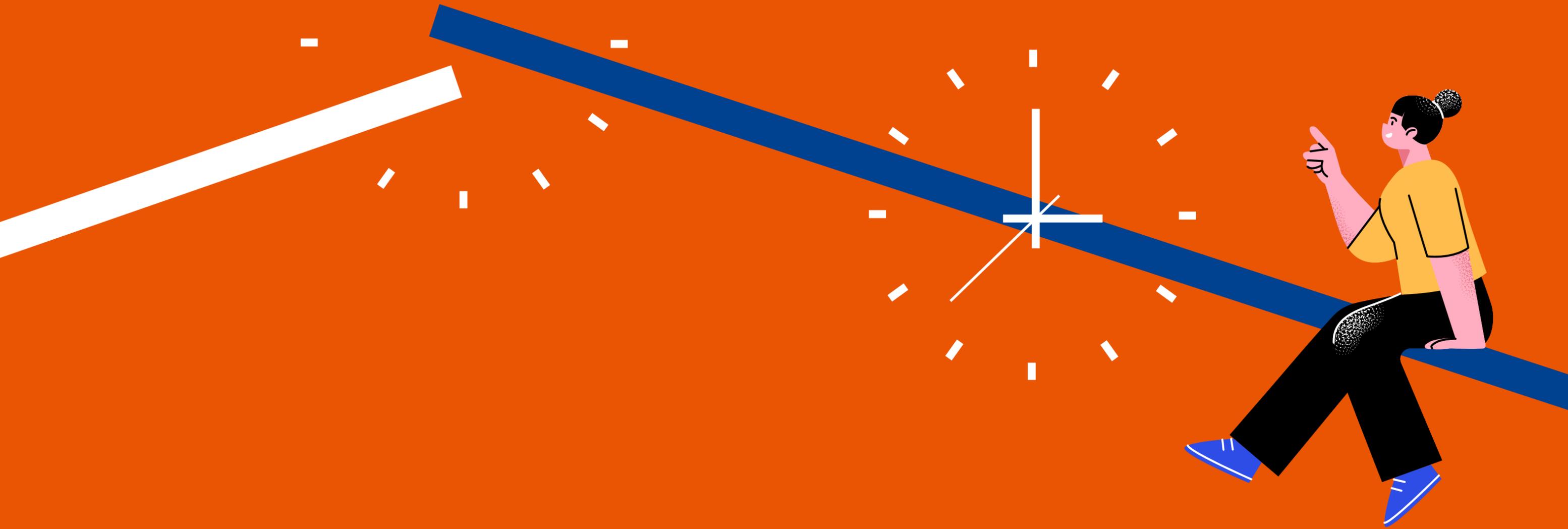
튼튼한 1인 생활 서울의 지원	
1 관계성, 안심의 첫걸음	110
2 주거안심, 생활의 편안함	116
3 경제안정, 맞춤형 지원	124



5 장

부록	
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29
2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138

1 장



서울시 가족의 현재

- 1 서울시 가족 현황
- 2 서울시 가족 변화: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3개년 비교
- 3 서울시 가족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1장

서울시 가족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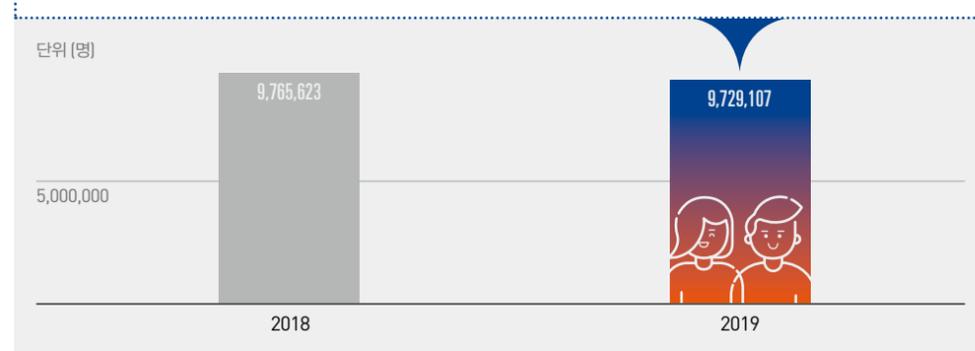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 현황

1. 서울시 총 인구 수 현황

서울시에는 2019년 기준 9,729,107명이 살고 있으며, 2018년 9,765,623명에서 약간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2019년 서울시에는 총 9,729,107명이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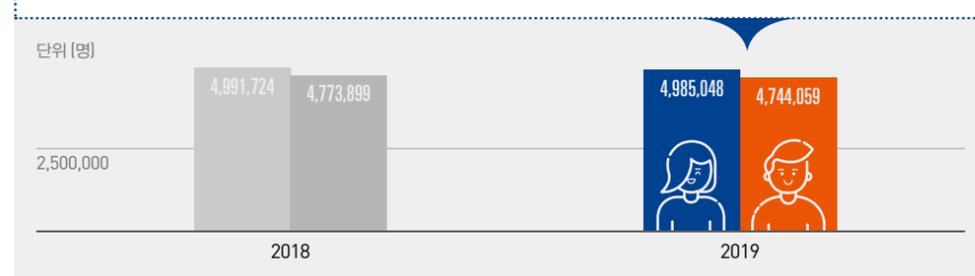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2. 성별에 따른 서울시 인구 수 비교

서울시 여성 인구는 2018년 기준 4,991,724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9년 4,985,048명이며, 남성 인구는 2018년 4,773,899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9년 4,744,059명이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서울시의 남녀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19년 기준 95.2로, 전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19년 서울시에는 여자 4,985,048명과 남자 4,744,059명이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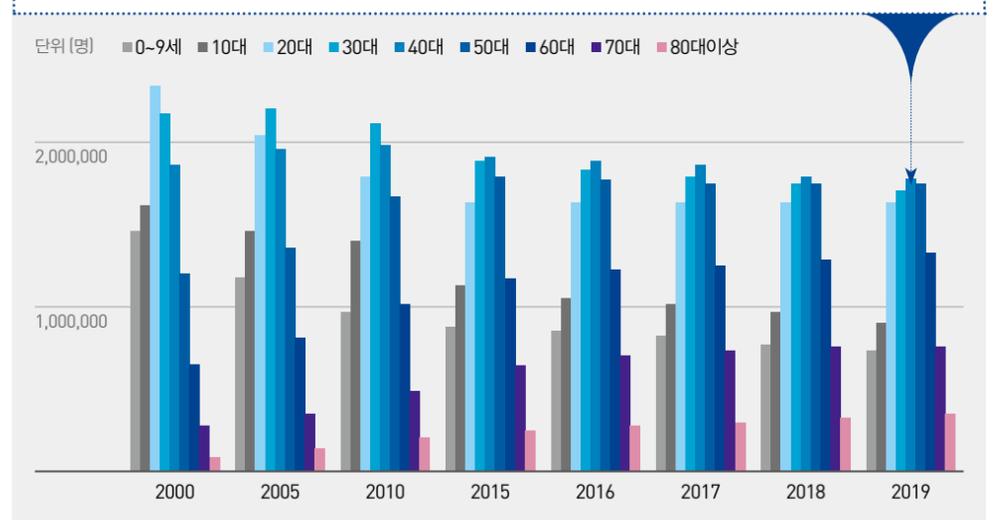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2020. e-지방지표

3. 서울시의 연령대별, 연도별 인구 비율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는 40대가 1,560,98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의 16.0%를 차지한다(2019년 기준). 다음으로 50대 1,539,968명(15.8%), 30대 1,509,959명(15.5%), 20대 1,456,623명(15.0%), 60대 1,189,802명(12.2%) 순이다(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2000년에는 20대가, 2005년과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5년 조사부터는 계속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에는 40대 인구가 1,560,983명(16%)으로 가장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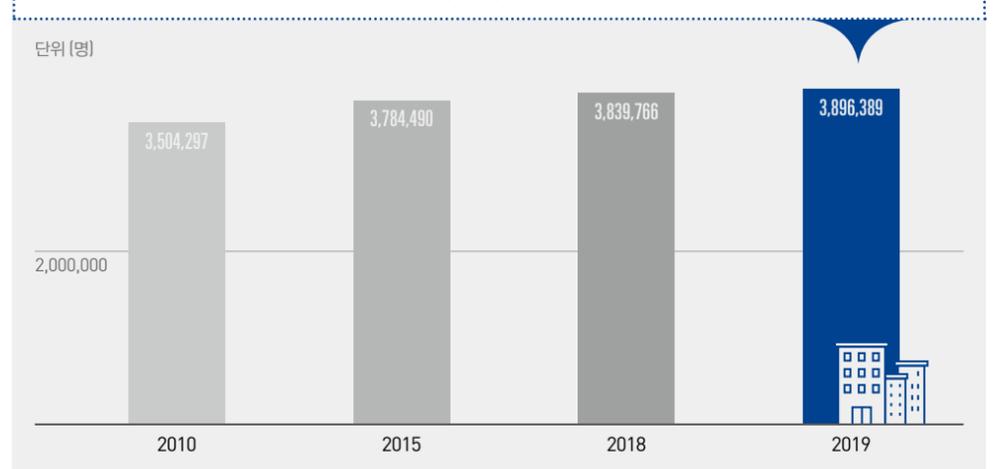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4. 서울시 총 가구 수 현황

서울시 가구 수는 2018년 3,839,766가구였는데, 2019년 3,896,389가구로 1.5%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 수가 다소 감소한데 비해,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수는 2010년에는 3,504,297가구, 2015년 3,784,490가구, 2019년 3,896,389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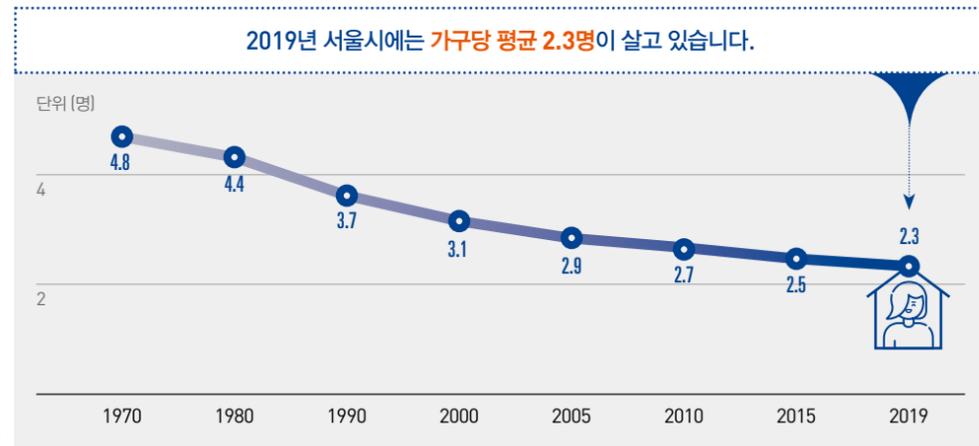
2019년 서울시에는 3,896,38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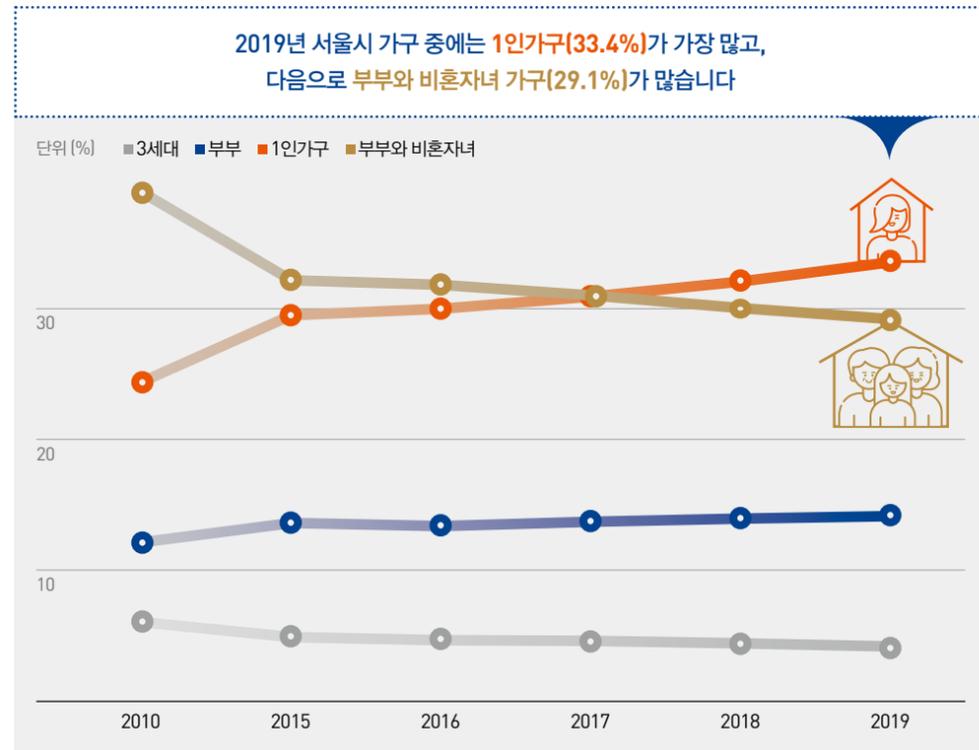
5.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5년에 3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0년 2.7명, 2015년 2.5명, 2019년 2.3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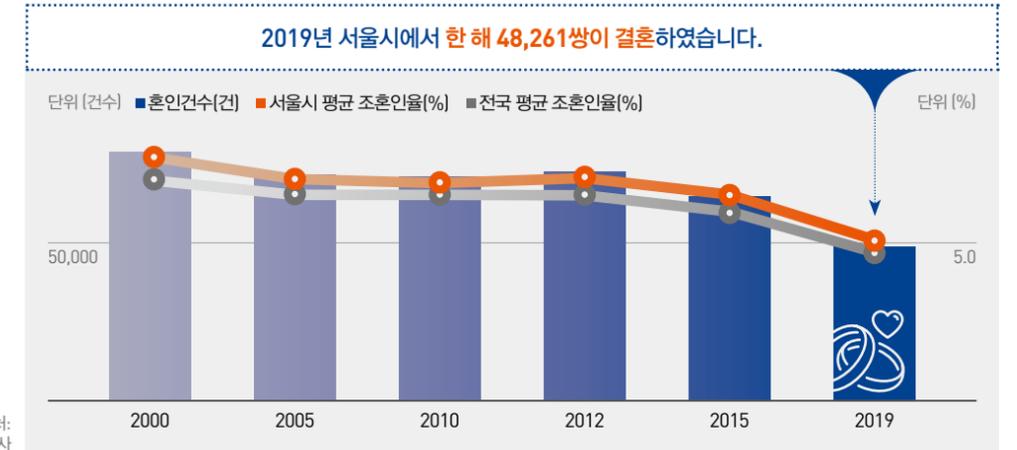
6.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 수 변화

서울시 가구는 1인가구가 2019년 기준 1,299,787가구(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와 비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131,967가구(29.1%)로 많다. 2010년 이후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 수의 추이를 보면, 1인가구는 2010년에 24.4%였으나 2019년 33.4%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부부만 구성된 가구는 2010년 12.1%부터 2019년 기준 550,785가구(14.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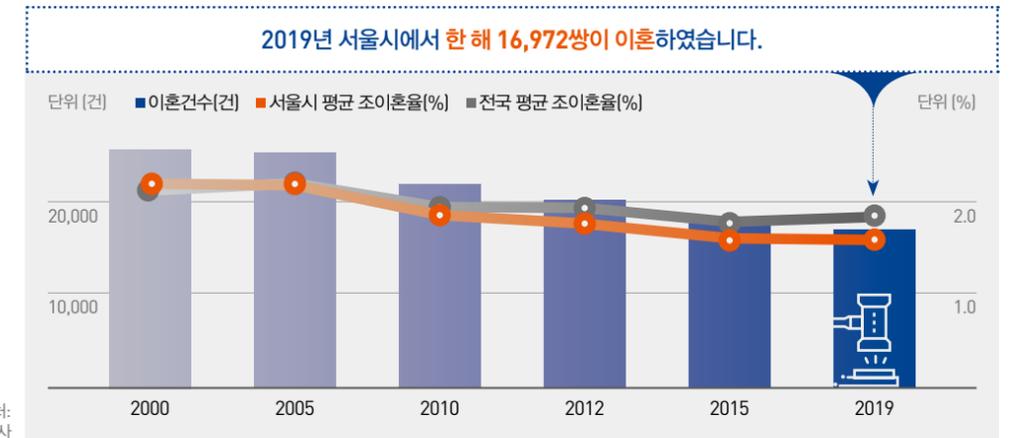
7. 서울시의 혼인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혼인율 변화

서울시의 혼인건수는 2012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8,261건을 기록하였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이 중 초혼은 40,915건으로 서울시 혼인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조혼인율은 2018년 5.4%에서 2019년 5.0%로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인 4.7%보다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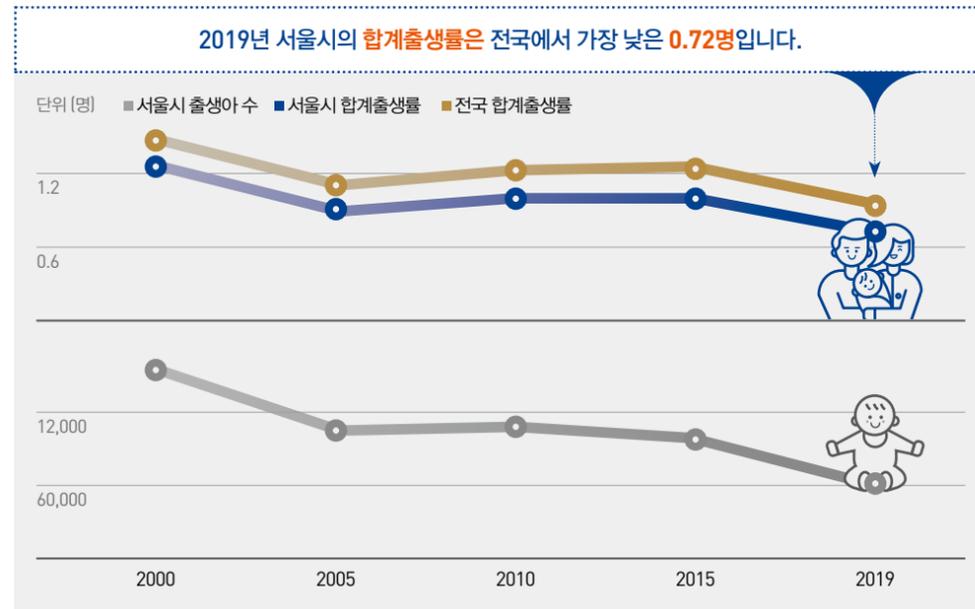
8. 서울시의 이혼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이혼율 변화

서울시의 이혼건수는 2019년 기준 16,972건으로 2018년 16,940건에서 약간 증가하였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서울시의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해당연도 이혼건수)은 2019년 1.8%로, 전국 평균인 2.2%보다 낮다.



9. 서울시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 변화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2000년에 133,154명이었으나, 계속 낮아져 2010년에 93,266명, 2015년에는 83,005명, 2019년에는 53,673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합계출생률은 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 2015년까지 1.0명 전후를 유지하였다. 2015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0.72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합계출생률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2
서울시
가족 변화:
<서울가족
보고서 서베이>
3개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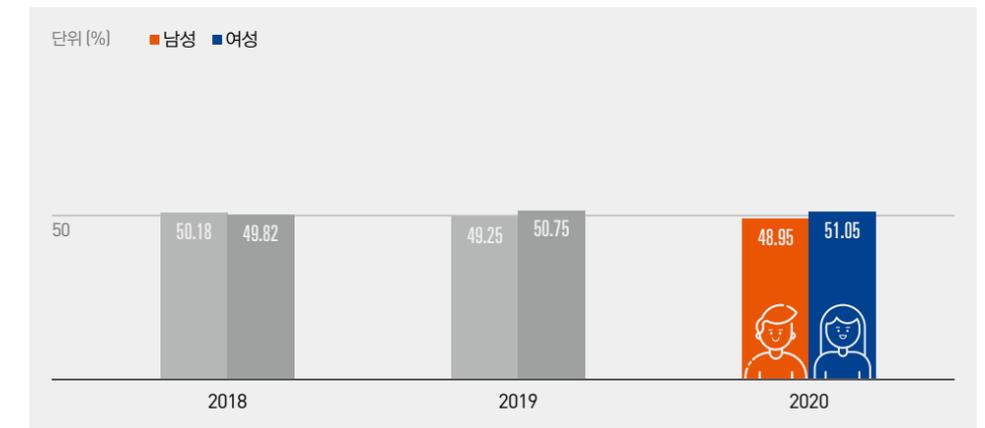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가족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서울가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일부 문항은 2019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2개년만 비교함).

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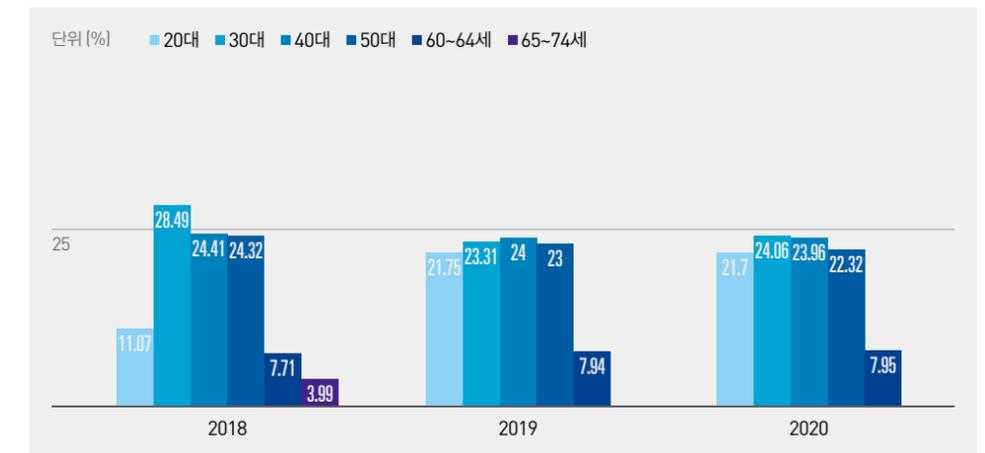
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특성 3개년 비교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조사대상이 조금씩 달라 응답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2018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보다 많았던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의 경우 2018년에는 만 25세~74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만 20~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2018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20대가 적고, 30대가 보다 많이 포함되었다.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올수록 비혼 응답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기혼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020년 서베이는 비혼자 45.2%, 기혼자 50.8%, 기타(별거·이혼·사별) 4.0%이다.

● 성별에 따른 연도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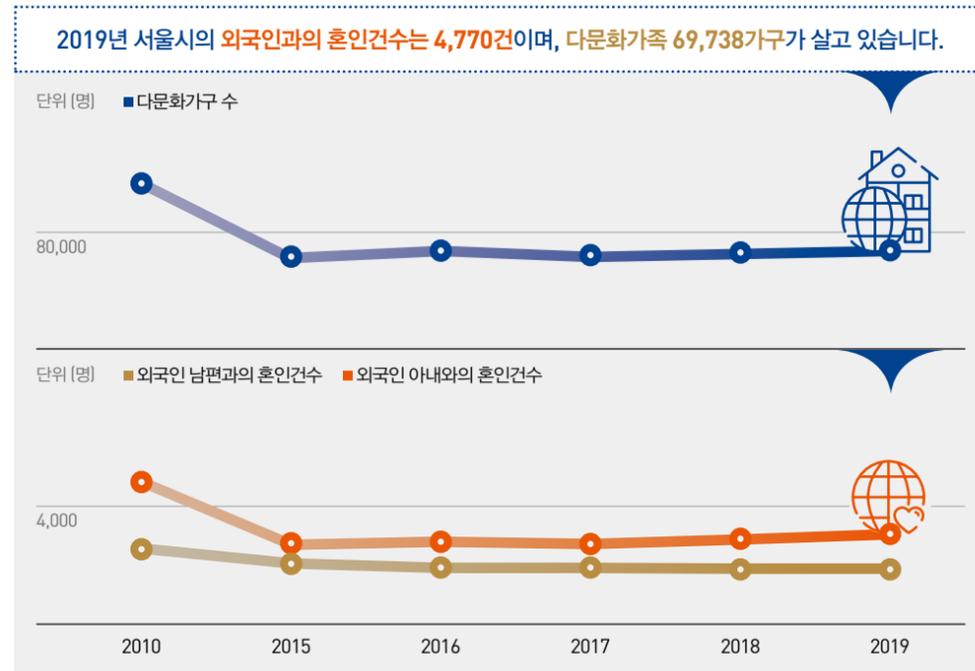


● 연령대에 따른 연도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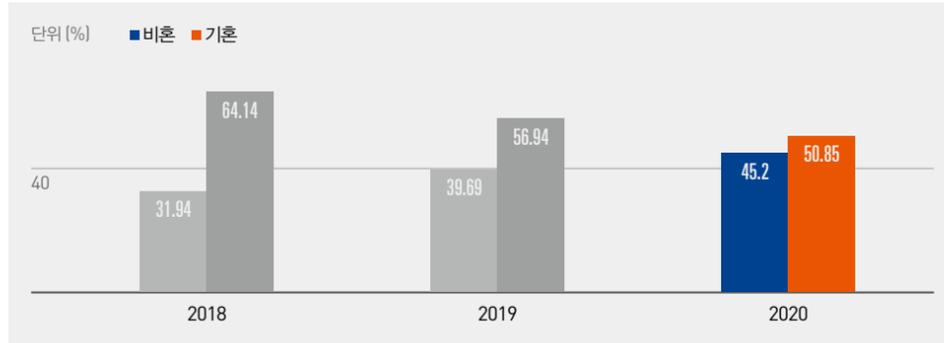


10. 서울시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다문화가구 수

서울시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4,770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2018년의 4,639건보다 약간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2019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3,006건이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일본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1,764건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순으로 많다. 서울시에는 2019년 다문화가구(국제결혼가족 및 외국인가족) 69,738가구가 살고 있으며, 2018년 67,790가구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 결혼지위에 따른 연도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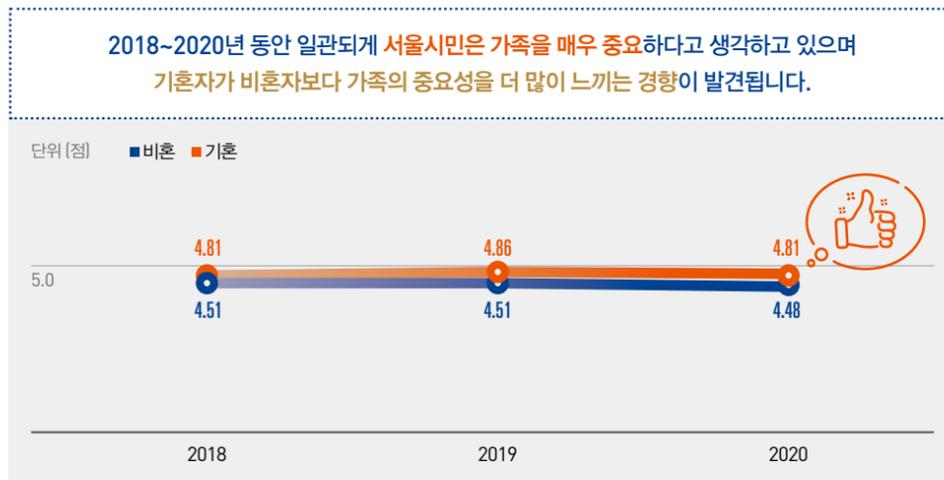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가족의 중요성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7점으로, 서울시민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혼지위에 따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자는 평균 4.8점, 비혼자는 평균 4.5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018~2020년 모두 기혼자는 약 4.8점, 비혼자는 약 4.5점대로 응답하여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일관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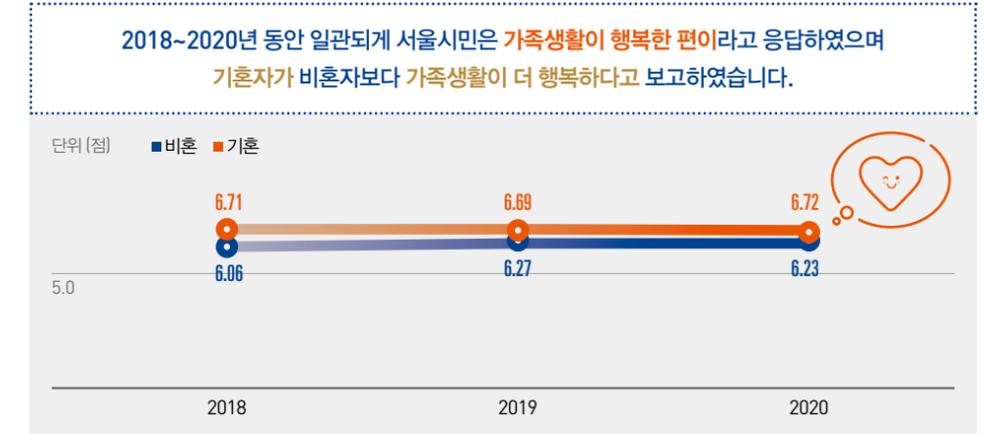
●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의 중요성 연도별 비율



2) 가족생활의 행복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9점 만점(1점 매우 행복하지 않음, 9점 매우 행복했음)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6.5점으로 행복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자는 평균 6.7점, 비혼자는 평균 6.2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가족생활을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다. 2018~2020년 모두 비혼자는 평균 6점 초반대, 기혼자는 평균 6점 후반대 점수가 나와 가족생활 행복도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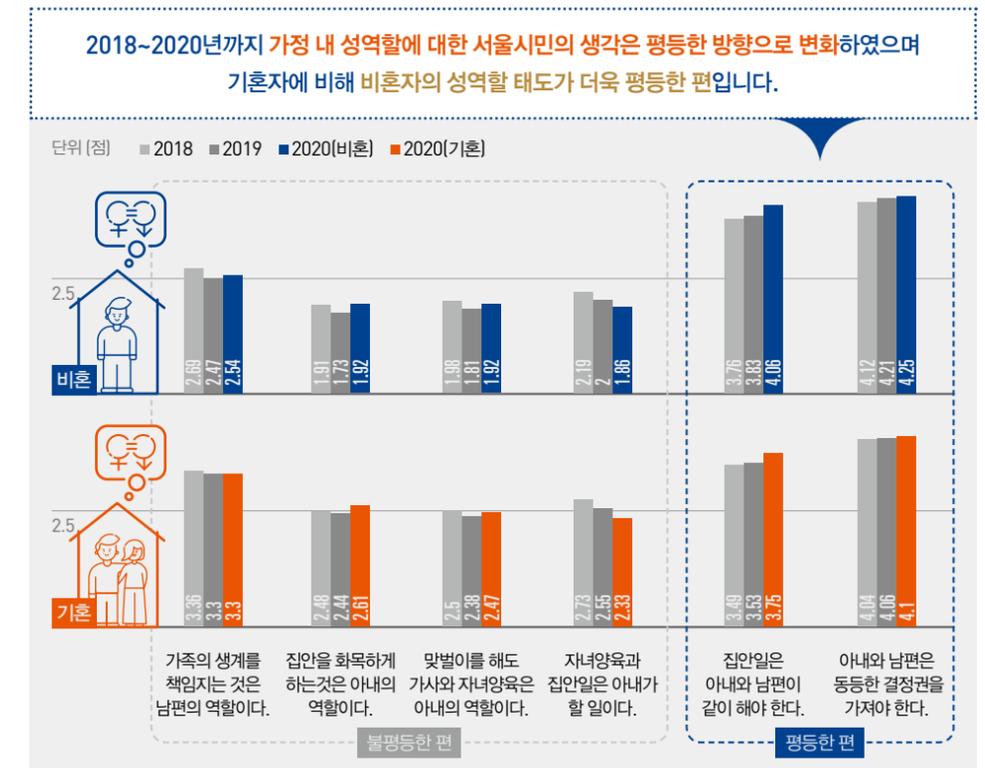
● 혼인유무에 따른 가족생활 행복도 연도별 비율



3)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생각

가정 내 전통적 성역할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등 4개 문항, 평등한 성역할은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등 2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3개년 서베이 결과, 기혼자와 비혼자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평등한 역할에 동의하는 정도는 증가하고 전통적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감소함에 따라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이 점차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혼인유무에 따른 가정 내 성역할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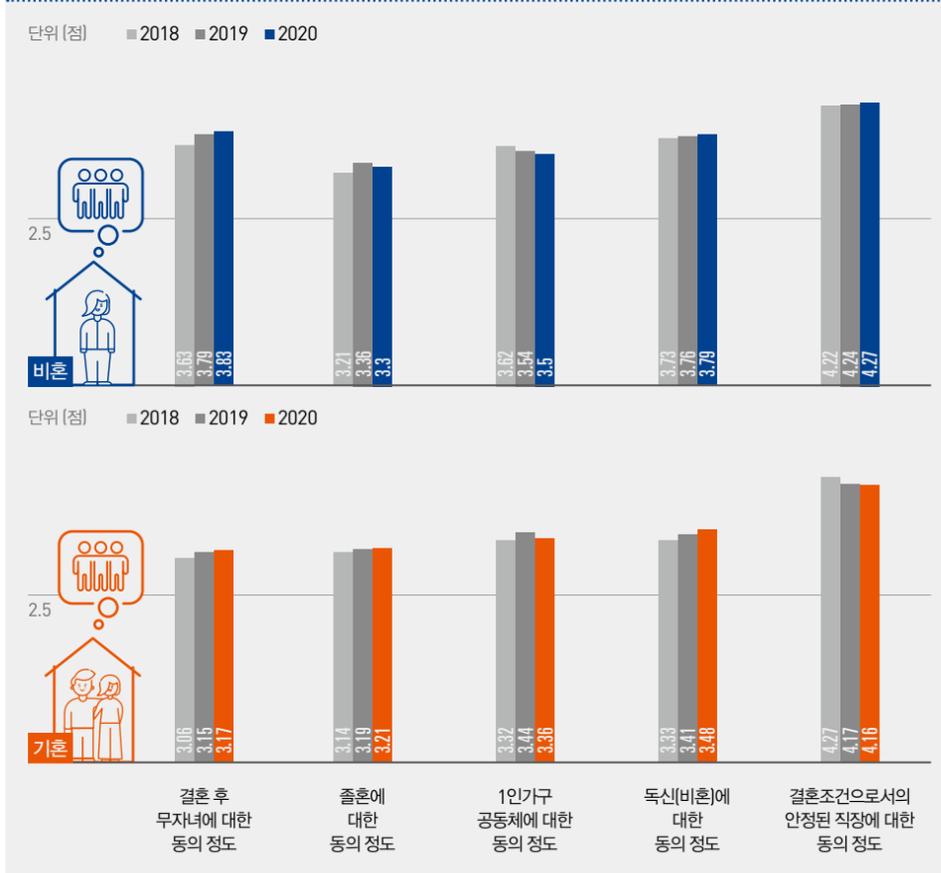
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질문 중 무자녀 부부, 졸혼, 1인가구 공동체,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묻는 문항에 모두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3개년 서베이를 살펴본 결과, 비혼자는 무자녀, 비혼 및 결혼의 조건으로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함에 점차 더욱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기혼자는 무자녀, 졸혼과 비혼에 점점 동의하는 한편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혼인유무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변화

2018~2020년 동안 서울시민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무자녀 부부와 비혼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5) 비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비혼자에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2.2%,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였다. 지난 3개년 동안 비혼자 중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7~48% 정도로 비슷하였다.

● 비혼 응답자의 연도별 결혼 의향

2018~2020년 동안 서울의 비혼시민 중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약 47~48%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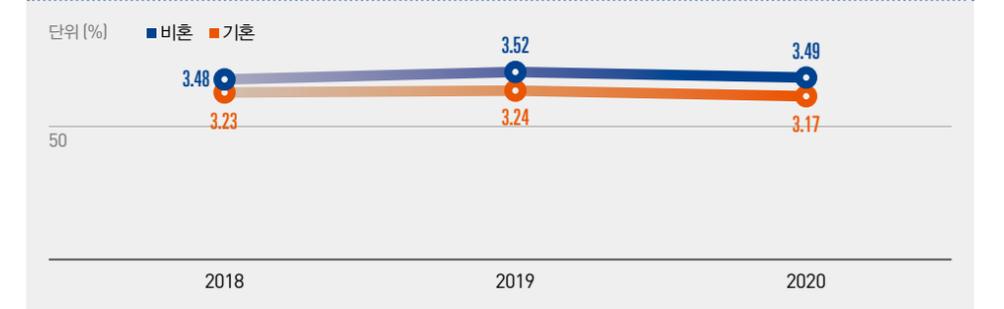


6) 부모부양에 대한 생각

<2020 서울가족 서베이>에서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비혼자는 평균 3.5점, 기혼자는 평균 3.2점으로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동의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3개년 모두 비혼자는 약 3.5점, 기혼자는 약 3.2점 수준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 혼인유무에 따른 부모부양 동의 정도

2018~2020년 동안 일관되게 서울시민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고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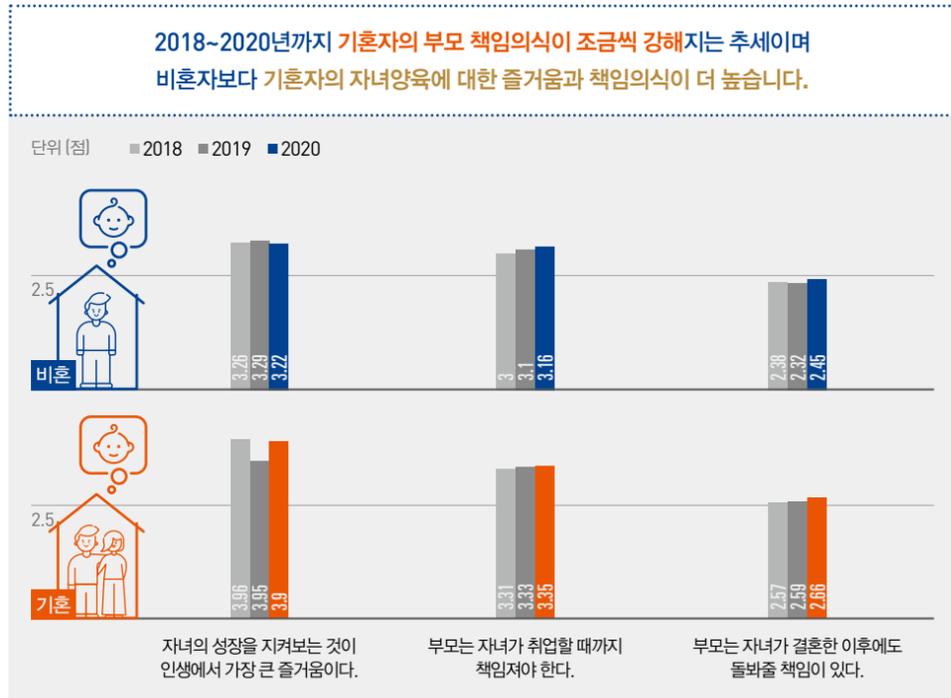


7)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 비혼자가 평균 3.2점, 기혼자가 평균 3.9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수준을 묻는 문항 중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와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에 대해 각각 비혼자는 평균 3.2점, 2.5점, 기혼자는 평균 3.4점, 2.7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부모의 책임 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3개년도 서베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기혼자의 부모 책임의식이 조금씩 강해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비혼자보다 기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즐거움과 책임의식이 더 높은 경향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혼인유무에 따른 자녀양육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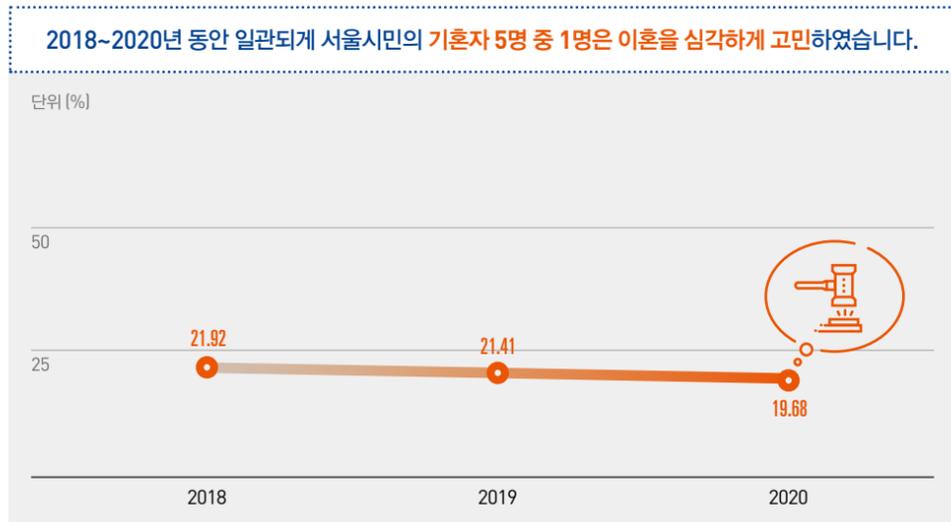


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1)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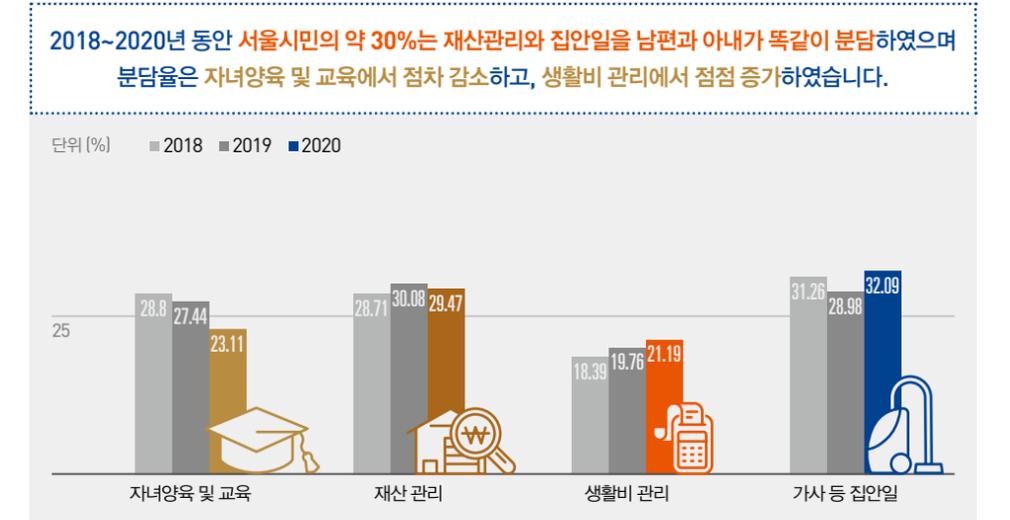
<2020 서울가족 서베이>에서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19.7%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개년 서베이 동안 일관되게 5명 중 1명 정도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혼자의 부부갈등 심각도



가정관리가 부부간 공평하게 분담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 관리, 생활비 관리, 가사 등 집안일을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 질문하였다. <2020 서울가족 서베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한다는 비율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23.1%, 재산 관리는 29.5%, 생활비 관리는 21.2%, 집안일은 32.1%로 나타났다. 3개년도 서베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부가 똑같이 분담하는 비율이 재산 관리와 가사 등 집안일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는 감소하고, 생활비 관리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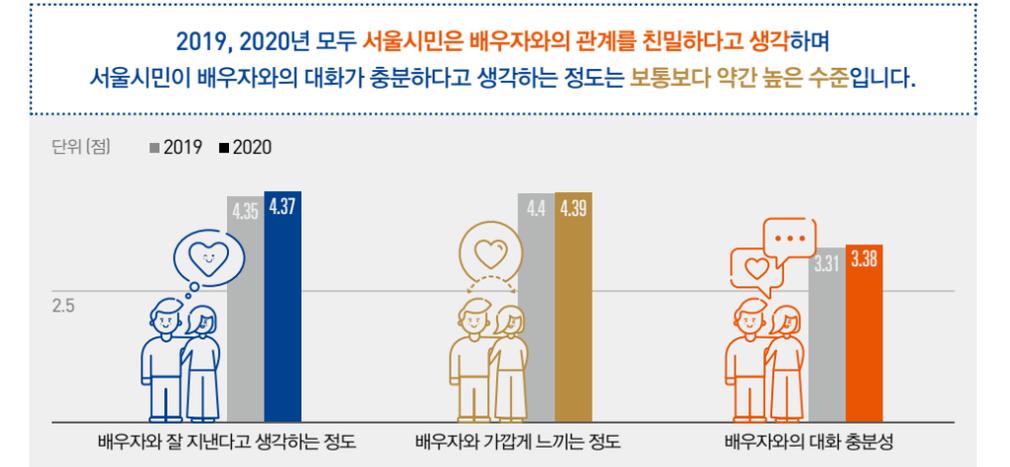
● 부부간 가정관리 분담율



2020년 서울시민이 느끼는 배우자와의 친밀감(2개 문항, 각 6점 만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 평균 4.4점, 배우자와 가깝게 느끼는 정도 평균 4.4점으로 서울시민은 배우자와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2019년에도 비슷하였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이는 2019년의 3.3점과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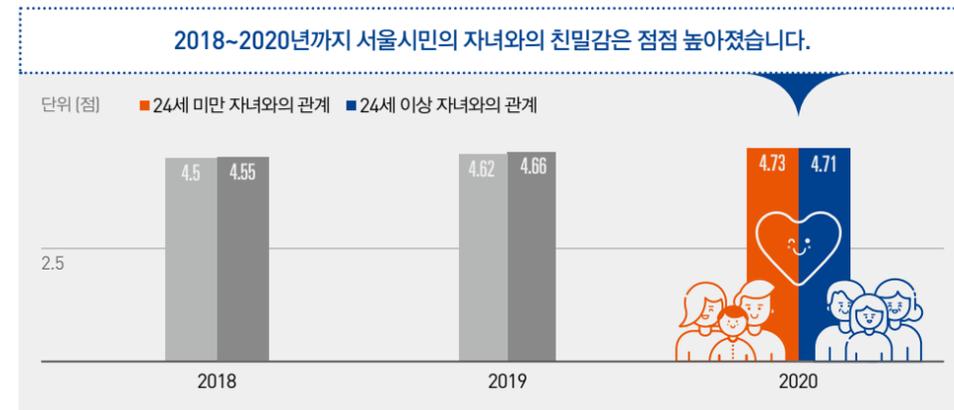
●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도



2) 부모자녀관계

2020년 서베이의 전체 응답자 1,949명 중 만 6~24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 570명, 만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137명에게 자녀와의 친밀감(2개 문항, 각 6점 만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만 6~24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평균 4.7점, 성인자녀의 부모는 평균 4.7점으로 부모들이 느끼는 자녀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3개년도 비교 결과, 자녀와의 친밀감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서울시민의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녀와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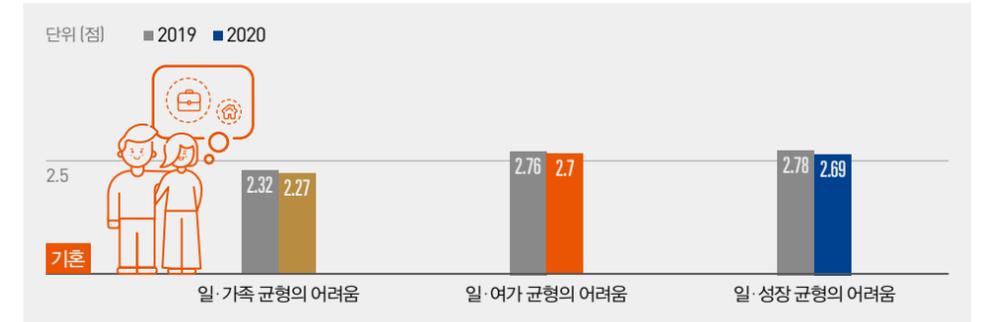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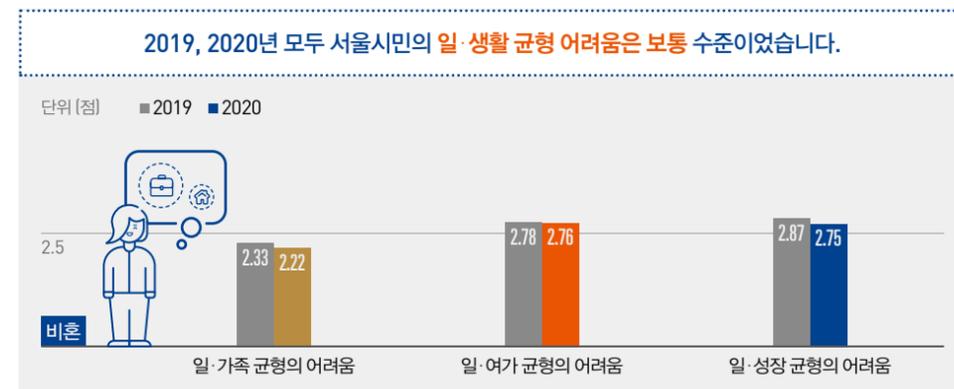


4. 서울시민의 일·생활 균형과 여가생활

1) 일·생활 균형

2019년 서베이부터 일·생활 균형을 가족, 여가, 성장 세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2.3점,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2.7점,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2.7점으로 여가와 성장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가족 영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기혼자가 비혼자에 비해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일·여가 균형과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2개년도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하위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소폭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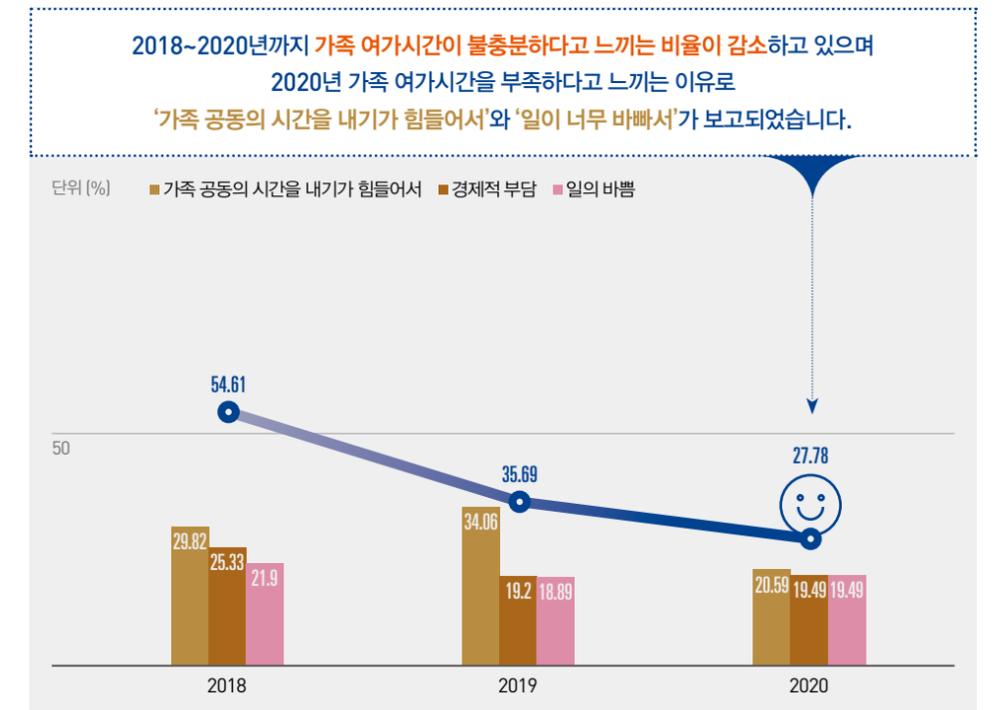


2) 서울시민의 가족여가

가족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2018~2020년 서베이 응답을 비교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18년 54.6%, 2019년 35.7%, 2020년 27.8%로 감소하였다.

가족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가 1순위,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2순위, '일이 너무 바빠서'가 3순위로 꼽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가 가족 여가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1순위이며, 다음으로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와 '일이 너무 바빠서'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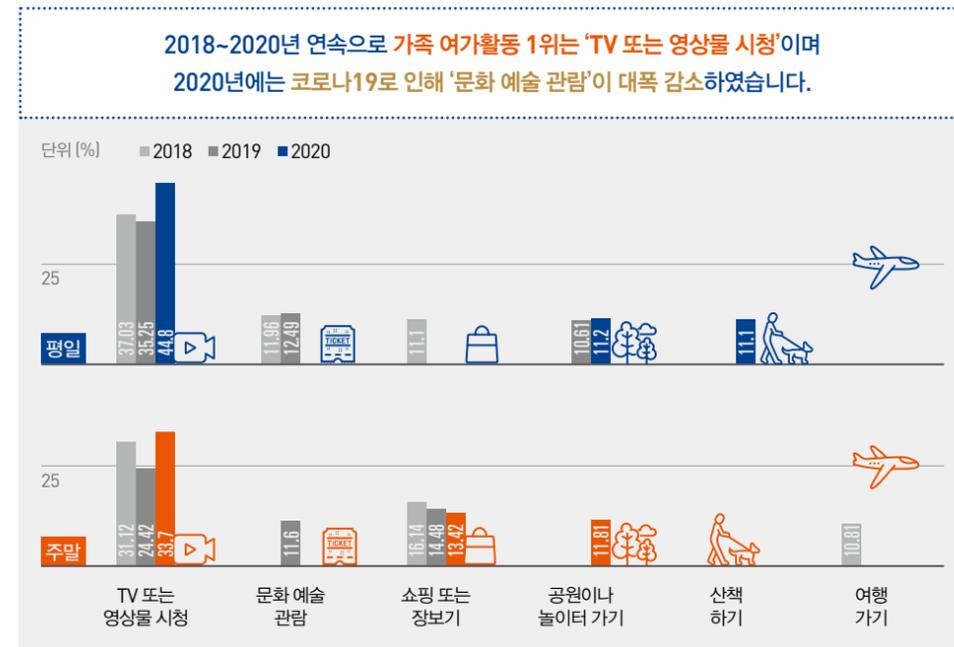
● 가족 여가시간 불충분성과 여가시간 부족 원인



서울가족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3년 연속으로 'TV 또는 영상물 시청'이 1순위로 꼽혔다. 평일과 주말에 TV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비율은 2018년보다 2019년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외활동에 제약이 많아짐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문화 예술 관람이나 여행의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공원 또는 놀이터 가기'와 같은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 실외활동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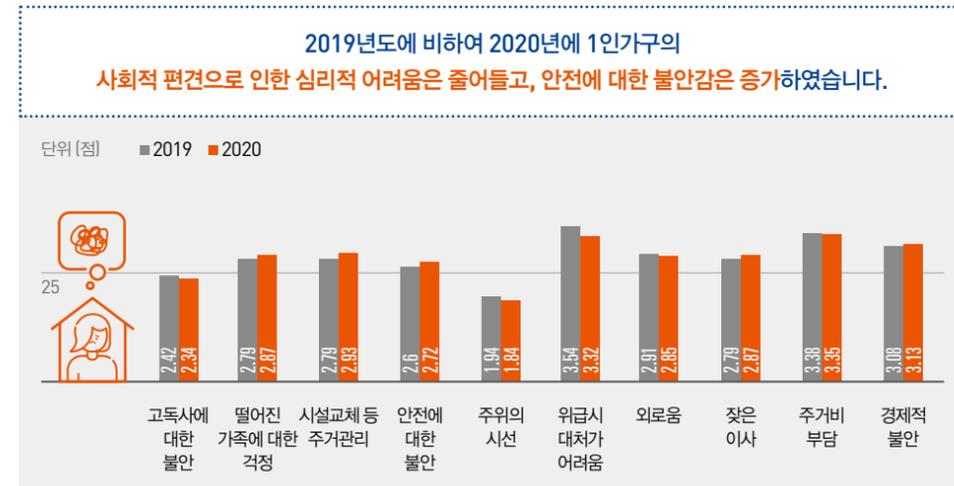
● 가족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



3) 1인가구의 어려움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결과, 비혼인 1인가구의 어려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평균 3.4점)이며, 다음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들다'(평균 3.3점),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평균 3.1점)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와 같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증가하였다.

● 1인가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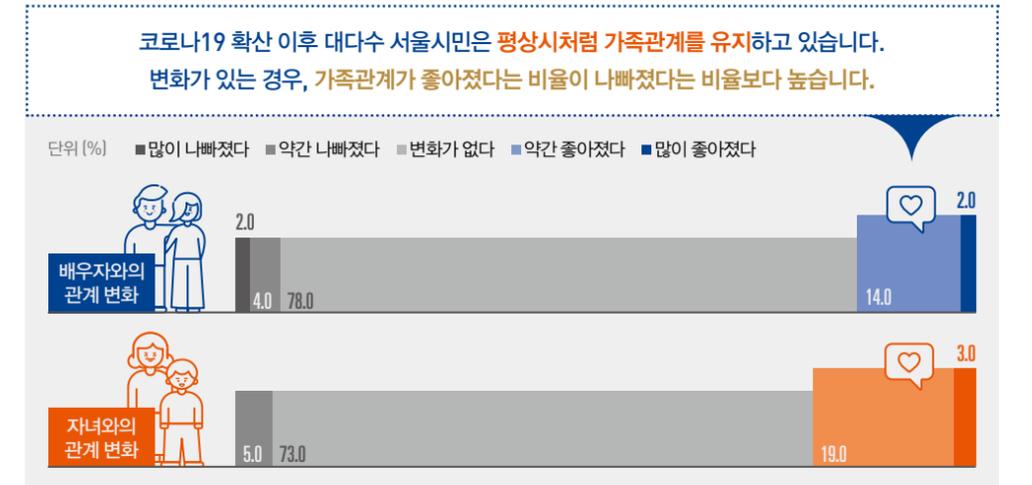


3 서울시 가족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1. 가족관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으나, 관계가 좋아졌다는 비율(16%)이 나빠졌다는 비율(6%)보다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으나, 관계가 좋아졌다는 비율(22%)이 나빠졌다는 비율(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비율이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졌다는 비율보다 높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 간의 관계변화



2. 집안일과 자녀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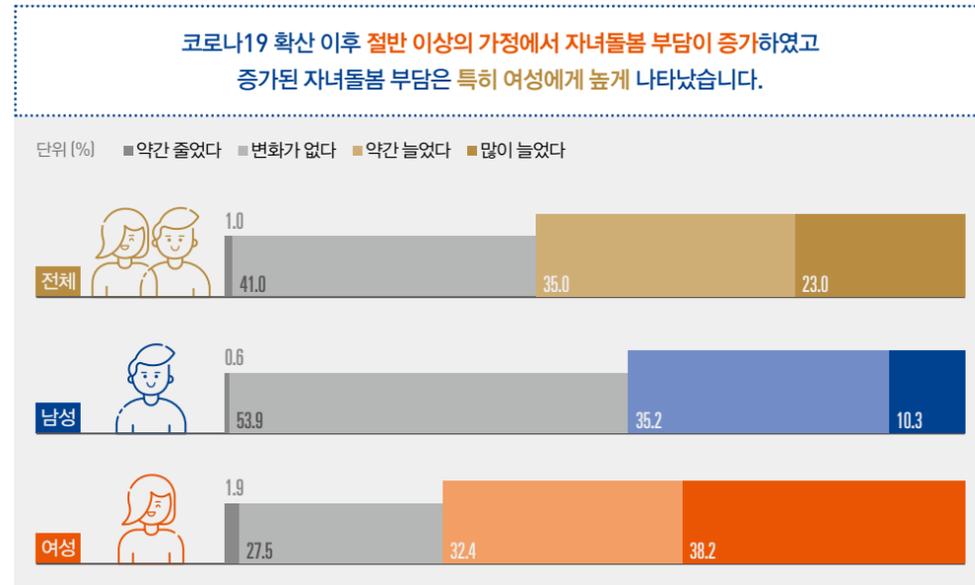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등 집안일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51%는 전과 비슷하다, 44%는 집안일의 양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의 남녀 간 차이는 없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등 집안일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돌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변화가 없다는 비율은 41%, 감소했다는 비율은 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돌봄의 부담이 부모에게 가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의 변화에서는 집안일의 변화와 달리 성별 차이가 크다. 남성의 절반 이상이 변화가 없고, 늘어난 경우가 그에 조금 못 미친다. 반면,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이 늘어난 경우가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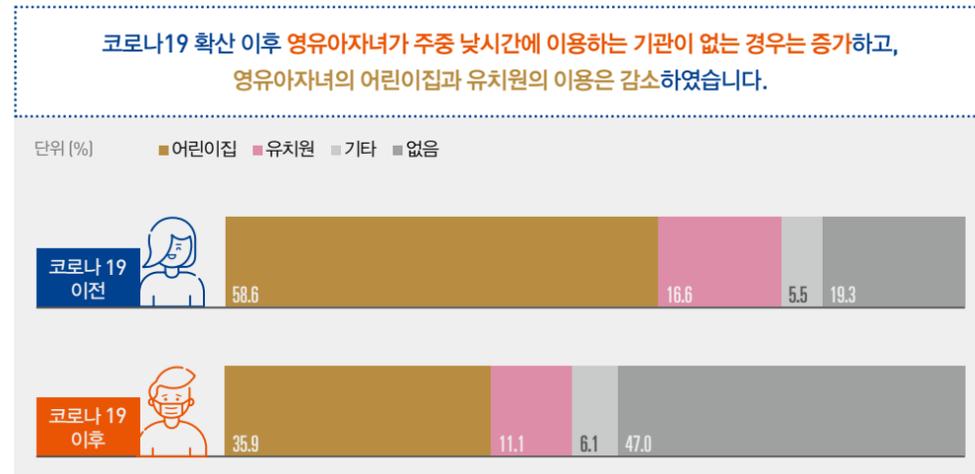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의 변화



3. 자녀 기관 이용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영유아자녀가 주중 낮 이용하는 기관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58.6%→35.9%), 유치원(16.6%→11.1%) 이용은 줄었다. 이와 반대로, 주중 낮시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었다(19.3%→47.0%). 학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기타 기관 이용은 코로나19 전후로 차이가 작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영유아자녀 주중 낮시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자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주중 방과후에 주로 집(돌보는 사람 있음), 초등돌봄교실·방과 후교실, 학원을 이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간에 절반 정도가 주로 어머니가 돌보았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고, 조부모, 기타, 아버지 순이다.

● 코로나19 확산 이전 초등학생 자녀 주중 방과후 이용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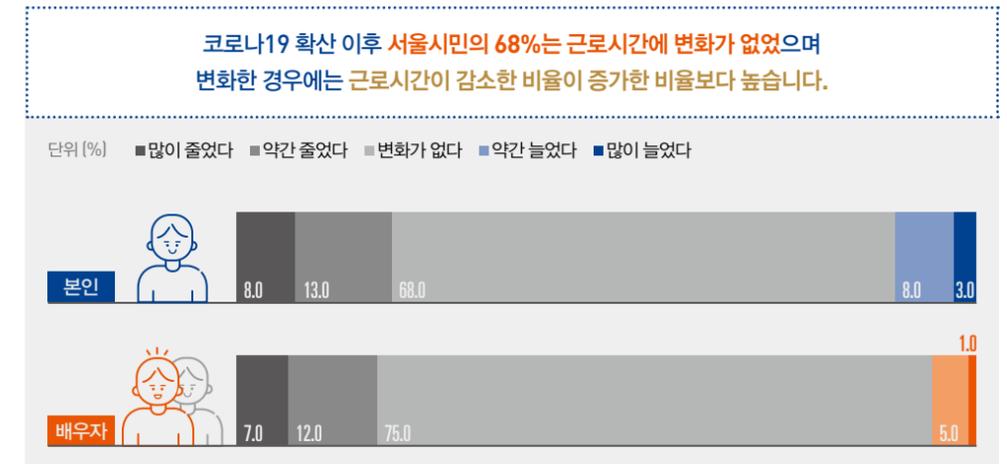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하지 못한 기간 주로 돌본 사람



4. 근로시간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8%, 75%였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비율은 각각 21%, 19%로 나타난 반면, 근로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11%, 6%로 나타나 근로시간의 감소를 겪은 가정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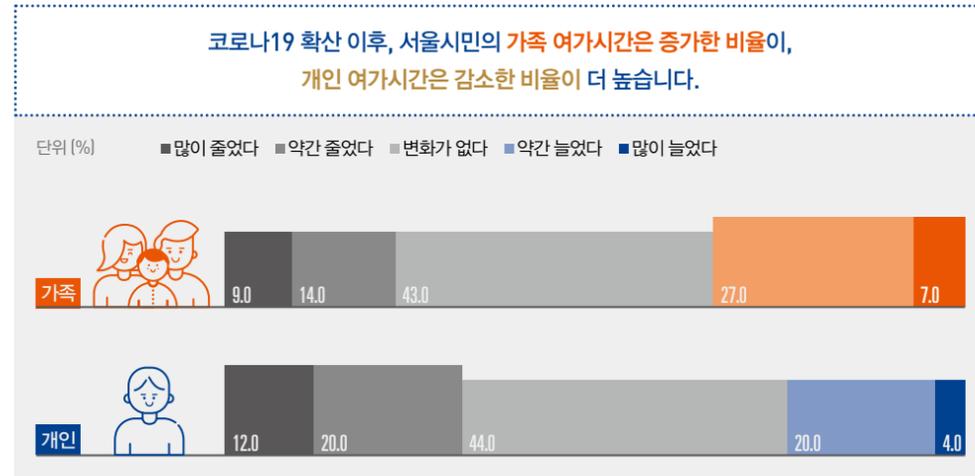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이후 근로시간의 변화



5. 여가시간의 변화

개인과 가족 여가시간 모두 변화가 없다는 비율은 약 43~44%로 가장 많았으나, 개인 여가와 가족 여가에 따라 증감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 여가시간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율(32%)이 증가했다는 비율(2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 여가시간은 증가했다는 비율(34%)이 감소했다는 비율(2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여가시간의 변화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가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아동, 성인, 어르신, 남성,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가족의 새로운 요구를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 일·생활 균형과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정책

경쟁사회가 되면서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일 중심, 성과 중심 문화가 만연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가족친화적 문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시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하고, 가족생활이 존중되는 가족친화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가족원의 권리와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한국가족에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규범이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탓에 세대 간, 젠더 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만혼, 비혼, 저출생,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돌봄의 공백도 발생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가족원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가족 주도,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정책

출산장려, 인구증가 등 국가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동네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를 쌓고 어울려 살 기회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누리는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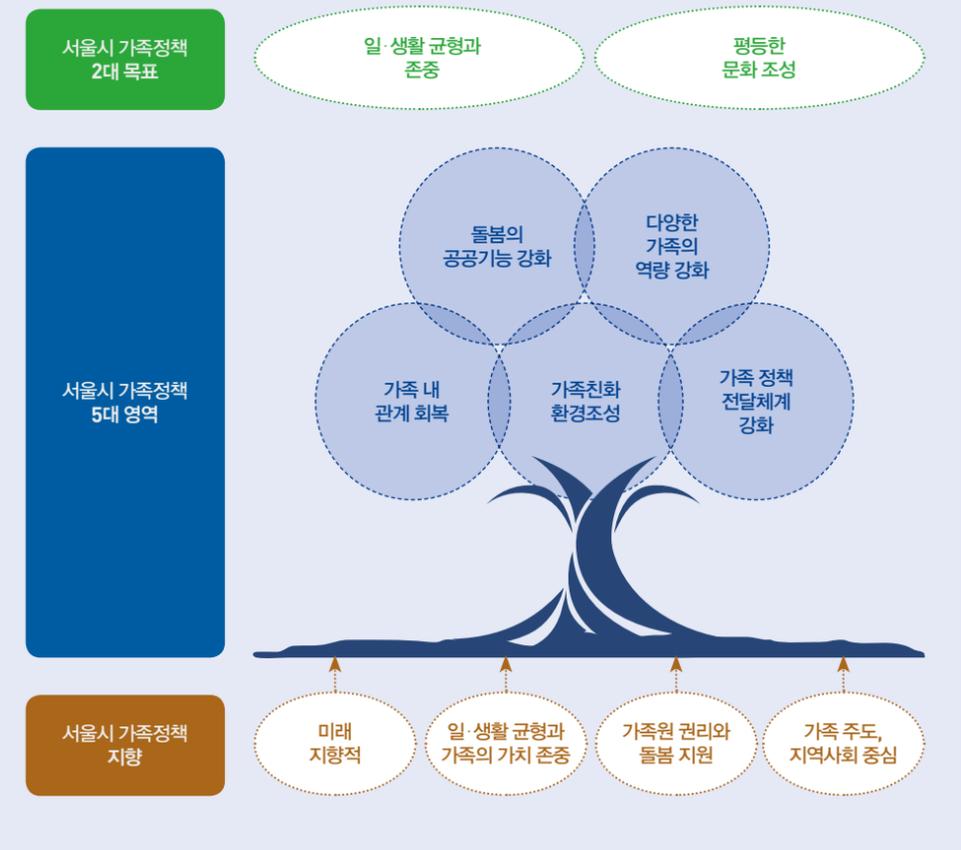
서울시 가족정책의 5대 영역

서울시 가족정책의 2대 목표는 ① 일·생활 균형과 ②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5대 영역은 ① 가족 내 관계회복,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 ① 가족 내 관계회복을 위해 공감·소통의 가족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합니다.
-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촘촘한 자녀돌봄망을 구축하고, 우리 아이 안전망을 확대하며, 미래세대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1인가구를 지원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며, 한부모, 다문화, 이혼, 조손 가족을 지원합니다.
-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을 지원하며, 평등과 존중의 가족가치를 확산합니다.
-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가족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통기회를 확대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을 통해 서울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가 됩니다.



2장



일과 생활을 같이

서울의 균형

- 1 아빠, 돌봄의 주체로 서다
- 2 엄마, 경력을 쌓다
- 3 일터, 가족을 응원하다
- 4 가족, 함께 여가를 누리다

2장

일과 생활을 같이 서울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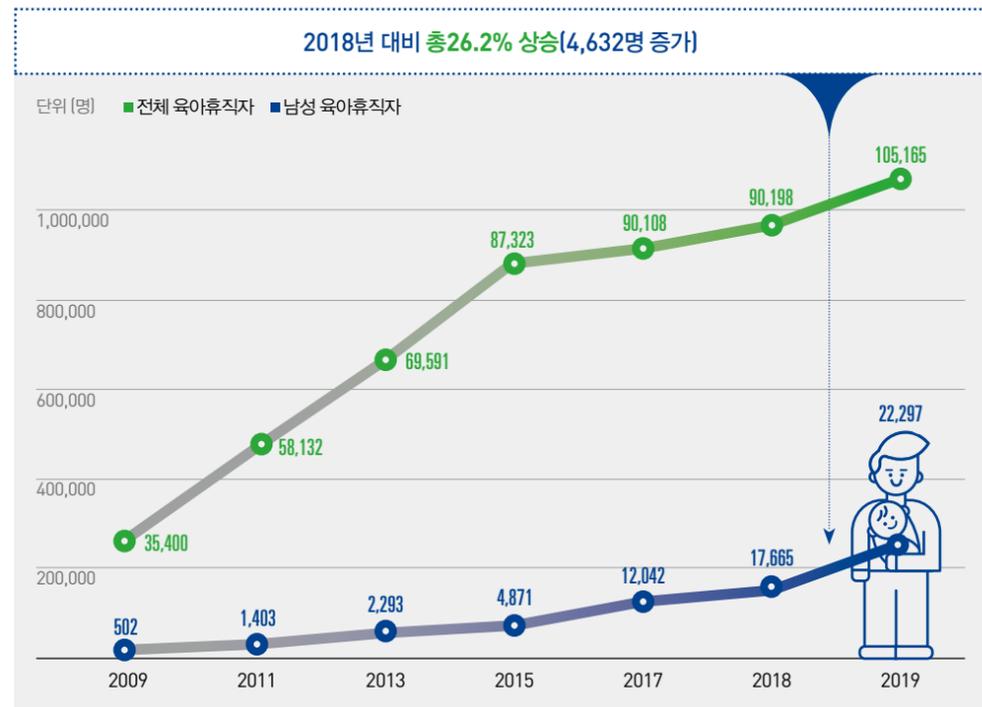
1 아빠, 돌봄의 주체로 서다

✓ 증가하는 아빠 육아휴직 이용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근로자는 2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1.2%를 차지하여 17.8%로 나타난 2018년에 비해 26.2% 높아졌다(고용노동부, 2019 고용보험 DB자료). 일·가족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점점 더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이 전년 대비 3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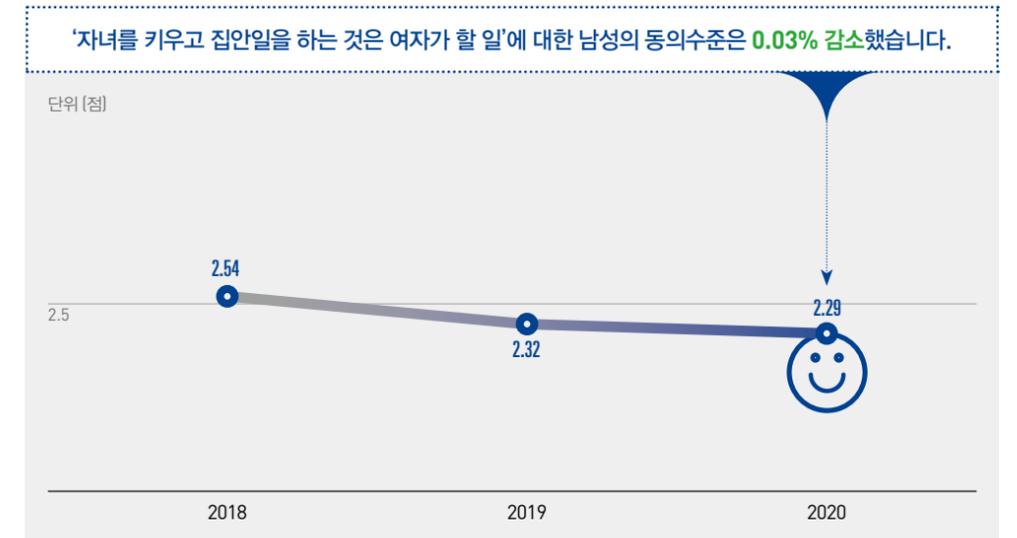
●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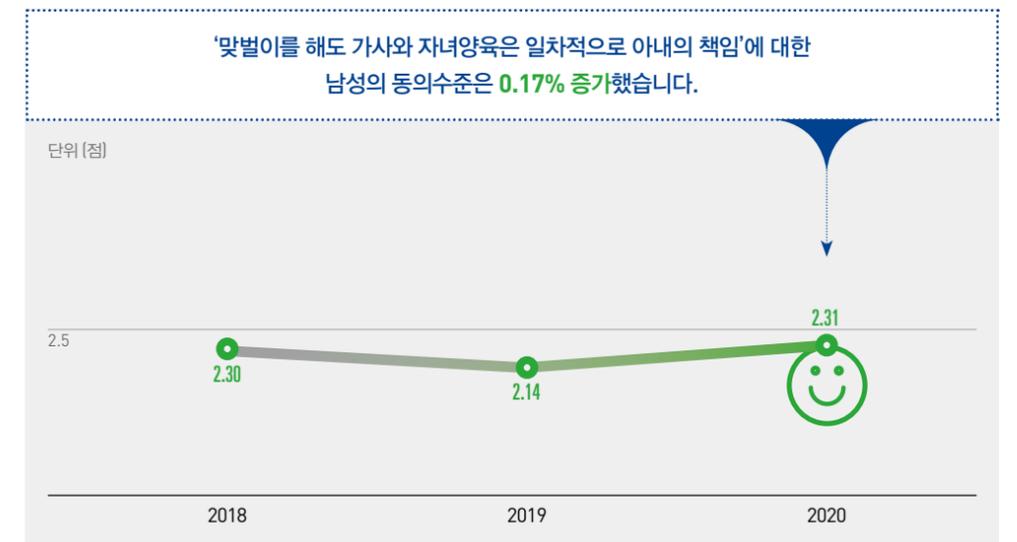
✓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의 성역할태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3개년 비교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가족보고서 3개년 서베이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와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문항에 대한 남성의 동의수준은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성역할태도가 평등하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서베이에 오�히려 증가하여 인식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남성들이 자녀돌봄 역할을 여성의 할 일로 규정하지 않고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 분담을 수용하는 모습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남성들의 인식이 증가하여 보수적인 성별 분업 틀을 인식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였다.

●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에 대한 남성의 동의수준



●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에 대한 남성의 동의수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제공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로 아버지가 두 번째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불린다. 2019년 이 제도의 이용자 총 9,796명 중 8,599명(87.8%)이 남성 사용자였다.

아빠육아지원 (아빠넷)



★ 아빠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아빠넷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육아 참여·직장 복귀 지원, 아빠 맞춤형 통합 정보, 아빠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 아자서울

Seoul



★ 아빠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신설한 인스타그램 채널



출처: www.instagram.com/seoulfamily_official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Seoul

★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제공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버지 스스로의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아이와의 안정 애착 형성 방법, 효과적인 훈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아버지에게 안성맞춤인 교육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패밀리리얼 홈페이지(www.family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부자유친 프로젝트

Seoul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 프로그램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말 여가시간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인 ‘부자유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공방체험, 과학실험, 숲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제과일청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보드게임 즐기기 등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출처: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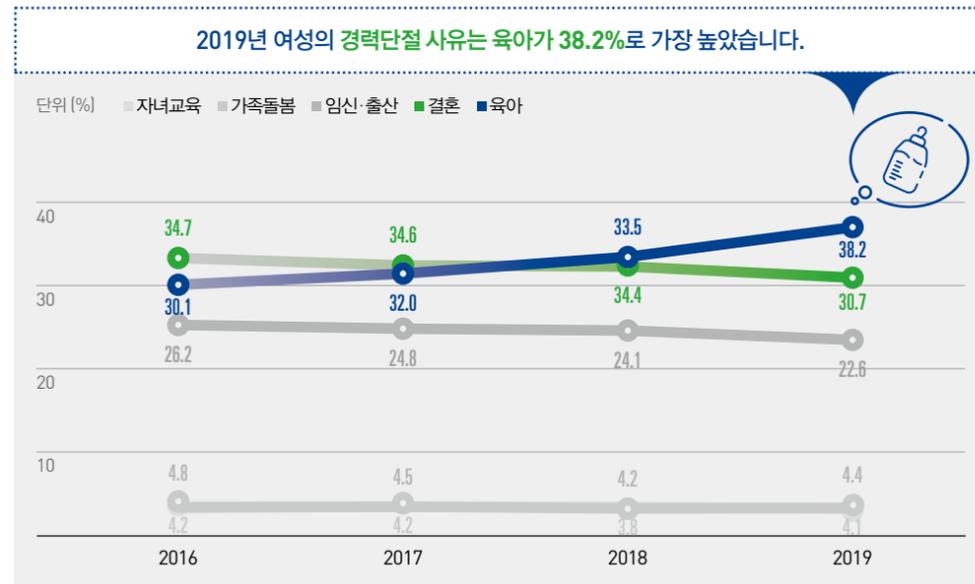
출처: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2 엄마, 경력을 쌓다

✓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기 쉬운 엄마의 경력

2019년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수는 170만명에 육박하고, 비취업여성의 50.5%를 차지한다. 경력단절 사유로 2018년까지는 '결혼'이 가장 주요한 사유로 꼽혔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육아'가 결혼을 앞질렀다(통계청,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부족(22.8%)이 가장 많이 꼽혀 육아로 비롯되는 여성의 일·가족 균형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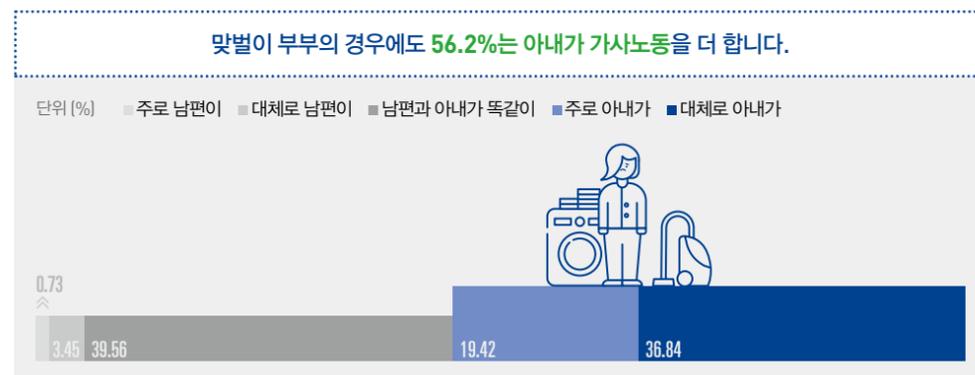
● 경력단절 사유



✓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을 보면, 주로(19.4%) 또는 대체로(36.8%)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나눠서 하는 비율은 39.6% 수준이었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에도 집안일을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보다 아내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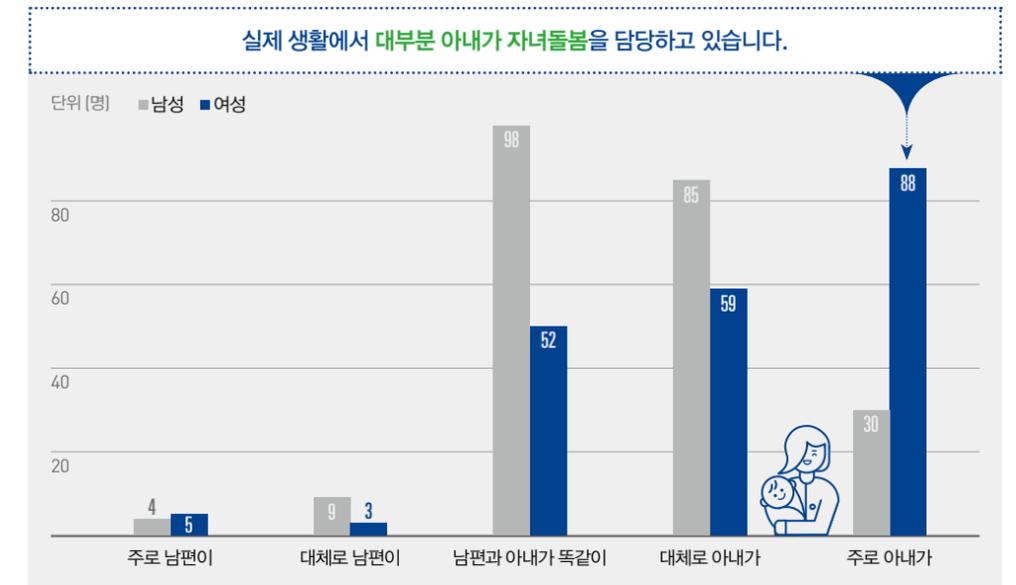
●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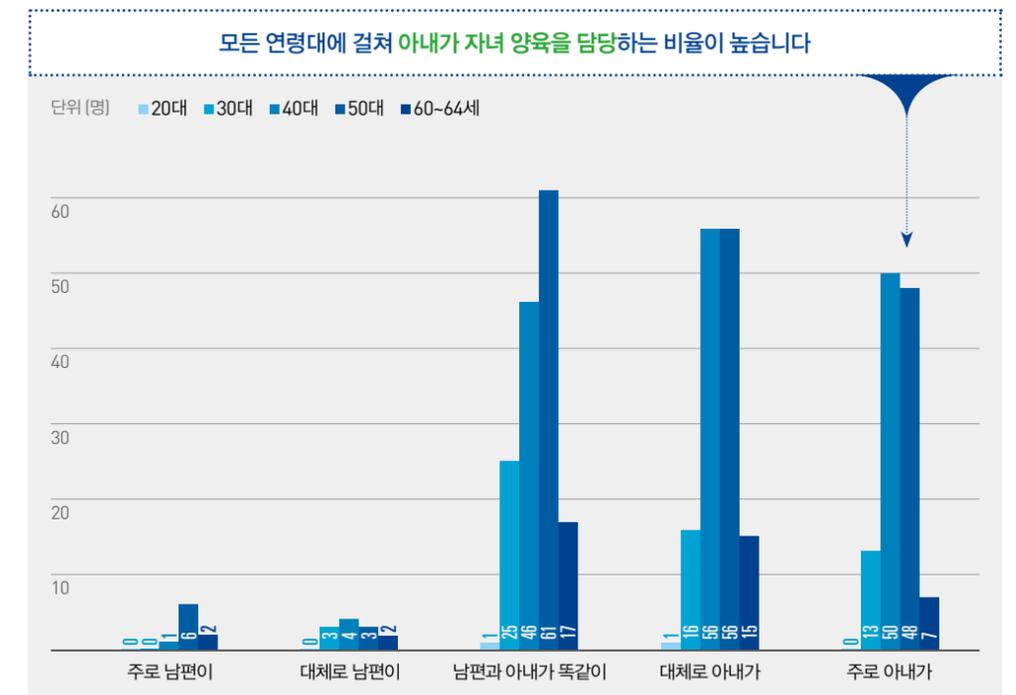
✓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및 교육 분담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살펴보면, 남성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하거나 '대체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여성은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아내가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보수적이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내가 주로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 성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분담



● 연령대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및 교육



✓ **일과 자녀양육을 모두 맡아야 하는 한부모**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의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낮은 급여(37.5%)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부족(28.7%)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상황 시 자녀돌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31.5%로 나타나 일과 자녀돌봄의 불균형을 가중하여 겪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부모 가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한부모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한부모 배제 없는 일·가족 양립 - 양부모만큼의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보장소규모 사업장 - 일·가족 양립 가이드라인 개발 - 한부모 고용촉진 유도
자기 돌봄 지원 강화	자기돌봄과 가족돌봄의 조화 - 한부모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지원 - 건강·심리 상담 확대, 자기돌봄 프로그램 개발보육기관 - 입소순위 우선배치 - 긴급 아이돌봄 및 청소년 진로상담 지원
자립과 연대 지원 강화	자립과 상호지지망 형성 - 일·학습·생활 균형 지원정책 수립 - 한부모 커뮤니티 지원강화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인식개선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 ☰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Seoul

★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센터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여성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전문노무사가 상담을 제공하고, 자녀돌봄, 남녀고용평등,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는 서북권(은평구), 서남권(금천구), 동부권(광진구) 총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 전화상담 02-335-0101
- 온라인 상담 www.workingmom.or.kr > 종합상담 > 온라인 상담 메뉴 클릭
- 이메일 상담 workingmom@hanmail.net
- 찾아가는 상담 상시 신청 가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구직,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15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28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에 약 18만명의 여성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였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 새일여성인턴사업

- 참여대상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자격조회 후 조건 충족시 인턴연계)
- 근무조건
 - > 인턴기간 3개월
 - > 전일제 원칙 (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서울우먼업

Seoul

★ 교육과 취업 자료 제공하는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통합 사이트

서울우먼업(Seoul Woman Up)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www.seoulwomanup.or.kr)의 이름이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며, 서울시는 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등 총 2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기관 위치는 부록 참조).

독일은 14개월 동안 출산 전 월급의 약 70% 정도(출산 전 소득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를 지급하는 ‘부모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수당 플러스’라는 제도도 있는데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부모들이 주 25~30시간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신청한 부모는 부모수당의 월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14개월에서 28개월로 늘려서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나 커플이 모두 시간제 일자리에 일한다면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를 통해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제도는 부모 모두 시간제 근로로 전환했을 경우 소득이 부족해지는 문제, 양육으로 전일제 복귀가 어려운 등 육아 휴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육아기 가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해외에는 한부모 가족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사용할 경우 겪을 수 있는 근로 및 소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양부모가 받는 혜택을 한부모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스웨덴 >> 한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양부모만큼 보장

스웨덴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할당되어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에게 보장되는 합산된 육아휴직 기간을 한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 간 정책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다.

핀란드 >> 양육을 위한 일시적 무급 휴가에 대해 통상 임금 보장

핀란드에서 10세 미만 자녀가 아플 경우 혹은 16세 미만의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일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아플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 >> 자녀돌봄휴가 기간 2배로 보장

노르웨이는 12세 미만의 자녀가 아플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보장하는데, 한부모 가족에게 양부모 대비 2배의 휴가 기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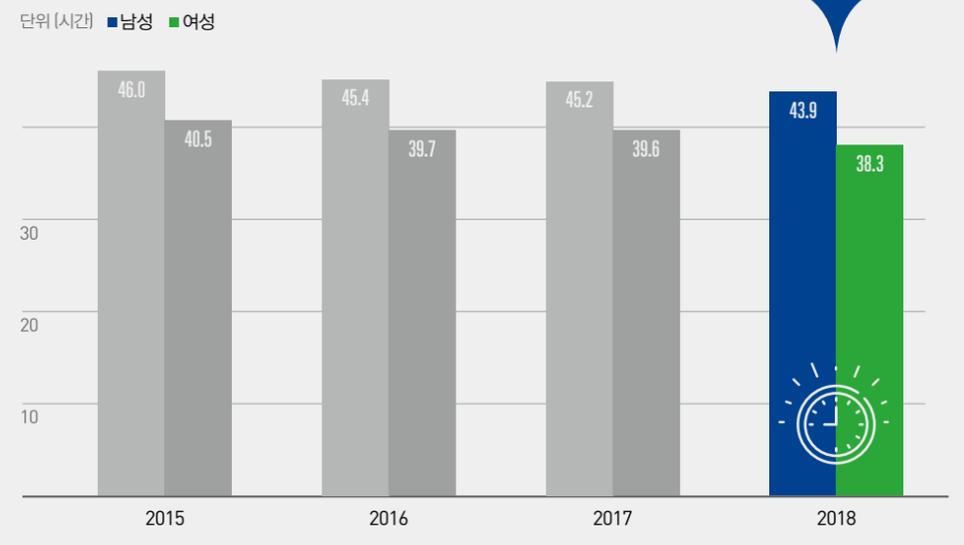
3 일터, 가족을 응원하다

✓ 일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 중심으로 변화

한국사회는 점차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2015년, 2017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일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19년에는 일과 가족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로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제쳤다(통계청, 2019 일·가정 양립지표). 2018년에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와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2019 일·가정 양립지표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2019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비율은 44.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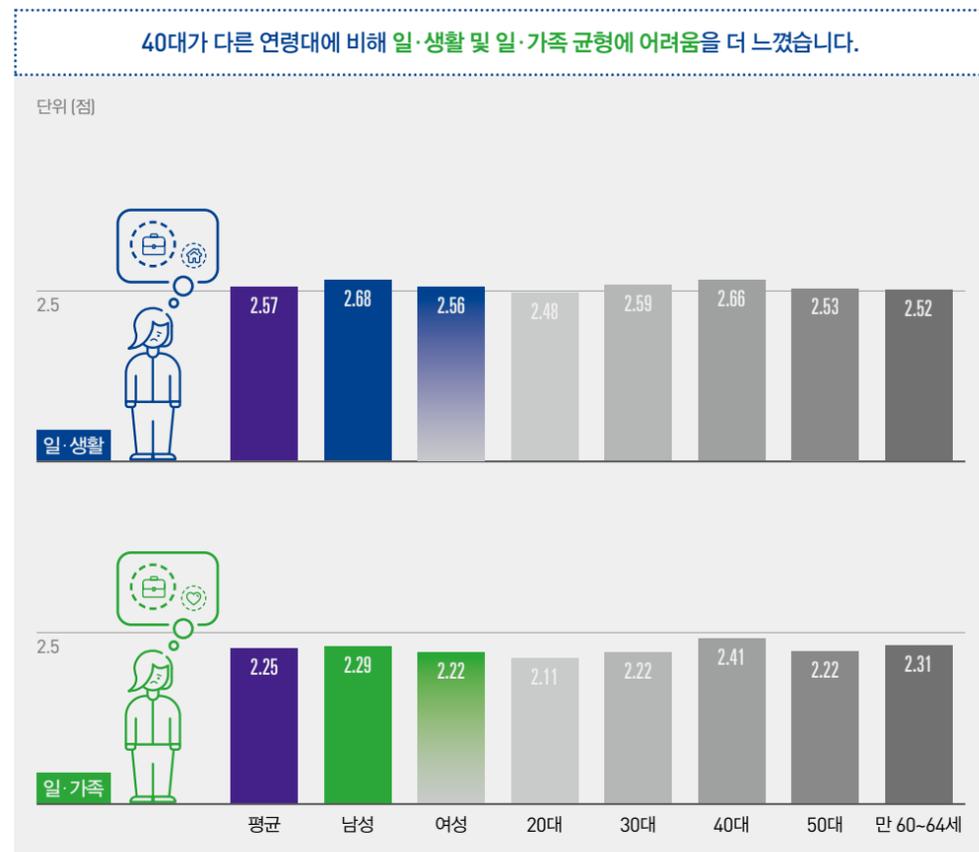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9 일·가정 양립지표

✓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취업 중인 응답자에게 일·생활 균형을 가족, 여가, 성장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5점에 가까울수록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큼). 세 가지 영역을 합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2.6점, 남성은 평균 2.7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평균 2.7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 세 가지 영역 중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점수는 평균 2.3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에서 평균 2.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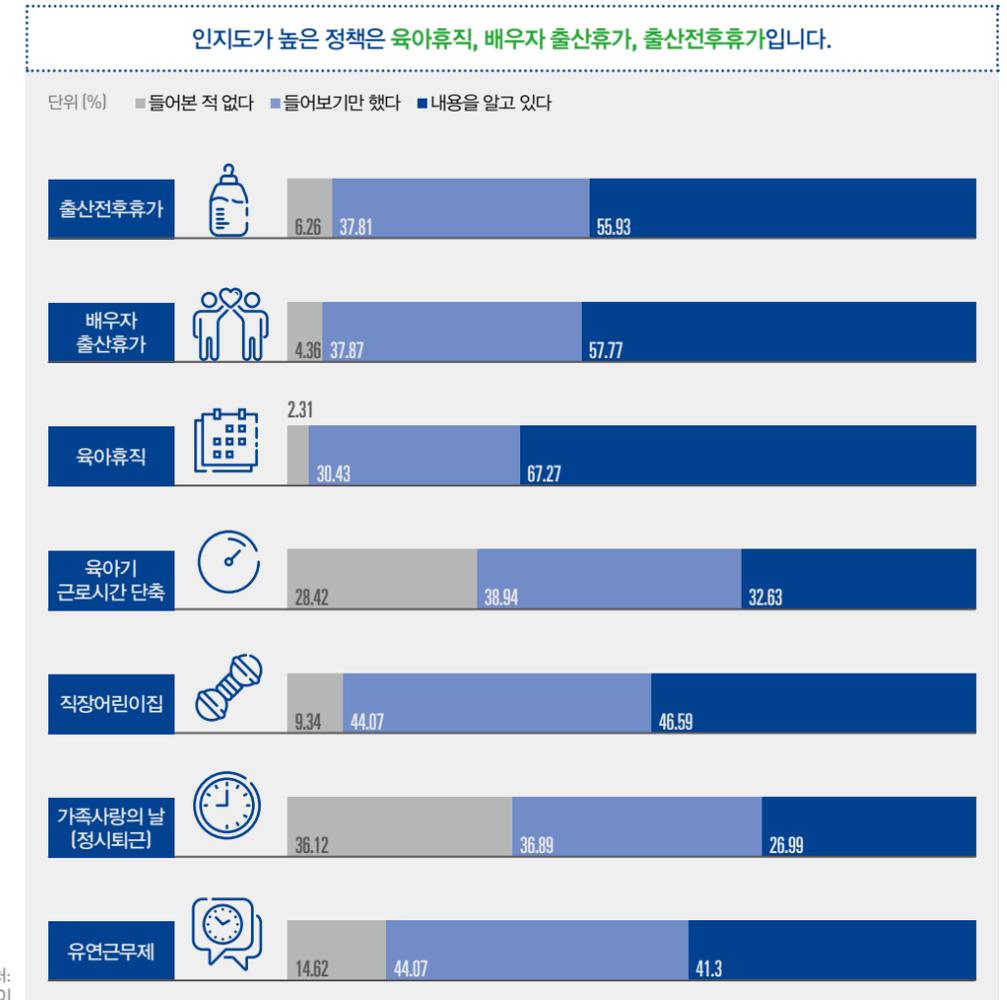
● 일·생활 및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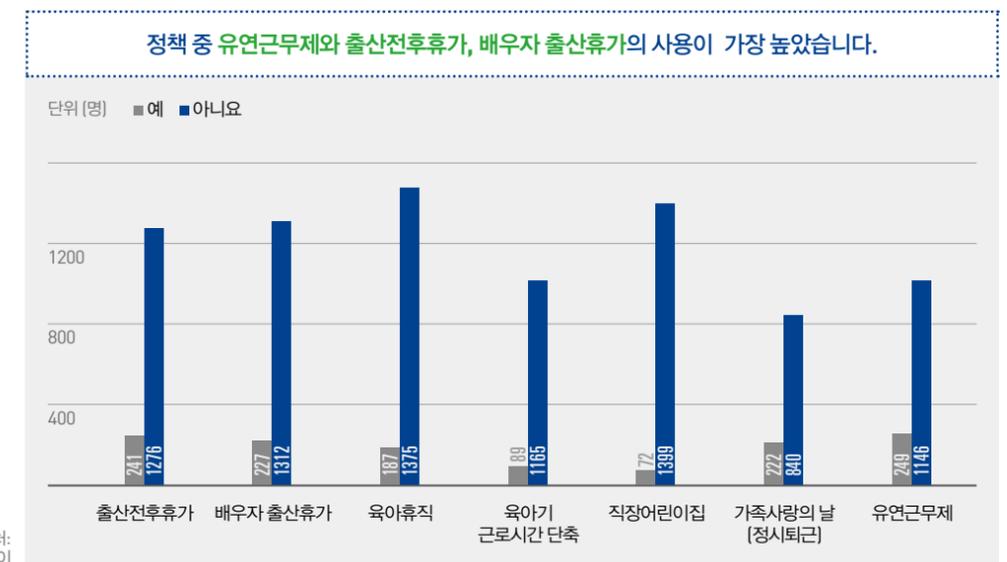
✓ 일·생활 균형 정책 인지도와 이용경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사랑의 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정책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해본 근로자가 많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해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정책 사용 만족도(1~5점)는 유연근무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 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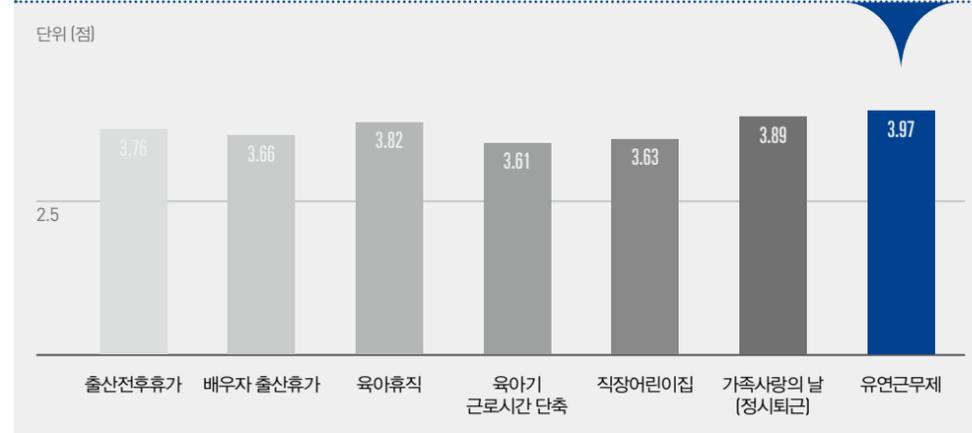


● 정책 이용경험



● 정책 만족도

정책 만족도는 유연근무제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휴가/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에게 90일간 유급휴가 제공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9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 상한액이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아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유급 휴가기간이 최대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급여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휴가를 요구하는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혜택 2020 New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장된 1년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 최대 2년 보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인데, 1회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보장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제공되는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다. 1년에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직의 혜택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서만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 가족돌봄, 노동자 자신 돌봄, 은퇴준비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임신과 육아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대폭 확장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노동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 학업을 위한 경우'가 있다.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 1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 가족친화 직장환경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Seoul

서울시는 2009년부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잘 보장하는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여성고용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표창, 홍보 콘텐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Seoul



★ 서울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스웨덴 >>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스웨덴은 자녀 출산과 출산 이후의 여러 과정에서 필요한 휴가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부모 보험을 통해 제공한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득자, 구직자, 자영업자, 학생까지 부모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양육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보험제도이다. 390일 간 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90일은 반드시 파트너가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분담을 독려하고 있다.

캐나다 >> 퀘벡주의 부모보험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 QPIP)

캐나다의 다른 주가 고용보험을 통해 부모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퀘벡주는 별도의 퀘벡 부모보험을 통해 부모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고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며, 고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약 1.4배 더 부담한다. 이 제도는 부모보험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남성 부모휴가 참여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보장된 90일 중 최소 30일 이상을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가 새로 마련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급작스러운 가족의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어 부모가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 최대 50만원(1일 5만원, 10일 기준)을 지원하였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제도이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보다 돌봄 제공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가 제도는 휴가 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져오므로 온전한 권리 보장과 가족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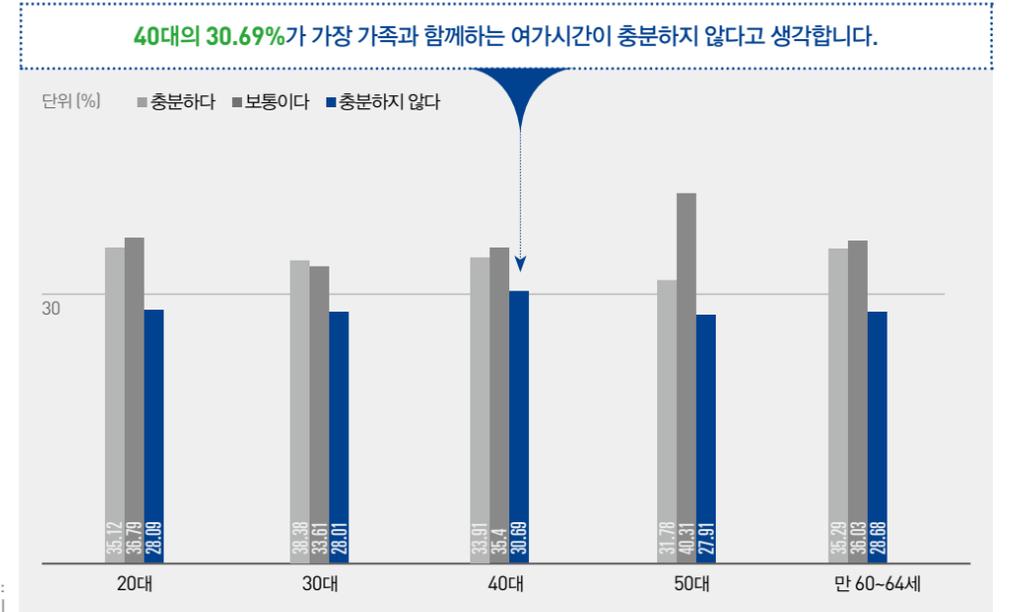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여러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고, 긴급 돌봄 제공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유급화는 근로자가 위기상황 시 마음 놓고 가족원을 돕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4 가족, 함께 여가를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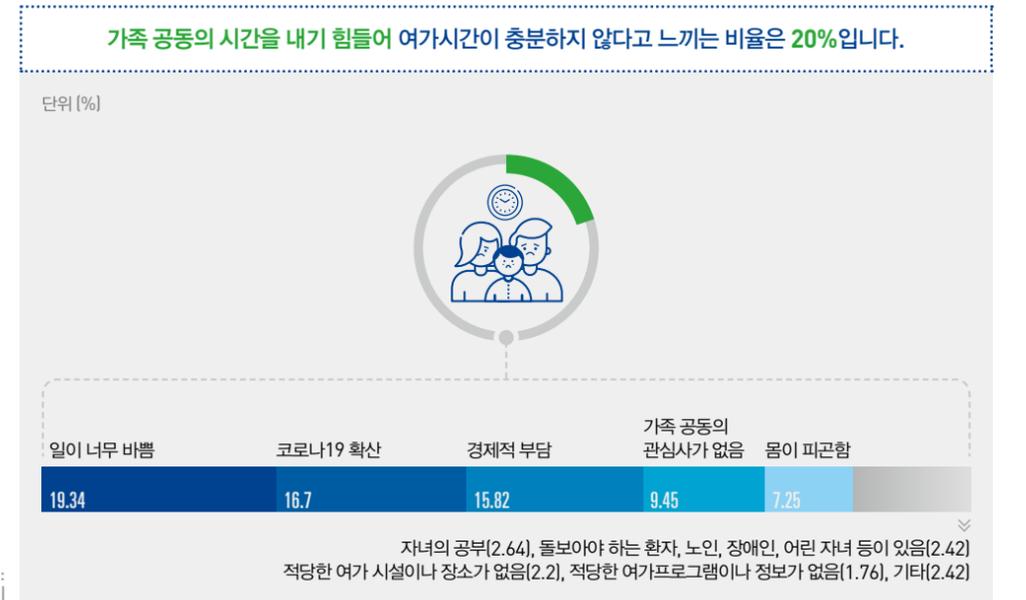
✓ 가족의 여가시간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중 28.7%는 가족과 함께 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40~49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30.7%)이 가장 높았다.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20.0%), '일이 너무 바빠서'(19.3%), '경제적 부담 때문에'(15.8%) 등의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16.7%)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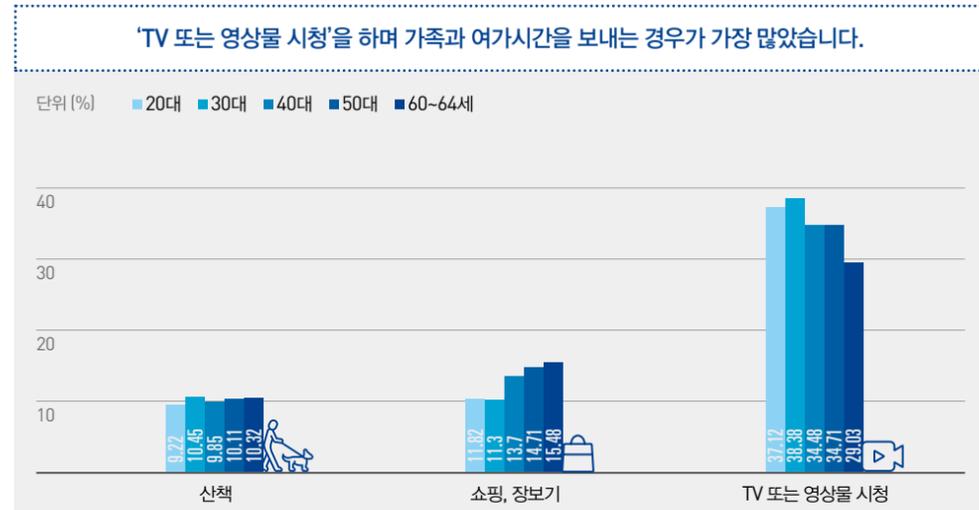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들은 'TV 또는 영상물 시청'을 하며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쇼핑·장보기'와 '산책'이 많았다. 2019년에 가장 많이 하는 가족 여가활동 2순위로 나타난 '문화 예술 관람' 대신 산책을 즐기는 가족이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보인다.

●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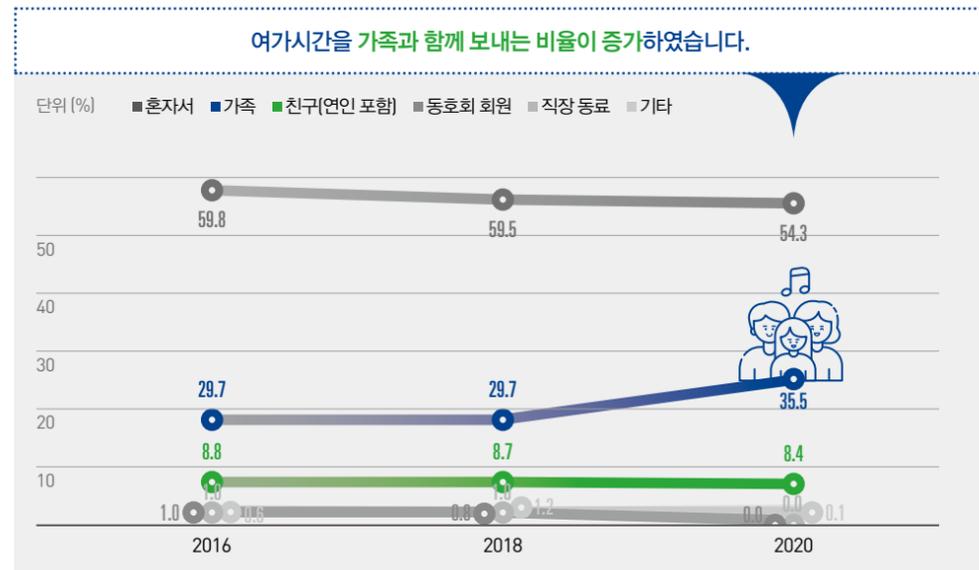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와 함께 증가된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과 비교하여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응답자의 60% 이상이 여가활동을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 등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가족여가의 모습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 여가활동 동반자(1순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족사랑의 날

★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사랑의 날'로 가족친화경영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사랑의 날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공연, 미술작품 전시회, 인문학 콘서트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처: www.culture.go.kr

4월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월 가족 사랑의 날을 진행합니다!
4월에는 외출이 어려워도 온가족이 즐거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가족 사랑의 날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안내

- ▶ 진행내용: "두근두근 놀이박스"로 우리 가족 함께 놀기
- ▶ 참여대상: 유아기, 아동기(초·중·고) 가족 (5인 가족)
- ▶ 신청일: 2020. 4. 20 (월) 10:00 ~ 소모임까지
- ▶ 신청일: 2020. 4. 23 (목) ~ 2020. 4. 25 (수)
- ▶ 문의: ☎ 070-4066-0535 가족지원팀 영소현

신청방법

-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색 후 온 가족 QR코드 찍고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널 추가
- ▶ 정보 탭 > 활동 탭 > 무료확인 후 찾아오는 가족 사랑의 날 무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에 동의하는 등 개인정보 동의
- ▶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 신청 시 반드시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주시고, 연락처와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찾아오는 가족 사랑의 날 카카오톡 채널 신청과 약에 동의 가능하며, 해당 카카오톡 채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도조사 및 참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응답 시 다음 번 찾아오는 가족 사랑의 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가족은 행복해지자!
집으로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우리 가족만의 팸어트무드등 만들기-

집으로 만들기키트를 배송해드려요!
※ 실제 완성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마포구 내 거주하는 4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를 둔 15가족 (★신청순 접수입니다★)

2차 접수기간: 4월 22 (수) ~ 마감 시 까지

참여방법: 하단의 공지사항 참고 *꼭 읽어주세요!*

재미있는 이벤트 후 5월 8일 오후 6시까지!
만족도 조사와 인증샷을 센터에 꼭 보내주세요!

※ 총 3회기로 회기 별 모집합니다!
※ 상기 일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가족사업팀, 070-7467-0745

출처: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모두가족봉사단

★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모두가족봉사단은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월 1~2회 진행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에서 인정되는 자원봉사 인증서도 발급된다. 모두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다양하며 참여 가족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출처: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가족 문화·여가 프로그램

●●● 서울문화포털

문화행사와 문화공간 안내, 우리문화 체험과 문화재 안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서울문화포털 www.culture.go.kr

서울시 문화본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culture.seoul.go.kr

서울시 문화본부 트위터 @culturespace



●●● 패밀리서울

성별, 연령, 생애주기, 가족 유형, 지역구, 정보 유형에 따라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나들이 장소, 행사 및 축제 정보를 제공

패밀리서울 familyseoul.or.kr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특강, 전시 해설 및 투어, 연극부터 진료 서비스까지 공공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 가능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yeyak.seoul.go.kr



미국 >> 오하이오주 Greene County Parks & Trails 가족 여가 프로그램



Greene County Parks & Trails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공원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누구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만 하면 하이킹, 사이클링, 캠핑, 스포츠 등 각종 실외활동을 위한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방학 캠프와 가족의 자연체험 프로그램부터 노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과 피트니스 프로그램까지 가족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www.gcparkstrails.com

호주 >> 퀸즈랜드 주 Recreation Centres



호주 퀸즈랜드의 Recreation Centres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 질을 향상한다. 학교, 지역사회, 아동, 스포츠 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휴일에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 프로그램인 'Family escapes'와 매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인 'Rock climbing'이 있다.

출처: www.qld.gov.au/recreation/activities/areas-facilities/centres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낮은 삶의 질과 문화격차의 문제는 비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가정과 중장년기 부부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부모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생활이 필요하고,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양한 실외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웰빙을 위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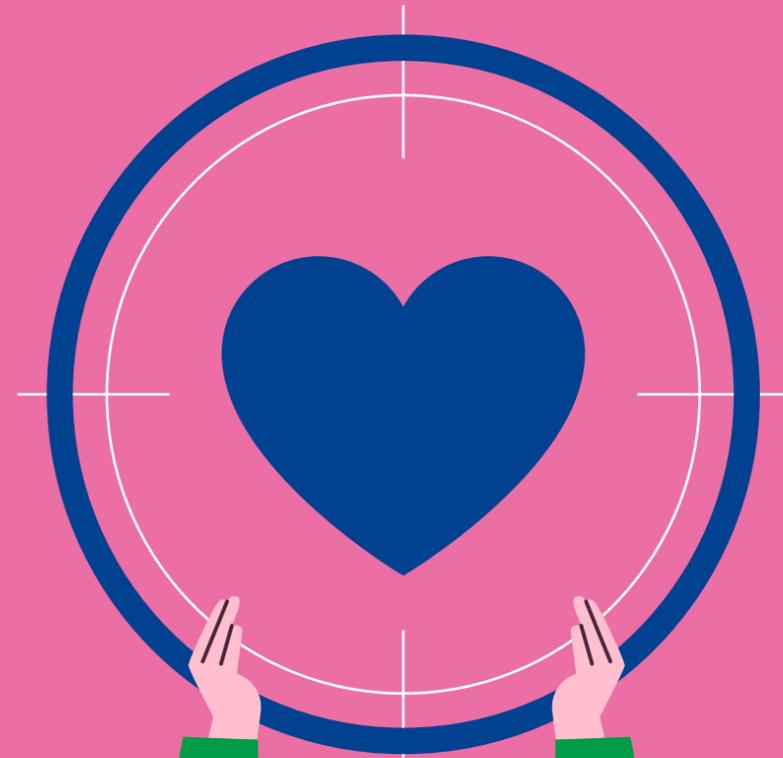
중장년기 부부는 문화생활 참여의 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아동과 노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장년기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다.

일·생활 균형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을 여가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중장년기 부부를 포함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집단이 확대된다면 여가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제반 시설이 발전하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장

행복한 가족관계

서울의 포용



- 1 소통, 가족의 행복 원칙
- 2 다양성, 가족의 힘
- 3 위기 극복, 가족의 레질리언스

3장

행복한 가족관계 서울의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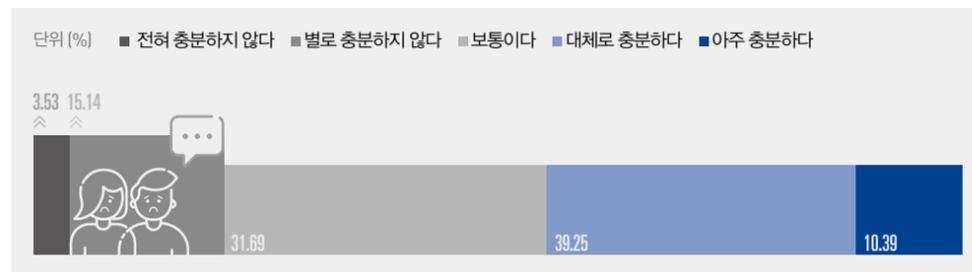


1 소통, 가족의 행복 원칙

✓ 서울시민 약 5명 중 1명은 배우자와 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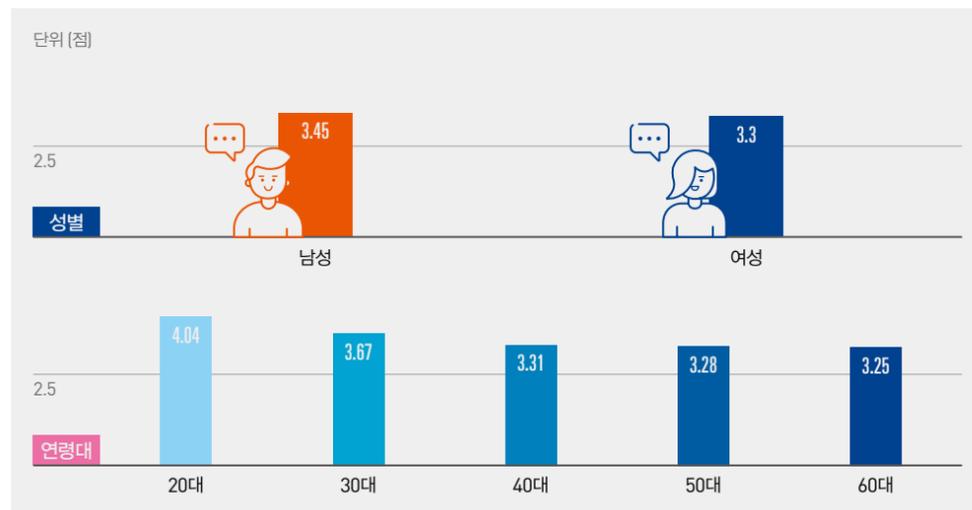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대체로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8.7%였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평균 3.5점, 여자는 평균 3.3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정도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 성별/연령에 따른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정도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하루일과 중 가족과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은 13분입니다.

2017년 초·중·고등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 부모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거나 가족과 활동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3분에 불과했다. 이는 학교생활에 보내는 시간 평균 331분, 공부에 보내는 시간 평균 190분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평일 하루 시간구성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평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전체시간의 1%에 불과합니다.



출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행복생활지수(2019)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Seoul



★ 가족문제 예방 및 가정건강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패밀리 허브'로서 서울시민의 가족문제 예방 및 건강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가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밀리서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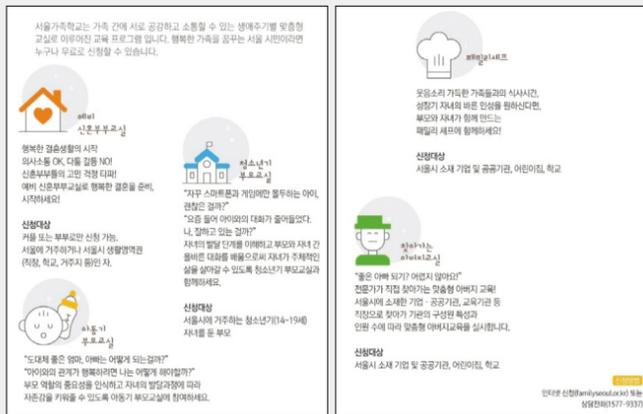
서울가족학교

Seoul



★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서울가족학교는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가족생활에 관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패밀리셰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을 제공하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예비·신혼부부교실

★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행복한 커플 대화법, 재무관리 교육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을 앞두고거나 교제 중인 커플, 신혼부부를 위해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실시한다. 예비·신혼부부교실은 자신과 상대방에 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법이나 재무설계 등 건강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배워 건강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2020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연간일정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자녀 연령 맞춤 부모교육 제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On누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예비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성장주기별 육아정보와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www.mogef.go.kr/kps/main.do)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학부모On누리: 온라인 부모교육



☞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 가족 내 갈등과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개별 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별로 화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을 제공한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이용방법

- 이용 안내 familyseoul.or.kr/consultation-guide
- 면접 상담(지역별)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전화 상담 대표번호 1577-9337
- 온라인 상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센터로 연결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지원

★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혼 관련 의사결정, 이혼 후 협력적인 자녀양육, 부부 의사소통 개선, 이혼 후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책제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원격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현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로 개별 및 가족상담을 실시 중이다. 이러한 가족교육과 가족상담은 주로 대면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대면을 통한 가족교육 및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치구별로 원격으로 온라인 가족교육, 1:1상담과 가족상담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염병 발생 시기가 아니더라도, 일과 가정을 병행함에 따라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가족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프로그램 중 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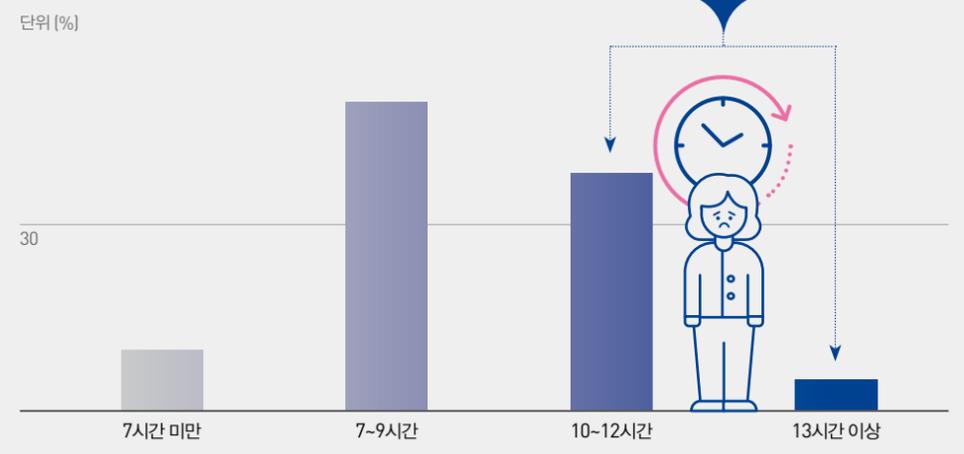
2
다양성,
가족의 힘

✓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서울시에는 301,794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으며, 그 중 19.3%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이다(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의 84.2%는 근로 중이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하였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에 달했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11.7%,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부모의 45.1%,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54.3%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의 경우 하루 평균 2.4시간,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2.8시간, 중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3.1시간에 이른다.

○ 한부모 하루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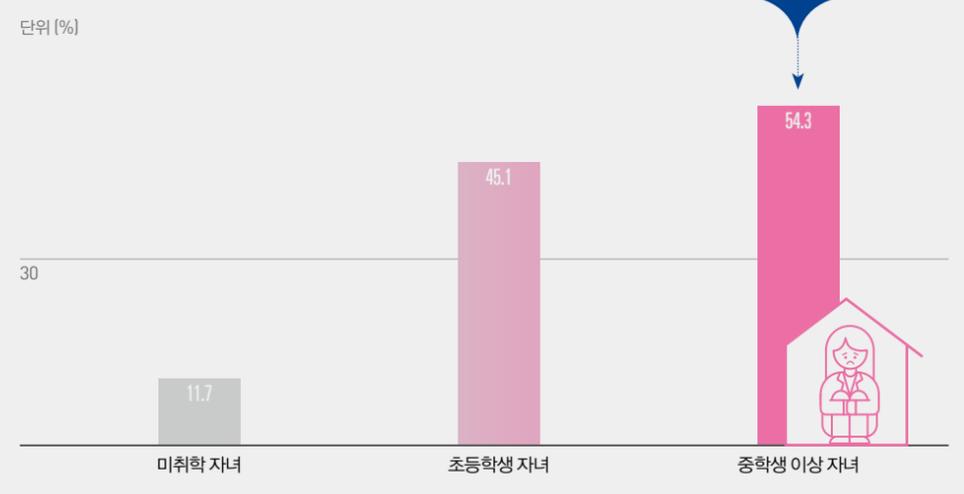
한부모의 41.2%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한부모가족 자녀가 혼자 있는 비율

한부모가족 내 중학생 이상 자녀의 54.3%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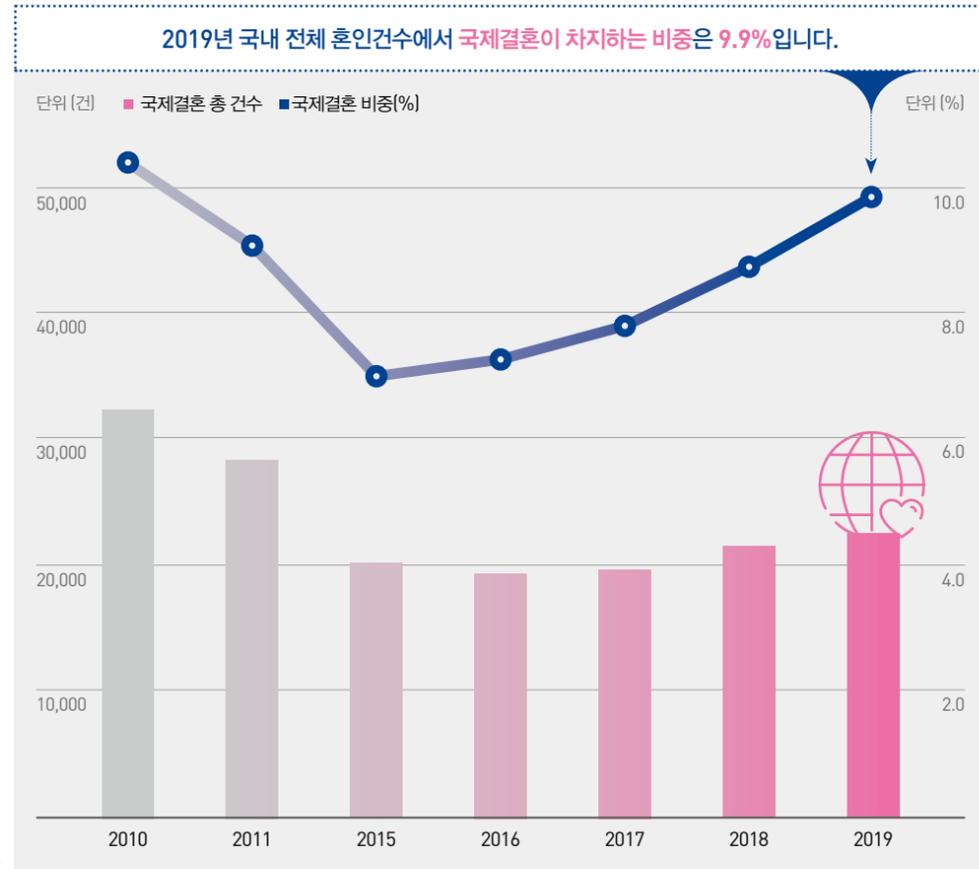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구 출생아 비중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혹은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총 건수는 2011년 29,762건에서 2016년 20,59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20,835건, 2018년 22,698건, 2019년 23,643건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내 전체 혼인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다(통계청, 2019 인구동향조사). 2019년 서울시 국제결혼의 총 건수는 4,770건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결혼의 9.9%에 해당한다. 2018년 서울에서 출생한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는 3,097명이었다(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문화가구 출생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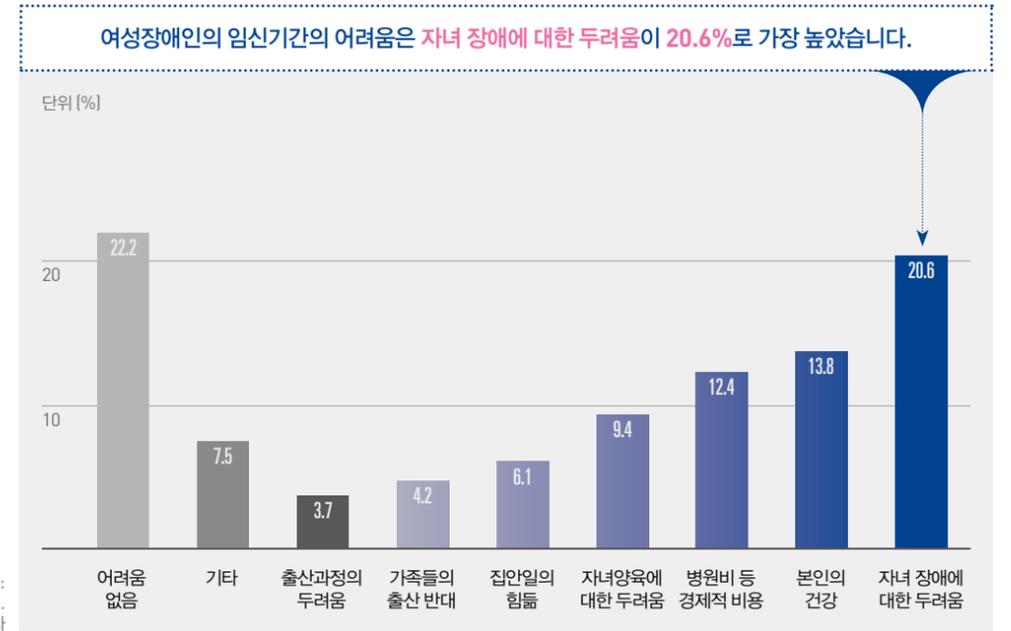
● 국제결혼 수,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 비중의 추이



✓ 임신·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한 장애인의 96.4%는 자녀가 있다. 만 49세 이하의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77.8%가 임신 중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로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1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인(10.1%)', '출산비용 지원(9.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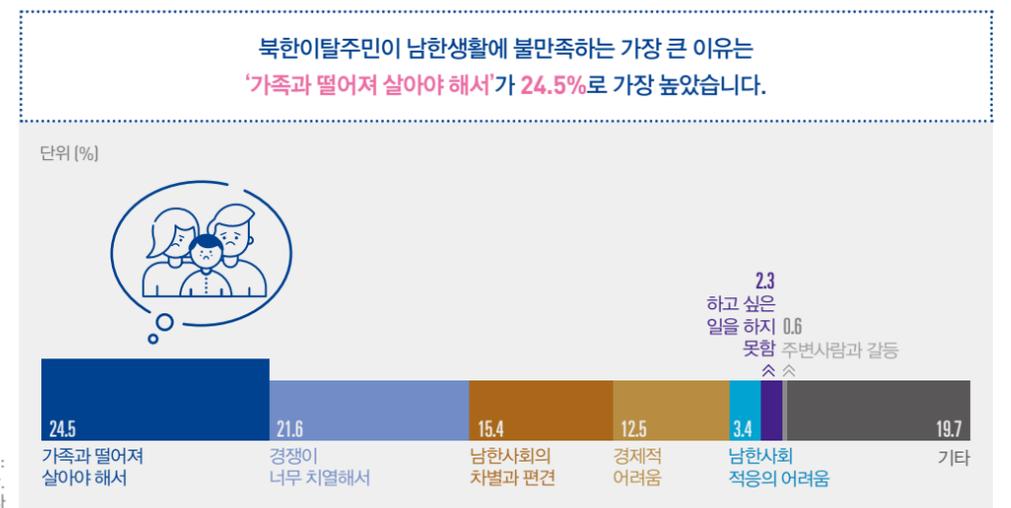
● 여성장애인이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가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24.2%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0명 중 7명이 여성(69.6%)으로, '여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9.6%,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7.9%,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이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1) 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Seoul



★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시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와 상담 제공, 주거지원사업 운영, 부모교육 지원,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등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Seoul

★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일 지원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3인 기준 4,645,000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회(회당 4시간) 청소·세탁·설거지를 해주며, 본인 부담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출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집안일 부담감
자녀와의 시간**

서비스 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다녀 오간 후 즉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청소·세탁·설거지

서비스 시간 월 2회(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 요율

- 서울중위소득 80% 이하 | 회당 8,000원
- 서울중위소득 120% 이하 | 회당 10,000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연간 31회)

신청 방법

- 인터넷 예약일 경우 : harmumo3020@seoul.go.kr
- 팩스 접수 : 070-7469-302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eoulharmumo.or.kr>

지원서비스

- **공통지원서비스** 주민등록합본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이용약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한
-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혼인관계증명서상장
- **소득 증명지원서비스** 소득 증명서(연간 3개월) | 3개월 이상 납부 확인서(연간 3개월)
- **추가지원서비스(대상자별)** 취업지원서 | 취업지원서 | 취업지원서 | 전담서 및 전담확인서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661-30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Seoul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돌보미 선생님이 시설에 찾아가는 기관파견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의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자립생활지원도 한다.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지자체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은 없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선생님이 시설에 방문하여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기관파견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서울시 2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지원됨에 따라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을 경험하는 한부모에게 제공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받기 힘든 양육비, 신청 한 번으로 해결.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 지원

이혼 후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와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을 지원하기도 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며, 긴급지원액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청구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알림공간 | 정보공간 | 소통·참여 | 정보공개 | CSA 소개

양육비 상담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전문상담

다양한 유형(콜센터, 온라인, 방문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신청서 접수 및 배당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한부모·비혼모 가정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꿈틀박스 지원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양육용품 지원

서울시는 한부모 및 비혼모 가족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꿈틀박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2020년 2인가구 기준 2,991,980원) 한부모 가족의 생후 6개월 이내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꿈틀박스'는 유모차, 아기띠, 젖병 세척용품, 물티슈, 천연세제 수유용품 등으로 구성된 필수 육아용품 10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6개월부터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가정에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비혼모를 위한 무료 숙식 제공, 분만 의료 혜택, 자립 지원

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이 있다. 기본생활지원형은 비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분만 의료 혜택이 있고, 입소기간은 1년이다. 공동생활지원형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비혼모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비혼모가 이용할 수 있다. 2년의 입소기간 동안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향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Seoul



★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한울타리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외국인지원기관과 한국어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 정보 등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상담,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생활을 위한 방문교육을 제공하며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교육, 가족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인 다누리(www.liveinkorea.kr)는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1대 1 맞춤 방문학습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15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경우, 전문 선생님이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한글·국어·수학·영어 등 기초학습 과목 중 하나를 1:1로 가르치는 방문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중도입국자녀를 중점적으로 지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지원, 전일제 교육 지원,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3) 장애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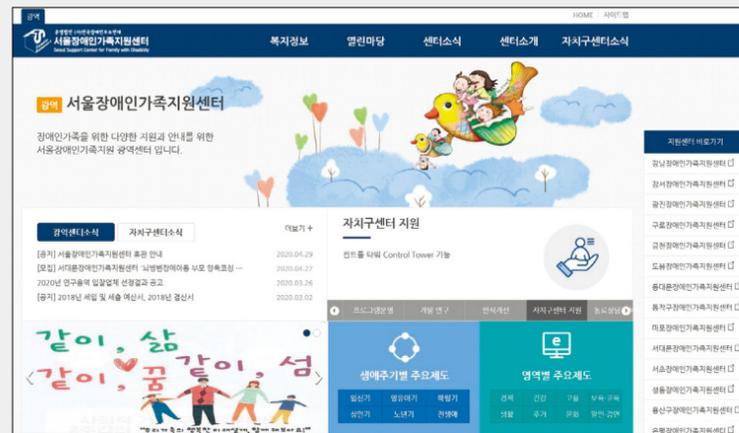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다양한 지원 제공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식 개선, 자치구 센터 지원, 동료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 광역센터 1개소와 17개소의 자치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장애인흡혈퍼'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양육 지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혹은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육아와 양육을 돕는 서비스이다. 전문 자격을 갖춘 흡혈퍼가 가정에 방문하여 병원 동행, 산후조리, 정서 지원 등의 임신·출산 서비스나, 영·유아기 자녀양육지원, 양육정보 제공, 학습지원 등의 양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룸통장' 지원

Seoul



장애인복지관 운영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 지원센터

Seoul



★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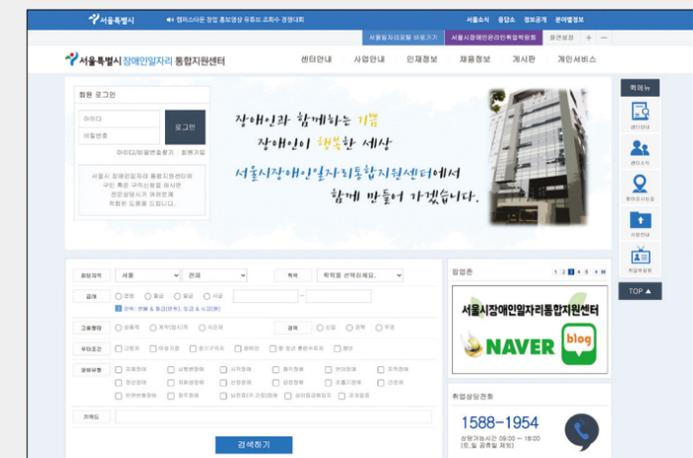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증장애인은 이룸통장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이룸통장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2020년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된 센터는 52개소이다. 또한, 서울시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역에 거점복지관을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자치구와 그 자치구 내의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업체 개발,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자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가족

하나센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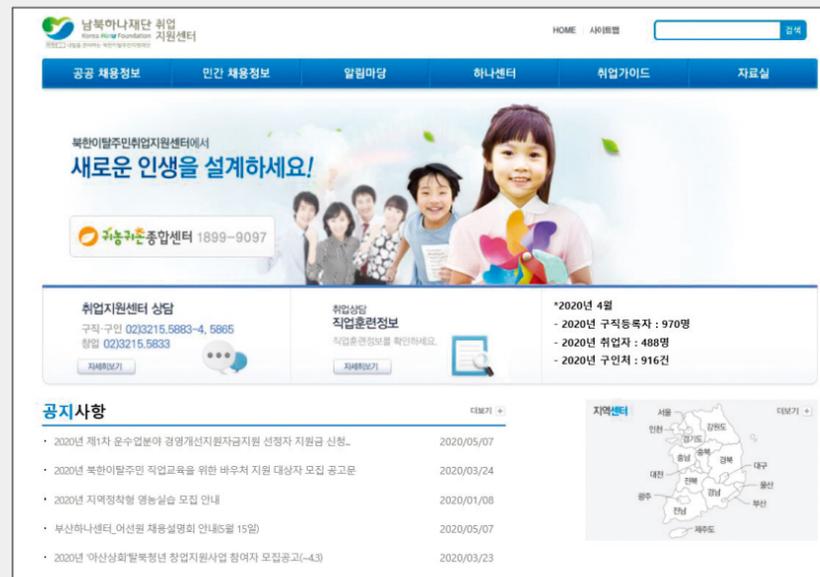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통일부는 2009년부터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를 지정해 초기 집중교육과 취업, 상담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상담사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와 1개의 심리안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는 4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상담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구직·구인 등록과 취업 알선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절차 및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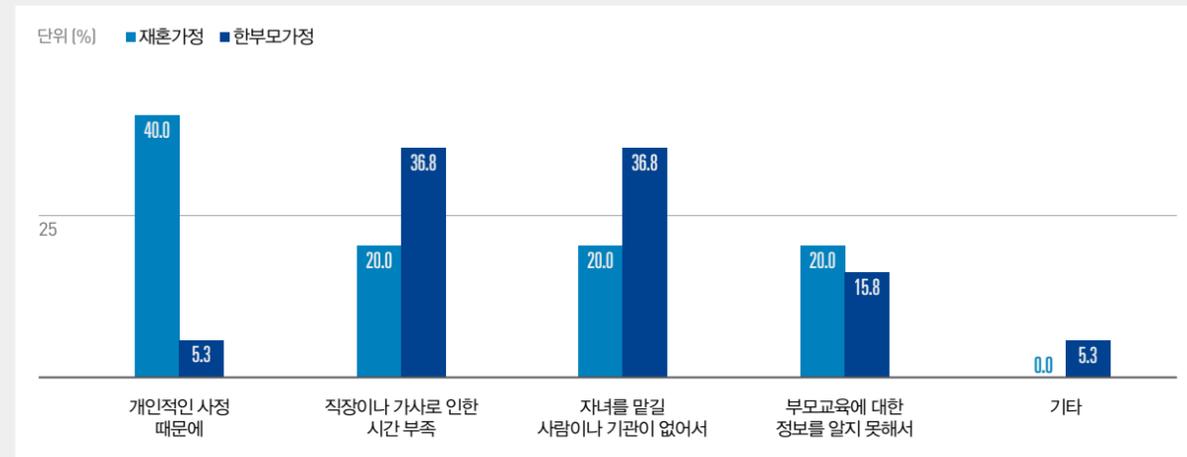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으로 미디어를 통해 본 다양한 가족 이해, 가족 차별 경험에 대한 토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직무 중심 교육 등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 강사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생각, 느낌과 의미 등을 질문하는 '다양한 가족 이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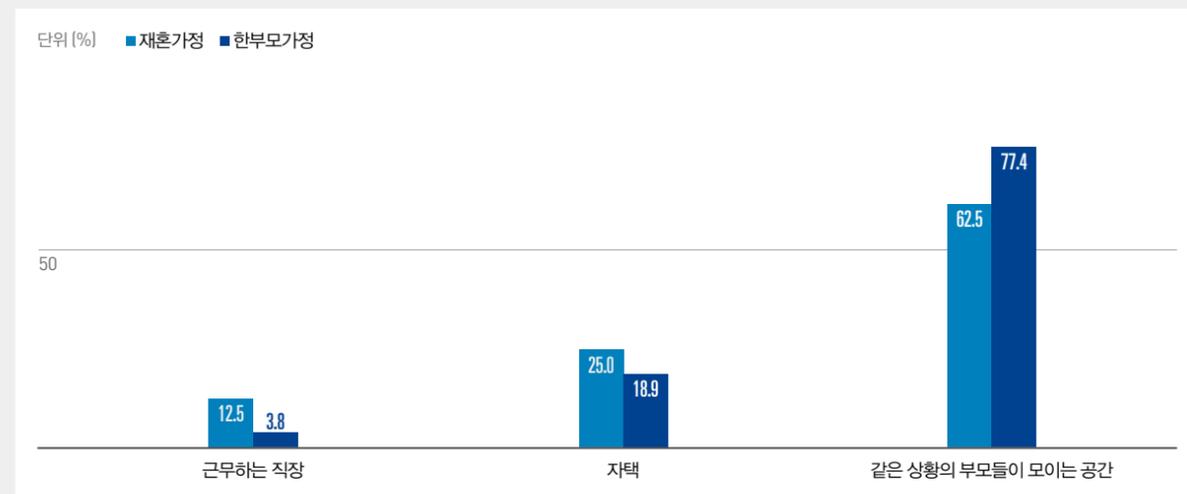


최은영(2020)은 육아정책포럼 보고서에서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부모와 재혼 가정이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육아정책포럼, 64, 7-14).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양부모가정에서 양친 부모가 하는 역할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나, 다른 가정의 형태에 비해 가족원 간 관계와 역할이 다소 복잡한 재혼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구의 특성과 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 및 재혼가정 부모교육의 방법과 시간의 적절성을 요구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각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받는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부모·자녀 상담과 가구 방문 등을 부모교육과 병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의 마련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부모교육 미참여 이유



● 부모교육 선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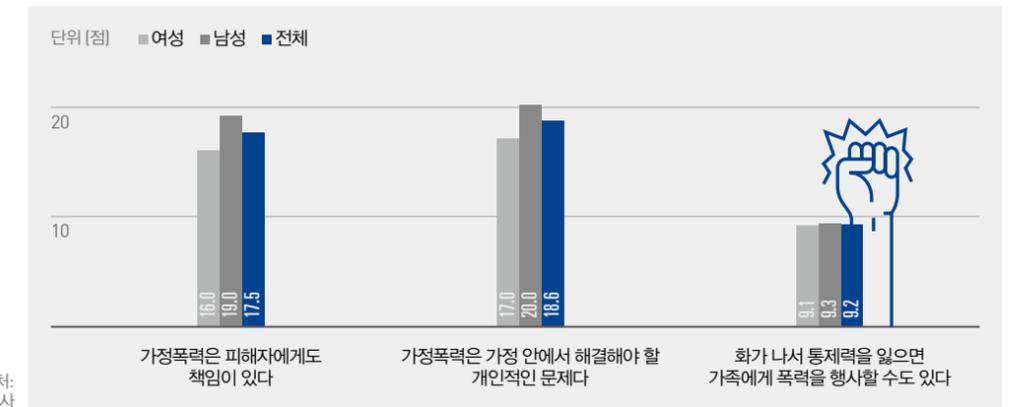


3 위기 극복, 가족의 레질리언스

✓ 집안일이 아닌 범죄, 가정폭력

서울시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및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는 진술에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5, 18.6%이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의 범죄행위를 사적인 집안일로 간주하는 왜곡된 인식을 반영하므로 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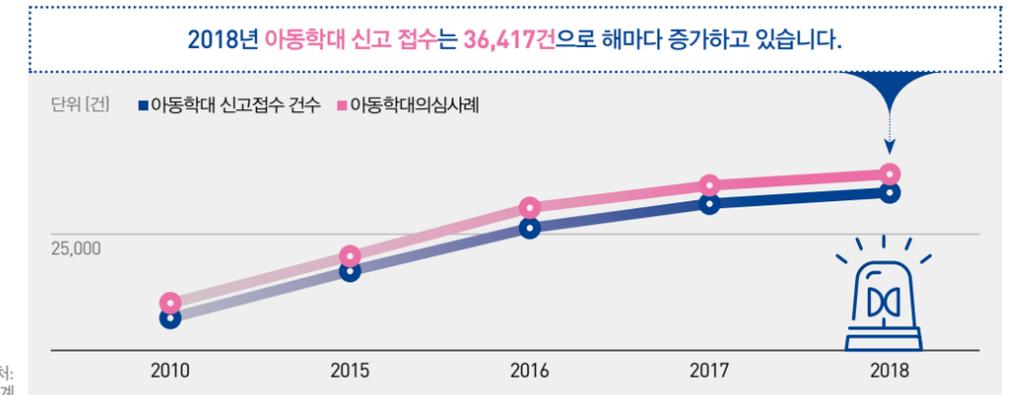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 숨겨지기 쉬운 그림자, 아동 및 노인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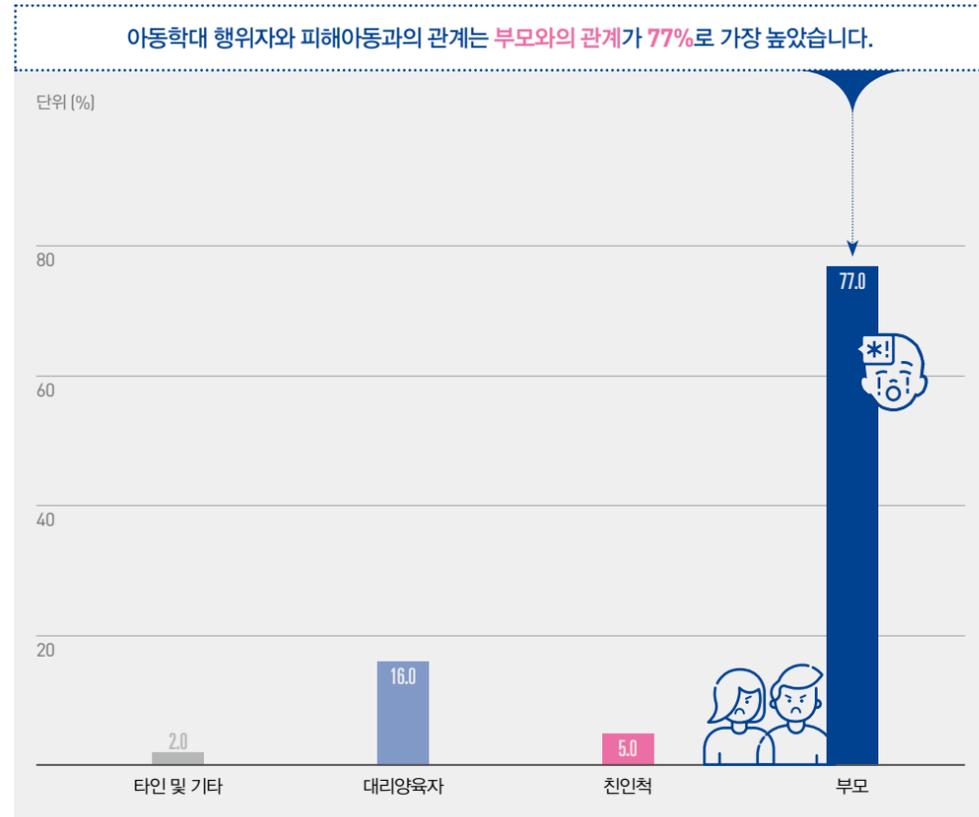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건수가 36,417건을 기록했고,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3,532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92.1%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유형별로는 중복지학대가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23.8%), 신체학대(14.0%), 방임(10.6%)의 순이었다.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39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10.1%에 해당한다.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서울의 경우 1.64%로, 전국 평균인 2.9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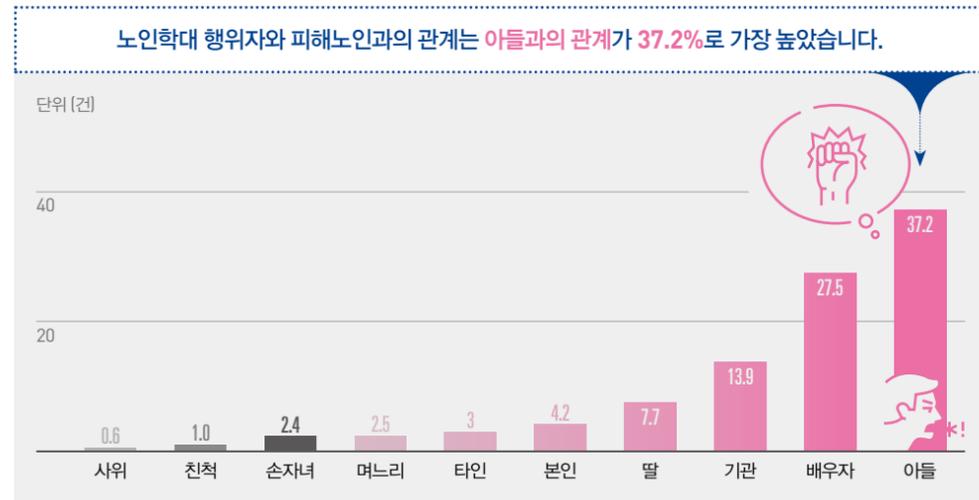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학대현황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중복학대가 76.9%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7.4%), 정서적 학대(7.0%), 방임(4.8%) 순으로 발생했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27.5%, 기관이 13.9%, 딸이 7.7%의 순으로 많았다. 2018년 서울시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618건으로, 이 중 노인학대 의심사례는 522건이며 신고접수 건수의 32.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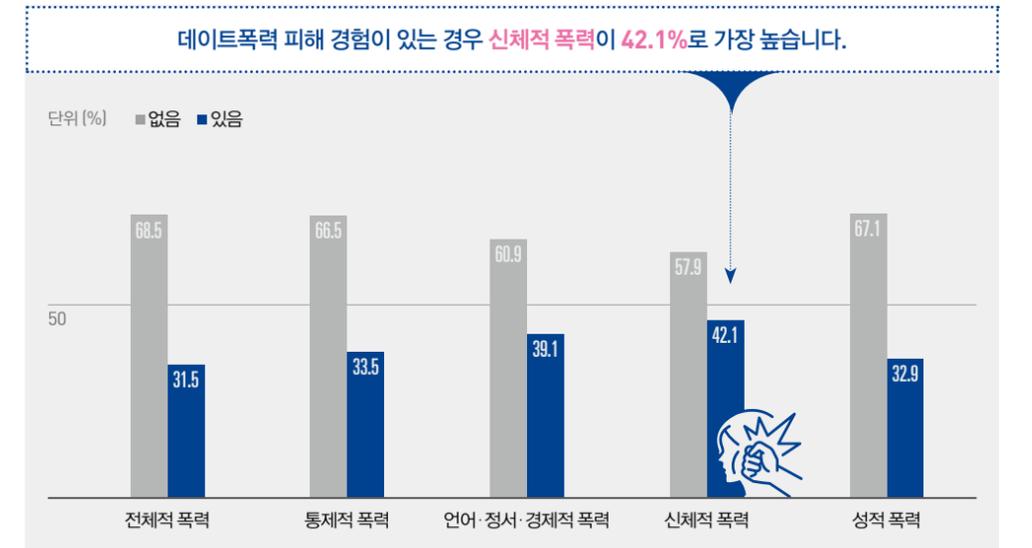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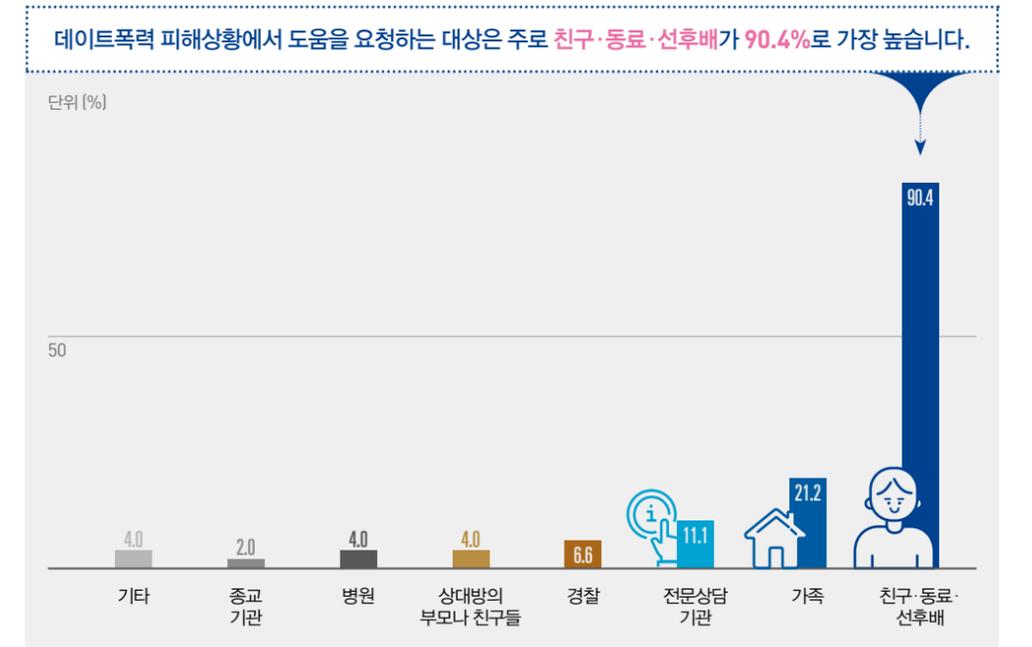
✓ 친밀한 관계에서의 위험,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욕설, 무시하는 말, 성적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드는 말, 일방적인 스킨십 강요, 협박, 스토킹, 행동의 감시와 제한 등을 포함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2016년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성인여성 중 61.6%가 데이트관계에서 폭력 피해(통제, 언어·정서·경제적, 신체적, 성적) 경험이 있었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이후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8.5%에 달하였으며, 데이트폭력 피해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공적 체계보다 주로 친구·동료·선후배(90.4%)나 가족(21.2%)이었다.

●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시 도움요청 대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을 위한 긴급 심리·정서 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 등의 충격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긴급 심리·정서 지원(지지 리더 파견),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가족역량증진 지원(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자조모임, 법률, 의료, 복지서비스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비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욕구와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 학습·정서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한 생활도움 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정보제공 등으로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한다. 서비스 참여대상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가족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이다.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이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여성을 위한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을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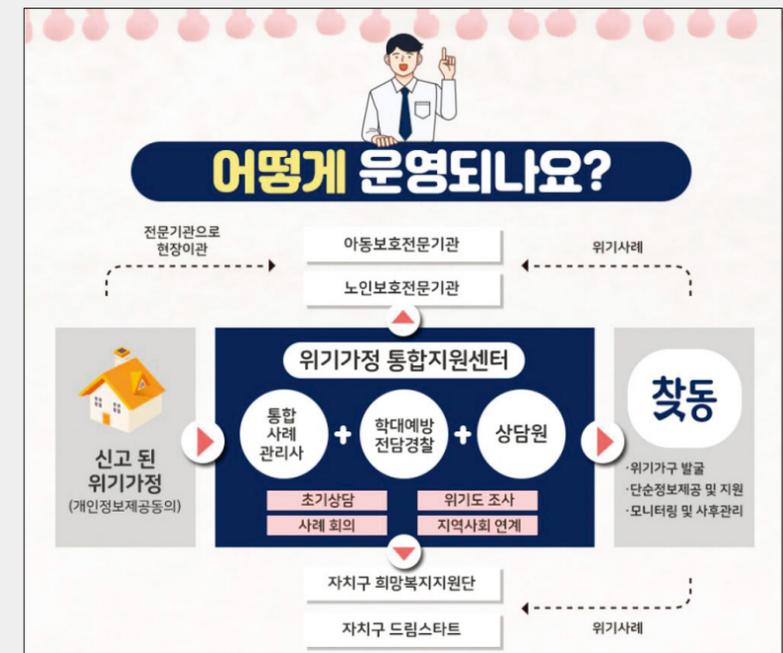
★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특별 보호를 제공하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

서울시는 경찰청과의 협력 사업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112를 통해 신고된 위기가정에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장기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 등 각종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예측한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의 확인 및 위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의 수립, 평가, 운영 지원을 실시하는 총괄 기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7월에 출범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정책 수행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촘촘한 아동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9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그룹홈 운영지원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보호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보호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서울북부, 서울남부, 서울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서울에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7월에 실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미정(2020)에 따르면, UN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운동가 보고와 각종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금지령 및 기타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우자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스페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양상이 보고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스트레스가 젠더를 기반으로 한 가정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외부로 피하거나 경찰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외출제한 명령은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인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코로나19와 가정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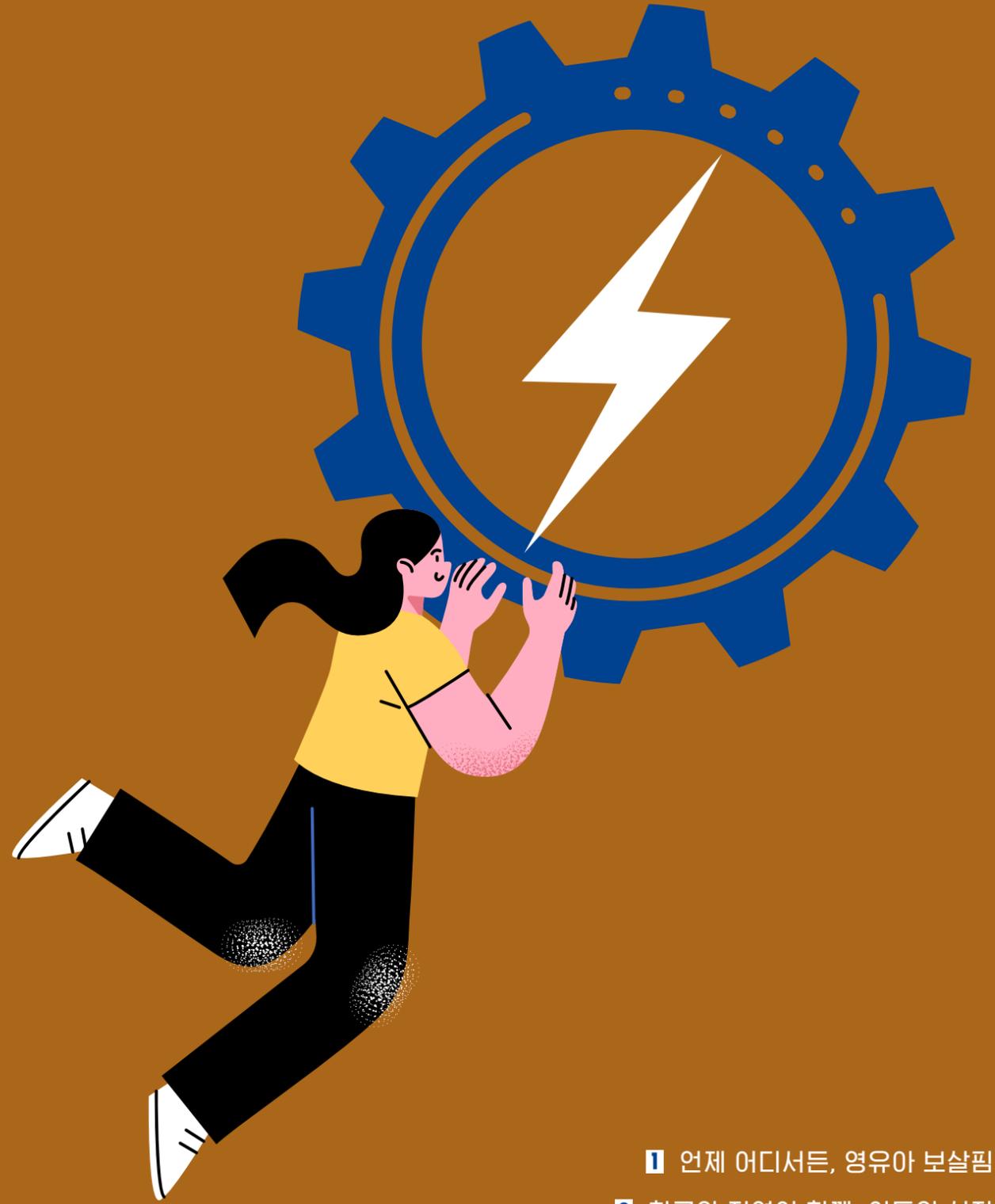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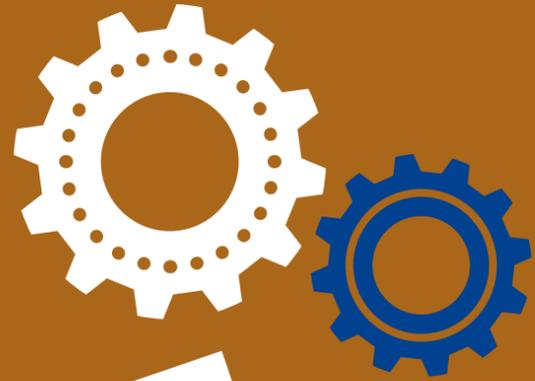
'정책과 관점 모두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송란희(2020)에 의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폭력의 증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통계가 없으나, 가정폭력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전체 상담에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26%에서 2~3월 40%로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더 나아가 향후 재난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제오복(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상담과 화상상담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상담실에 방문하여 노트북 등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 아동 놀이방을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다. 프랑스와 같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국에 가정폭력 신고 버튼을 설치하거나, 가해자가 외출에 동행 시 암호를 사용하여 알리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 등도 한국 실정에 맞추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이미정(2020.07.16).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 자료집, 3-27.
 송란희(2020.07.16).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정책과 관점 모두의 부재.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 자료집, 31-33.
 제오복(2020.07.16). 코로나19와 가정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 자료집, 35-36.

4장



함께 하는 돌봄

서울의 혁신

- 1 언제 어디서든, 영유아 보살핌
- 2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동의 성장
- 3 공동체가 같이, 어르신들의 일상

4장

함께 하는 돌봄 서울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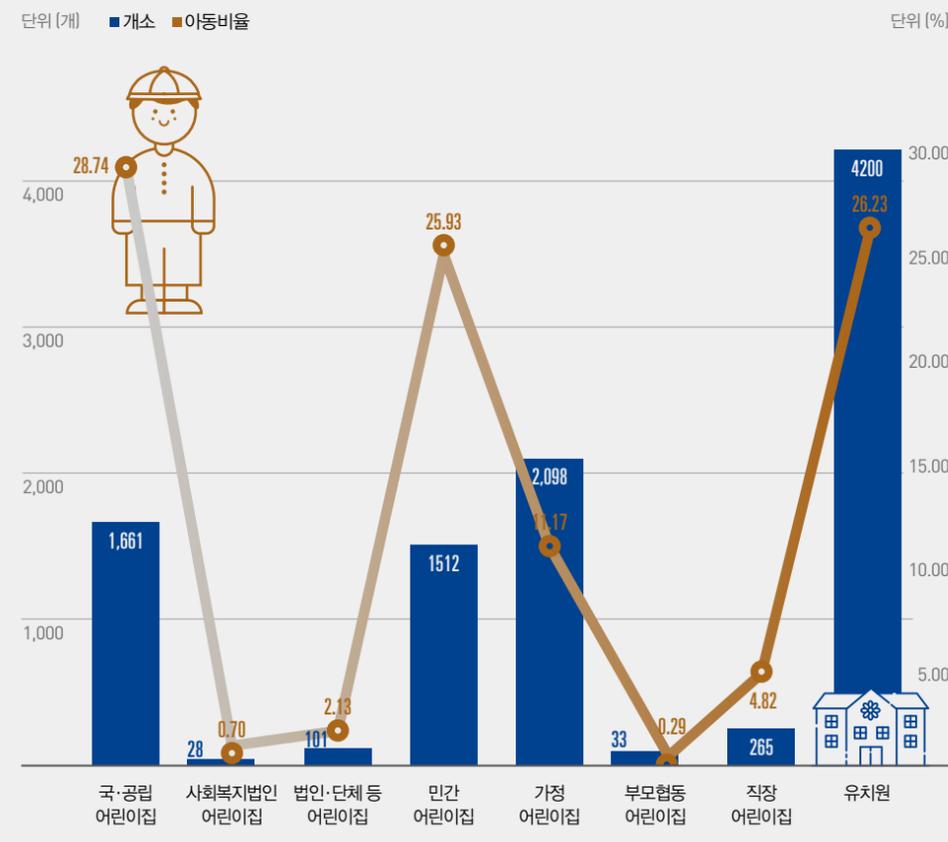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영유아 보살핌

✓ 2019년 서울시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2019년 서울시에는 어린이집 5,698개, 유치원 4,200개가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2,098개, 민간어린이집 1,661개, 직장어린이집 265개, 기타(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162개 순으로 많다. 2019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중 국공립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28.7%로 가장 많아졌고, 이어서 민간 25.9%, 가정 11.2%, 직장어린이집 4.8% 순이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아동비율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28.74%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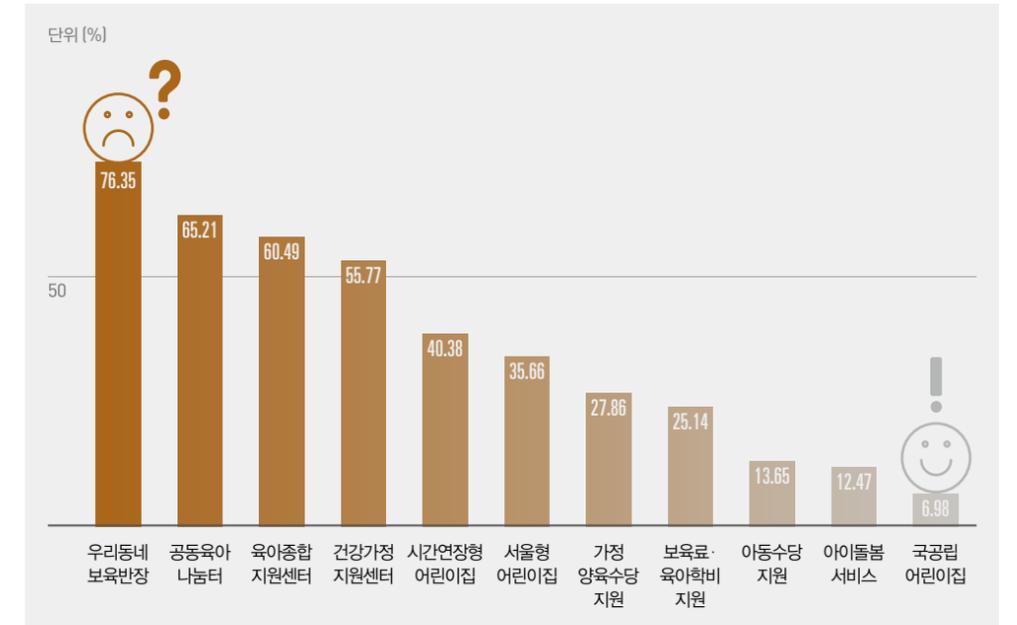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 다양하지만 인지도 차이가 큰 영유아돌봄 지원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서울시민은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들어보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우리동네 보육반장,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들어본 적 없는 비율이 더 높아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영유아돌봄 지원별 인지도 응답 비율



» 보육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Seoul



★ 우리동네 보육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보육포털서비스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찾기, 보육서비스 예약, 보육정책, 우리동네 육아정보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한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예약도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보육예약 서비스 종류

휴일보육

-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 ▶ 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07:30~19:30
- ▶ 금액 비정기적 외부 이용아동은 시간제 보육료 적용
- ▶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온라인예약 및 해당어린이집 전화

24시간 어린이집

-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 ▶ 시간 주간(07:30~19:30)과 야간(19:30~익일 07:30) 모두 제공
- ▶ 금액 정부지원단가 150%까지 정부지원, 200% 내 자부담
- ▶ 방법 해당어린이집 전화상담 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예약

365열린 어린이집

- ▶ 대상 6개월~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누구나
- ▶ 시간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07:30~24:00
- ▶ 금액 1시간당 3,000원/1일 50,000원(식대 별도: 1식 1,000원)
- ▶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온라인예약 또는 당일 방문 접수

시간제보육

- ▶ 대상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6개월~36개월 미만)
- ▶ 시간 월~금, 09:00~18:00
- ▶ 금액 시간당 자부담 1,000원(정부지원 3,000원)
- ▶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온라인예약 또는 당일 전화 신청

거점형시간 연장보육

- ▶ 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0세~만5세
- ▶ 시간 평일 16:00~24:00(19:30분 이후까지 이용해야 시간연장 이용신청 가능)
- ▶ 서비스내용 담당자가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인솔해서 24시까지 돌봄
- ▶ 금액 무료(월 60시간 이내, 유치원생 19:30 이전 및 맞춤형 원아는 자부담)
- ▶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예약 → 이용 → 하원

서울시의 특별한 보육사업



공인된 품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 기준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받아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유아숲 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활동으로 아이다움을 구현

원장과 교사, 영유아, 부모가 함께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이다. 자연경험, 놀이체험을 강조한다.



출처: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육 정보

보육뉴스, 우리동네 어린이집, 보육자료실, 보육관련 사이트, 온라인놀이방



보육 소통방

보육신문고 상담실, 칭찬방, 보육교사 온라인상담방, 보육교사 이야기방



보육료와 유아학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학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보육료)과 유치원(유아학비) 이용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육료(2020년 기준)

- ▶ 자격구분 영유아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 지원비율 100%
-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 반	470,000원		705,000원
만1세 반	414,000원		621,000원
만2세 반	343,000원		514,500원
만3세 반	240,000원		360,000원
만4세 반			
만5세 반			

유아학비(2020년 기준)

- ▶ 구분 만3~5세
- ▶ 학비 국공립·유치원 월 60,000원 / 사립 유치원 월 240,000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매월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에 10~2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000원	200,000원
24개월 미만	150,000원	
36개월 미만	240,000원	
48개월 미만		100,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출처: 복지포털 홈페이지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 지급

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하였다.

○ 아동수당

- 홈페이지 www.ihappy.or.kr
- 신청방법
 -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온라인 부모가 복지포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포털' 앱으로 신청
 -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시)
- 아이돌봄쿠폰(1회 한정)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 1인당 40만원의 금액(상품권 등)을 지급
 - > 방법 ① 전자포인트 지급(국민/아이행복카드) ② 지역전자화폐 ③ 종이상품권 중 한가지 선택



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 마을 중심 돌봄 서비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만 3개월~12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을 돌봐준다. 아이돌보미는 서류심사, 면접심사에서 합격하고 80시간의 이론과 20시간의 현장실습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한다.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홈페이지 care.idolbom.go.kr
- 이용대상 만 3개월~12세 이하(시간제), 만 3개월~36개월 이하(영아 종일제)
- 신청방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준비(국민행복카드) → 이용자 등록 → 신청서 작성

서비스 종류별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활동 시에는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의 돌봄 활동 업무에 더해 아동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의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예외적으로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젓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동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재가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일반형 활동 내용에 준함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이용요금(시간당 일반형 9,650원, 종합형 12,550원) 시간제 일반형 기준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9,650원)			
		A형('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11.1.1 이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46만원)	8,203원(85%)	1,447원(15%)	7,238원(75%)	2,412원(25%)
나형	120%이하 (553.6만원)	5,308원(55%)	4,342원(45%)	1,930원(20%)	7,720원(80%)
다형	150%이하 (692만원)	1,448원(15%)	8,202원(85%)	1,448원(15%)	8,202원(85%)
라형	150%초과	-	9,650원	-	9,650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함께 돌보며 양육 부담 완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자녀들이 또래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가족품앗이는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 하는 활동이다.

○ 공동육아나눔터

-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누구나
- **이용시간** 평일 10:00~18:00(일부 지역 평일 야간, 주말 운영)
- **신청방법**
 - > 방문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www.familynet.or.kr)
 - > 전화문의 1577-9937
- ▶ **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송파구(왼쪽)와 중랑구(오른쪽)의 공동육아나눔터 출처: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열린육아방

- Seoul
-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
- **이용대상**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
 - **이용시간** 평일 10:00~18:00
 - **운영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비스 내용** 공간제공, 육아정보 공유, 놀이활동 지원,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온·오프라인 임신, 출산, 육아 정보제공

오프라인: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 관리하고 가정양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부모교육 및 상담,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온라인:
임신, 출산, 육아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보는 육아정보

서울시는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통해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서울케어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의 돌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Seoul

- **홈페이지** seoul-agi.seoul.go.kr/smom
- **서비스 및 정보 내용**
 - 서비스정보: 모자보건 서비스, 임신준비, 난임, 임신, 출산·육아
 - 커뮤니티: 우리동네 커뮤니티, 직장맘지원센터
 - 교육 강좌 안내 및 신청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 서울케어 우리동네키움포털

Seoul

- **홈페이지** icare.seoul.go.kr/icare/index.do
- **서비스 및 정보 내용**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사업
 - 우리동네키움센터(예약)
 - 우리동네보육반장
 - 아이돌봄 지도 서비스, 우리키움참여단 등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Seoul

★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만능반장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 경험이 있는 선배 엄마가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육아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지원을 한다. 자치구별로 4~7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이용방법

- > 전화 국번없이 120-3번(평일 09:00~18:00)
- > 인터넷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서비스내용

- > 육아 자원 수집 및 관리: 우리 동네의 생생한 인적·물적자원 및 어린이집 정보 제공
- > 육아상담 및 육아 고민 해결: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 및 애로사항 상담
- >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시기별 필요한 정보 제공
- > 가정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한부모·다문화·새터민 가정 등에 맞춤 정보 제공
- > 부모 자조모임 지원: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끼리 모임 활성화
- > 보육반상회 지원: 동네 육아 현안을 함께 모여 고민하고 이야기

우리동네보육반장 서비스

우리동네보육반장은 다양한 육아지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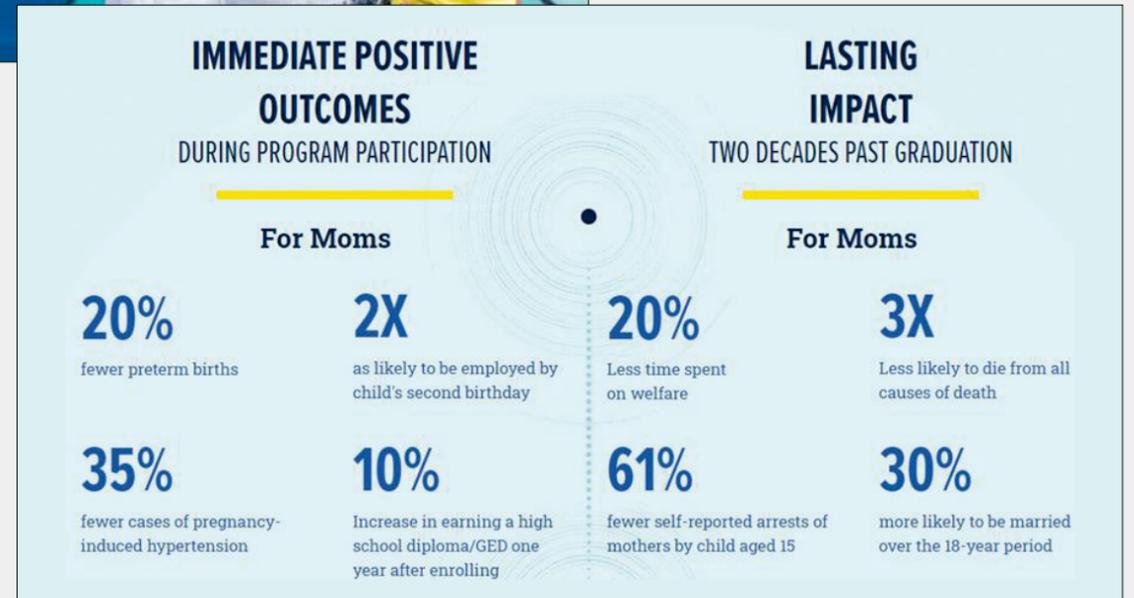
- 우리동네보육반장은?
 - 육아 경험이 있는 선배 엄마
 - 육아에 대해 무엇이든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 엄마

서울시 자치구별로 4~7명의 보육반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총 140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



우리동네 보육반장 서비스 /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미국 >> 재가간호부모교육(Nurse-Family Partnership: Helping First-Time Parents Succeed)



영유아의 건강, 안전, 발달 과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을 전문가로부터 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는 미국 정책 사례이다. Nurse-Family Partnership: Helping First-Time Parents Succeed 프로그램은 첫 자녀를 임신하거나 자녀가 2세 이하인 가족들의 집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모-자녀의 안정적 애착 형성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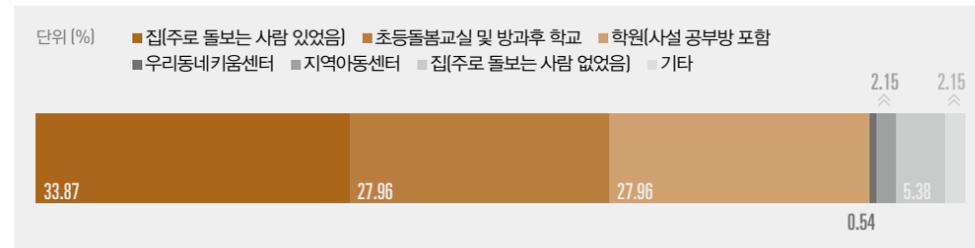
출처: www.nursefamilypartnership.org

2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동의 성장

✓ 집, 학교, 학원에 한정된 방과후 돌봄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서울시 초등학생의 반 이상이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28%)나 학원(28%)을 이용한다. 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 있는 초등학생도 5.4%가 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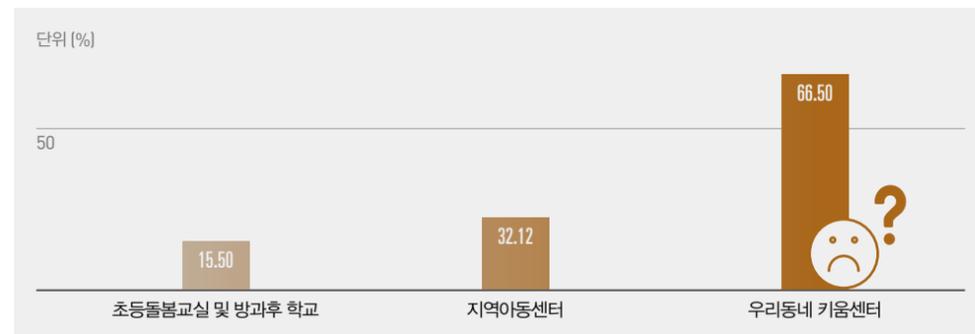
● 서울시 초등학생 주중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



✓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별로 다른 인지도와 만족도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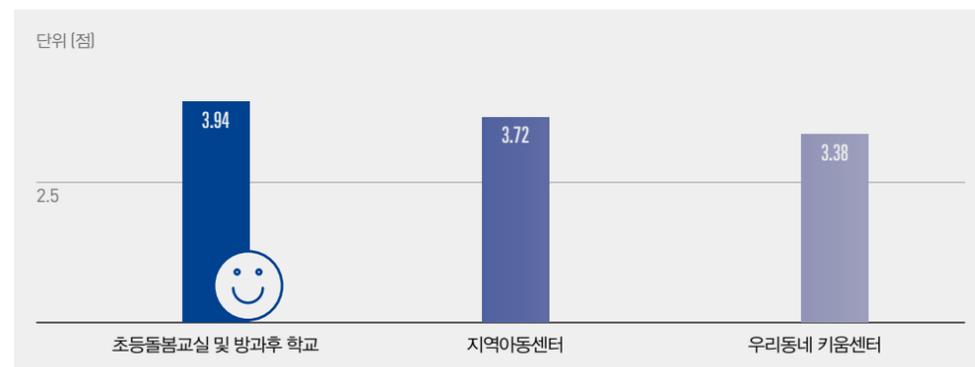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는 인지도가 높으며,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3.9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비율은 32.1%이며,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만족도(3.7점)는 중간 수준이다. 최근 도입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직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많고(67%), 만족도(3.4점)는 상대적으로 낮다.

●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기관 인지도(들어본 적 없음 비율)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기관 만족도



출처: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 정규수업 이후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제공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 후, 방학 중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침, 오후, 방과 후 학교 연계형, 저녁, 방학 중 돌봄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 초등돌봄교실

- **이용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 동일 시간대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복 이용 안 됨
- **신청방법**
 - > **절차**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접수
 - > **신청기관**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부서 / 학교교무실
 - > **문의처**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초등돌봄교실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돌봄, 교육 및 일부 급·간식비

운영 유형 및 시간

대상	운영시간			
	수업전	13:00~17:00	17:00~	09:00~13:00
초등학교 1~3학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돌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운영)	방학 중 오전 돌봄
초등학교 4~6학년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보호, 생활관리

지역아동센터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한다.

○ 지역아동센터

- **이용대상** 초등학교생 및 중학생
- **이용시간** 학기 중 14:00~19:00 / 방학 중 12:00~17:00
- **이용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 담당부서

서비스 내용

보호	-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6대안전의무교육
교육	-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습, 숙제 등 교과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문화	-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체험활동 및 참여활동을 통해 공동체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촉진 - 체험과 참여활동, 관람, 견학, 캠프, 놀이활동 등
정서지원	-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해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 - 아동의 심리, 정서적 지지, 부모, 가족상담 등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지역사회연계	-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서비스를 한다. 서울에서는 24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 **홈페이지** www.youth.go.kr/yaca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우선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가정 등
- **이용시간** 방과 후 ~ 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이용방법**
> 신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홈페이지 접속(youth.go.kr/yaca/index.do) → 해당지역 운영기관 검색 → 운영기관에 문의하기
> 전화문의 02-330-2831~4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메일링 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학습지원	전문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 지원
체험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예술체험, 과학체험, 리더십 개발 활동 등)
특별지원	청소년캠프, 보호자 교육, 초창인사 특별강의 등
자기개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활동(자체 활동, 동아리 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Seoul



★ 방과 후 학원 대신 양질의 돌봄 제공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등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공백 시간에 초등학생을 돌보는 공간이다. 정기적으로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종일돌봄과 단시간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이 있고, 공휴일 등에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도 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83곳이 운영 중이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 홈페이지 icare.seoul.go.kr/icare/index.do
- 이용대상 만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이용시간 학기 중 14:00~19:00 / 방학 중 09:00~18:00
- 이용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범위 내 상이
- 이용방법 icare.seoul.go.kr/icare/user/careResve/BD_selectChilCareResveList.do
키움센터 예약정보 입력 → 예약정보 알림톡 발송 안내
- 서비스 내용 상시돌봄(종일돌봄, 시간제 돌봄), 일시돌봄



출처: 우리동네키움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친구랑

Seoul



★ 학교 밖 청소년의 휴식과 학습, 상담, 진로탐색 공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이 휴식하면서 생애설계에 맞춘 학습, 상담,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공간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구랑

- 홈페이지 friend.sen.go.kr/main.do
- 이용대상 만9~24세 학교 밖(학업중단) 청소년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수·금요일 야간 18:00~21:00) /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서비스 내용
 - > 학업지원 학업상담, 대학생과 1:1 학습멘토링, 재입학·편입학 컨설팅, 대학 진학 안내
 - > 진로지원 진로상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역 직업교육 학교 및 기관 연계, 진로탐색 캠프
 - > 정서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정신과 전문의 특별상담, 부모교육, 꿈지락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족의 교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원격교육이 장기화되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원격교육을 가정 내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통신비 감면, 통신장비 구입비 보조, 온라인교육 바우처 지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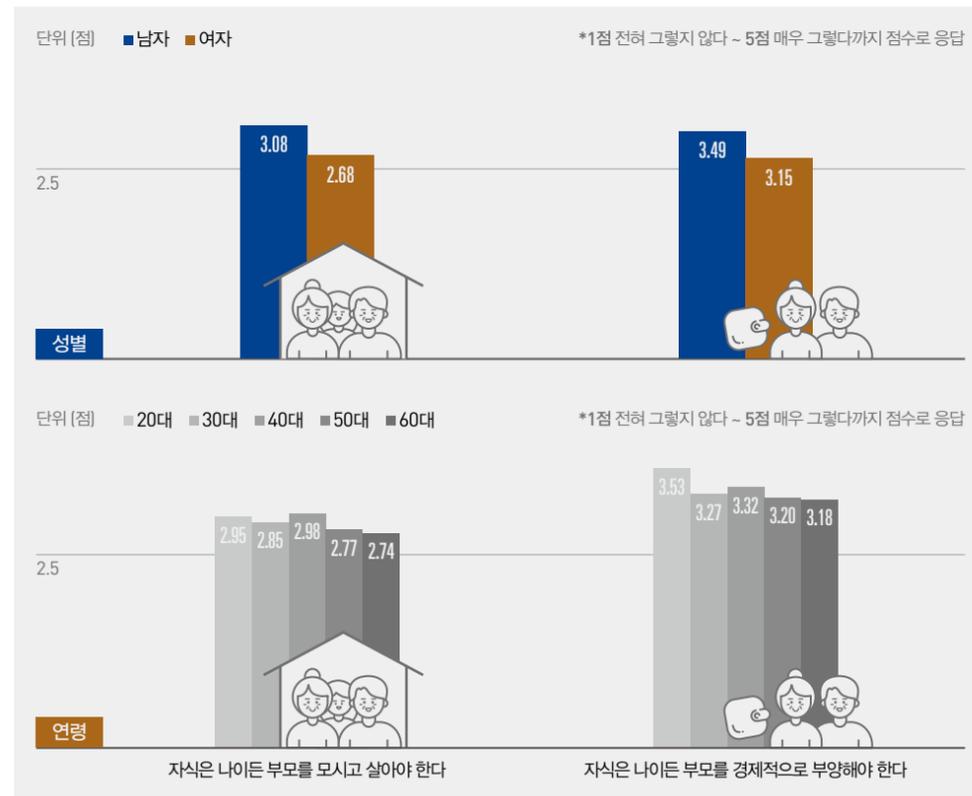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비대면 원격교육, 식사, 생활시간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융통성 있게 재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공동체가 같이, 어른의 일상

✓ 성인들의 부모부양 태도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직접 동거보다는 경제적 부양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노부모부양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50~60대보다 오히려 노부모부양 책임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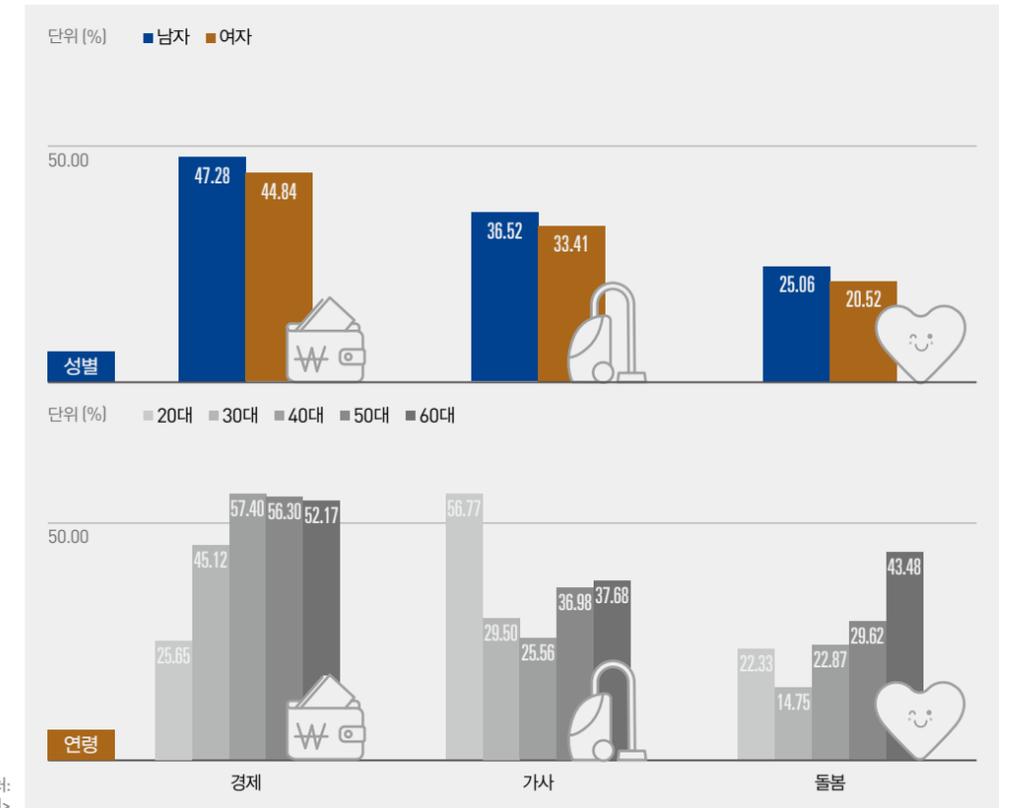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의 부모부양 인식



✓ 노부모에게 드리는 경제, 가사, 돌봄 도움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나이든 부모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비율이 경제, 가사, 돌봄 순으로 높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만 차이는 적다. 그보다는 연령대별 차이가 큰데,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비율은 20~40대까지 높아지다가 50대 이후에 낮아진다. 가사 도움을 드리는 비율은 20대에 가장 높았다가 30~50대에 낮아지고 60대에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이다. 돌봄 도움을 드리는 비율은 30대에 가장 낮고, 연령대에 따라 높아진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가정에서 노인부양 역할을 맡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 부모님에게 드리는 경제적, 가사, 돌봄 도움: 성·연령대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 이용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 인정, 이용 절차
 - ▶ 신청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인정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등급판정 1(중증)~5등급(경증), 인지기원등급(치매환자)
 - ▶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이용
 - ▶ 상담문의 1577-1000
- 서비스 내용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 복지용구 급여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 구입·대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 원

본인부담금 부담비율(감경대상자)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		

출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0 New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20년)

장기요양보험인정자가 아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예방적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문화여가, 평생교육, 체험여행), 정신건강분야(우울, 인지활동)
 -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서비스 이용
 - ▶ 수행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내 운영시설
 - ▶ 제공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 이용자 부담금 무료
- 서비스 신청
 -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노인과 가족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원스톱 서비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기진단, 등록, 치료, 돌봄, 상담, 보호, 자조모임, 쉼터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치매가족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치매노인보호 바우처를 지급하는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 치매노인과 가족 지원

- 홈페이지 ansim.nid.or.kr/main/main.aspx
- 이용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 치매환자 지원 조기검진, 치료비, 돌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이내 기관에서 치매노인보호 바우처 지급(주민센터에 신청)
 - ▶ 치매공공후견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
 - ▶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출처: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 신청, 이용, 문의
 - ▶ 치매상담콜센터 1588-9988
 - ▶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02-3431-7200, seoul.nid.or.kr/home/main/main.aspx
 - ▶ 자치구별 보건소에 설치·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 ansim.nid.or.kr/main/main.aspx

돌봄SOS센터

Seoul

★ 좋은 돌봄에 의료를 더해 돌봄부담을 제로(zero)로

기존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를 만 50세 이상 중장년까지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 돌봄SOS센터 사업

- 이용대상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
 - ▶ 주요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2020년 7월부터 만50세~64세 중장년 가구까지 확대)
- 서비스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수가 지원 대상자152만원, 자부담은 이용해도 없음
- 서비스 기관 각 동주민센터
- 서비스 지역(2020년 7월 기준)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2021년 25개 자치구로 확대 예정)
- 서비스 내용 재가일시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정보상담서비스
 - ▶ 돌봄 어려움에 도움 갑작스럽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초점
 - ▶ 절차 신청접수 → 긴급출동 및 방문 확인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점검 및 종결

어르신 및 장애인 중심 지원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전액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부담)

누군가 잠깐 돌봐주었으면!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	일시 재가 서비스, 단기 시설 서비스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아갈 수 있을텐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의 욕구	안부 확인 서비스, 건강 지원 서비스
누군가 잠깐 돌봐주었으면!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	이동 지원 서비스, 주거 편의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

모든 시민 이용 가능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나!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	정보 상담 서비스
---	-----------

출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미국·프랑스·EU 혁신적 돌봄 경제 활성화 추진

미국 »
민간주도형 플랫폼
Aging 2.0 네트워크

실버산업을 헬스케어라는 범위에서 헬스, 웰니스,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고령친화산업 성장의 잠재력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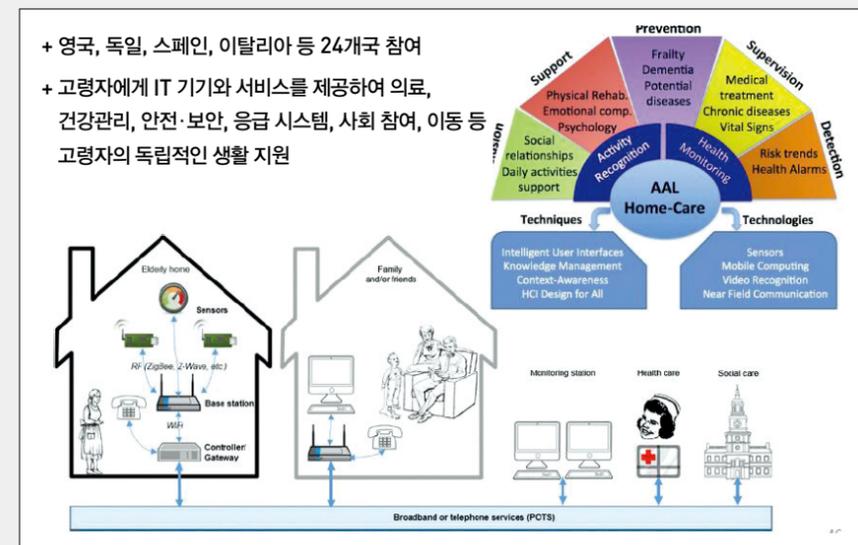
프랑스 »
치매노인 돌봄로봇

돌봄로봇을 활용해 치매노인 인지기능 프로그램, 복약관리, 증상 모니터링, 응급알림 등을 한다.



EU »
Ambient(Active) Assisted Living(AAL) project

주택 내 IT기기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돌봄, 의료, 건강관리, 안전, 사회참여, 이동 등 복합적인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출처: 유재인 외(2019). 돌봄경제 육성전략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장



든든한 1인 생활

서울의 지원

- 1 관계성, 안심의 첫걸음
- 2 주거안심, 생활의 편안함
- 3 경제안정, 맞춤형 지원

5장

든든한 1인생활 서울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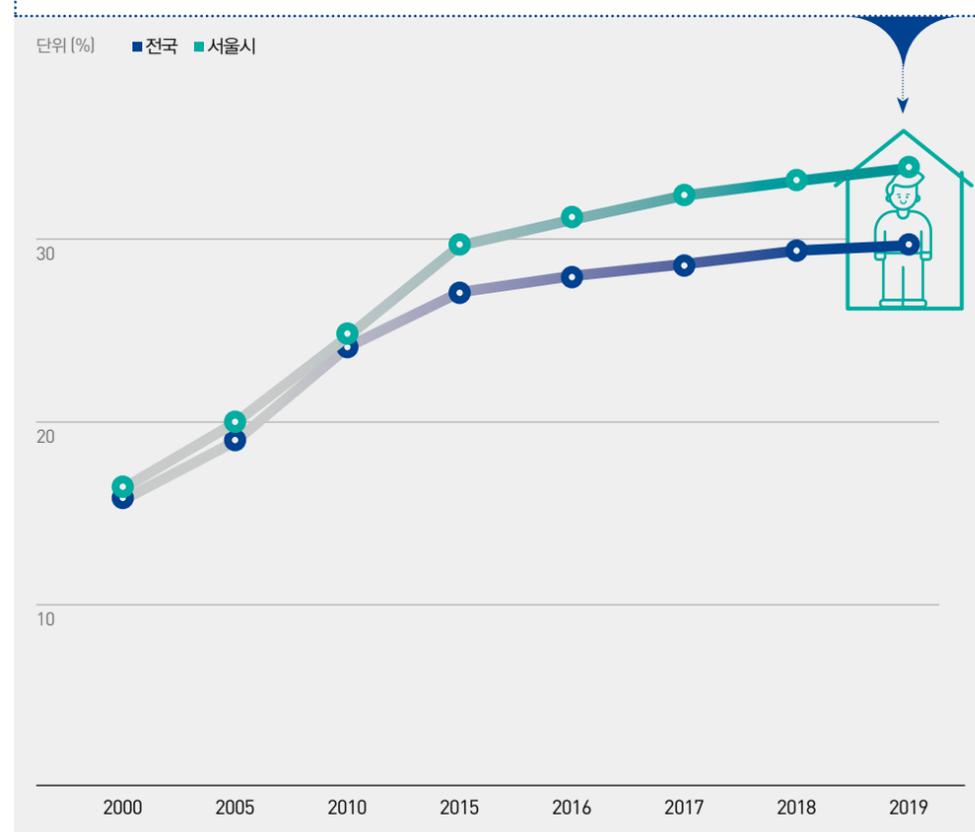
1 관계성, 안심의 첫걸음

✓ 다양한 1인가구

서울시에는 총 1,299,787가구의 1인가구가 있으며,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4%에 해당한다(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서울시 1인가구는 20대가 2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40대 순이다. 성별로 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여성은 52.9%로 절반을 약간 넘는다. 1인가구의 혼인상태도 다양하다(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서울시 1인가구 중 비혼은 59.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는 각각 18.3%, 13.8%였다. 1인가구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8.1%였다.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

2019년 서울시의 1인가구는 총 1,299,787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4%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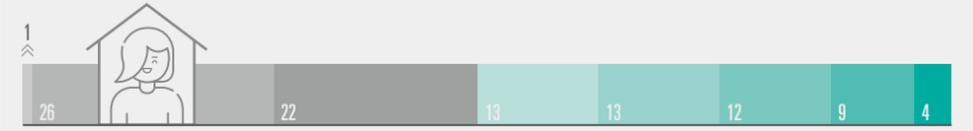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 서울시 1인가구 연령분포

1인가구 연령분포는 20대가 26.0%로 가장 높습니다.

단위 (%) ■ 10대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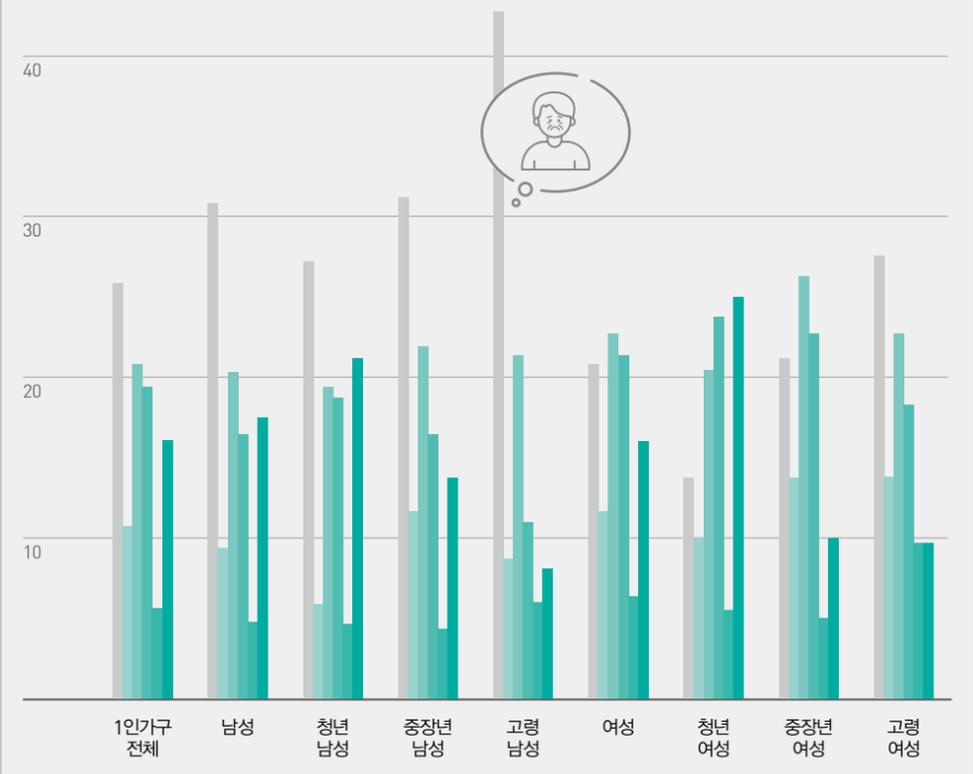
✓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1인가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5.8%였다. 대화 상대가 없는 사회적 고립은 청년보다 중장년 층과 고령층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다. 고민 상담 상대가 있다고 한 경우는 주로 친구나 이웃(65.1%)이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울시 1인가구의 고민상담 상대 인원수

1인가구 중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25.8%로 고령남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단위 (%)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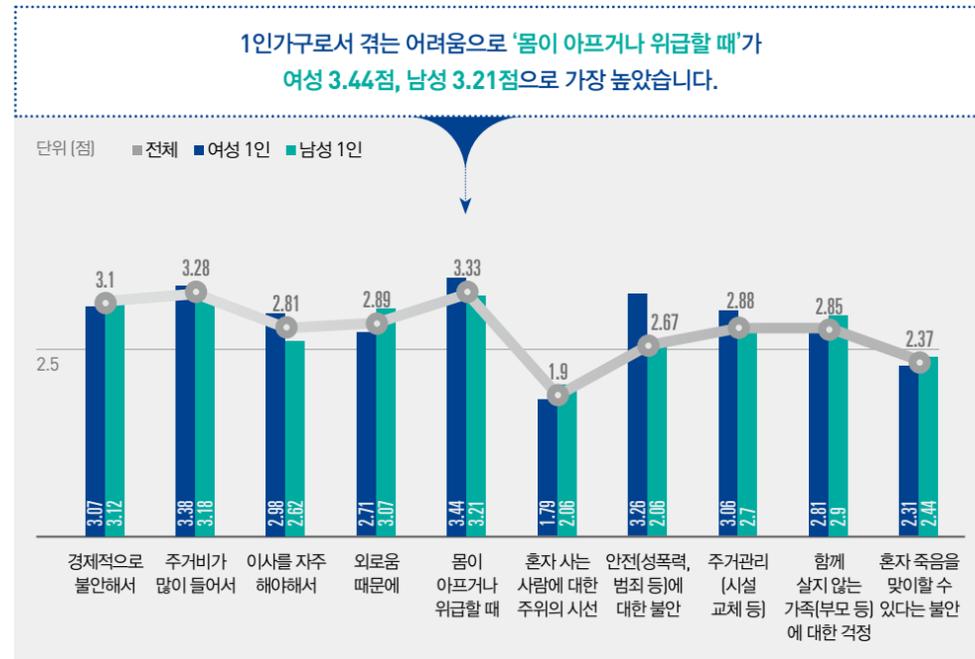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1인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66명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들다'가 3.3점,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가 3.3점,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가 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더 힘들다고 보고했으며, 안전, 주거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1인가구 프로그램



★ 1인가구의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망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1인가구 소셜다이닝-따뻍따뻍'(동대문구), '청춘다락'과 '골드싱글라이프'(서대문구), '1인가구끼리 렛츠끼릿'(양천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길어진 자가격리 생활 중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청년1인가구를 위한 라이브 방송 0n'(관악구), 반려식물을 분양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싱글가든'(서초구) 프로그램도 자치구 별로 진행되었다.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Seoul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이웃의 관심과 관계망 형성으로 극복

고독사의 위험에 놓인 사회적 고립 가구가 이웃의 관심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주민 중 '이웃살피미'를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위험가구를 지원한다. 2019년 기준 23개 자치구, 80개 동, 59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약 1,4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1인가구 고립유형에 따른 지원 방향

자발적 관계상실 고립형 관심(주민 민감성과 관찰)	주민 중심 활동, 장기적인 관심 필요, 관계 맺는 지역분위기 조성, 간접적인 생존확인 안전망
비자발적 생애사건 고립형 관리(위험군 확인과 관리)	지속관리사례로 확인, 정기적 방문과 안부 확인, 식사제공과 주민 관계망 유지, 구체적인 욕구와 문제 확인, 사례관리기관의 협업
만성질환형 지원(위기지원)	식사제공, 응급연락망 가동(위험상황예방), 긴급위기관리 지원, 정신건강전문가, 방문의사 협력, 활동주민 우울관리 필요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가이드라인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Seoul

★ 1인가구가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

서울시는 지역사회 내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운동·여가·건강 등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가구를 위한 안전, 돌봄, 생활편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19년 3월에 개소하였다.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는 1인가구가 휴식, 운동과 문화생활 등을 편안히 이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출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출처: STAY.G 홈페이지

1인가구 생활정보지

★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생활정보 안내서

1인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안전, 경제, 여가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소책자이다. 성별, 연령별, 생활영역별 맞춤형 종합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소개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시는 2019년 10월 6일 '서울시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울 자치구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주거안심, 생활의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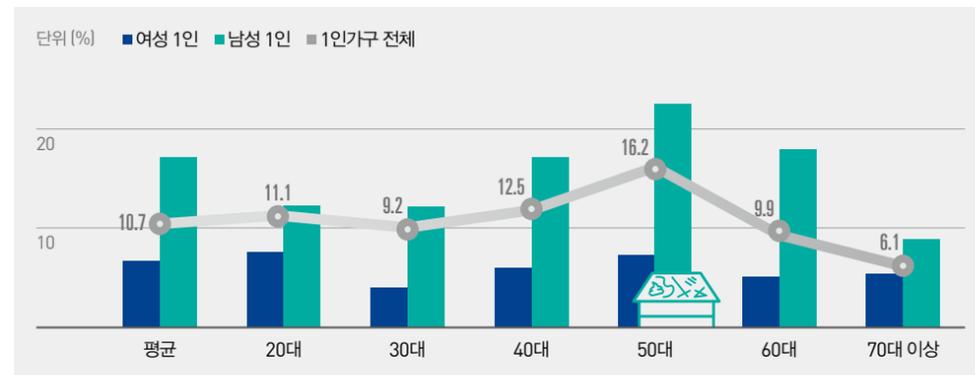
✓ 주거지가 불안한 1인가구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2018년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18.1%의 1인가구가, 22.5%의 여성 1인가구가 주거지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의 1인가구 응답자 중 남성은 8.9%만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비해 여성은 46.5%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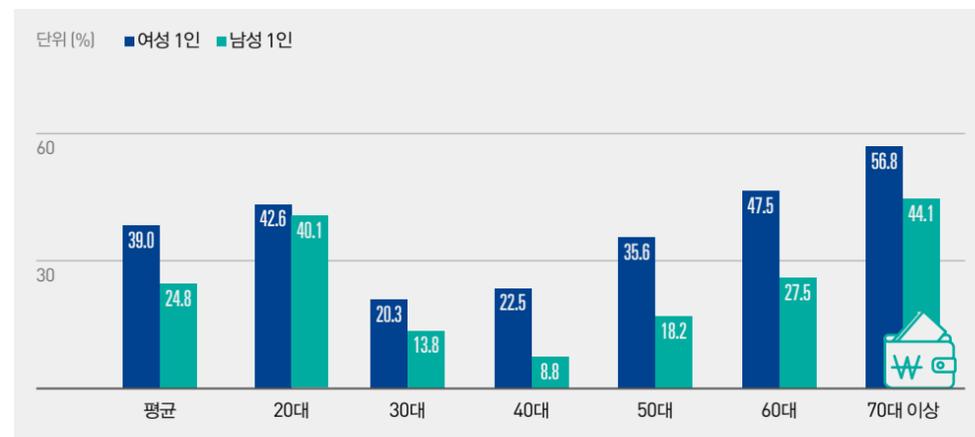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2018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에서는 5.7%인데 비해 1인가구에서는 10.7%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50대 남성 1인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과부담 문제도 심각한데, 1인가구의 30.8%가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 청년층(20대: 41.0%)과 노년층(70대 이상: 53.5%)의 주거비 과부담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더 높았다(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국토정책 Brief No.749

●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국토정책 Brief No.749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 서울시 안심이 Seoul

나 홀로 귀갓길이 두려울 때 안심이 앱을 켜고, 위기상황이 오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경찰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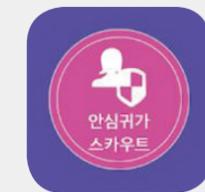
안드로이드



아이폰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안심이 앱이나 자치구 상황실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청하면 노란 근무 복장 스카우트가 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구청상황실 (02-860-2525), 120 다산콜센터 전화(02-120) 또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을 활용한 24시간 여성 대피소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서울시 편의점 중 약 12%인 938여 곳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여성안심택배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거나 보내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령 서비스만 있었는데, 2020년부터 택배를 보내는 서비스까지 도입되었다.



SS존 (Safe Singles Zone) Seoul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SS존 지역으로 선정하여 여성 1인가구에 '여성안심 홈' 4종 세트(디지털 비디오팅,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경찰서와 구청 CCTV 관제센터까지 3자 통화가 가능한 무선 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맞춤형 주거정책

① 임대주택 공급 (구체적인 내용은 QR코드 참조)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유형별 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공급면적 및 임대기간
<p>행복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45㎡ 이하 · 임대기간: 6년(젊은층)-20년(고령자 등)
<p>역세권 2030 청년주택</p> <p>Seo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 · 임대보증금 최대 무이자로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 최장 6년(신혼부부는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최장 10년)
<p>희망하우징</p> <p>Seo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11~33㎡ 이하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기타 임대주택 공급 정보

국민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사회주택

② 주거비 지원

종류	대상 및 내용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 2.3%-2.7% 용자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3,500만원(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기타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③ 주거공유

유형	대상	내용
한지붕 세대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 · 서울시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 · 신청 어르신에게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 공사 비용 지원
공동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 공동체 주택 플랫폼: soco.seoul.go.kr/coHouse/index.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 ·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 간 소통, 교류를 통해 생활 문제를 해결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공주택 임차인 · 협동조합 가입자 	문화예술 활동, 공동의 육아,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주택

주거복지지원센터

Seoul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도와주며,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 주거비, 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와 25개 지구구에 지역 주거복지지원센터가 각 1개씩 있다.

서울주거포털

Seoul

★ 청년에게 주거정책 정보 및 입주가능 주택찾기 서비스 제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housing.seoul.kr)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매물의 현재 상태와 임대 계약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통장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절차/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필수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1599-0001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nhuf.molit.go.kr/) 1566-9009

스웨덴 » 대상 맞춤형 공동주택



스웨덴은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의 공동주택은 직장 접근성이 좋고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운동, 문화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동아리가 형성되어 운동,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을 쌓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 존재한다.



노년층을 위한 공동주택은 독립과 공유가 공존하는 구조이다. 개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타인과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개인적인 방과 주방, 욕실이 있지만 공공 공간인 세탁실, 운동실, 휴식 공간, 작업실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프랑스 » 사회주거수당



프랑스 청년들이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청년 가구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청년층 중에서 수입이 없는 대학생 1인 청년 가구는 주거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아파트, 대학 기숙사, 민간 운영 기숙사 등의 주거에 거주할 경우 주거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1인가구를 위한 여러 복지 및 주거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정책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 중장년층 1인가구의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파르고, 특히 주거최저기준 미달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50대 중년 남성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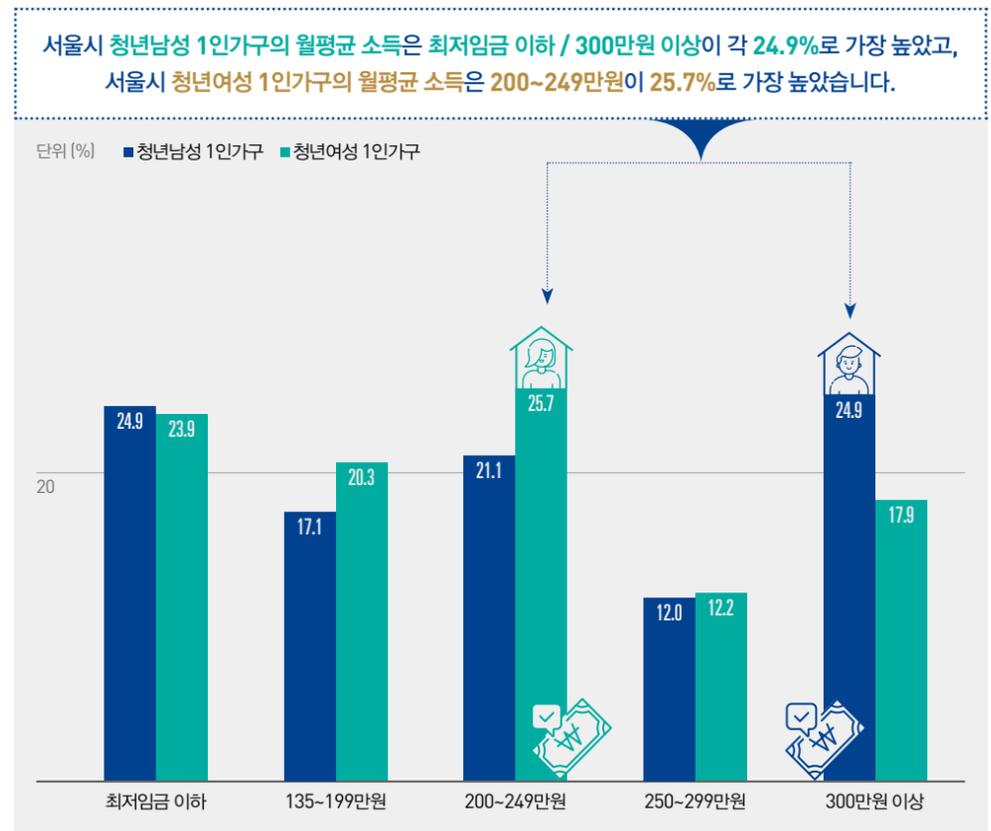
최근 1인가구의 주거와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공유주택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거형태가 중장년층의 욕구에 알맞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년 1인가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경제안정, 맞춤형 지원

✓ 1인가구의 불안정한 경제상태

2019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다(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8%로 높지만, 상용직 비중은 63.2%에 불과하며, 1인가구 중 31.6%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수준이다. 고령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지만, 청년 남성 1인가구의 24.9%, 청년 여성 1인가구의 23.9% 역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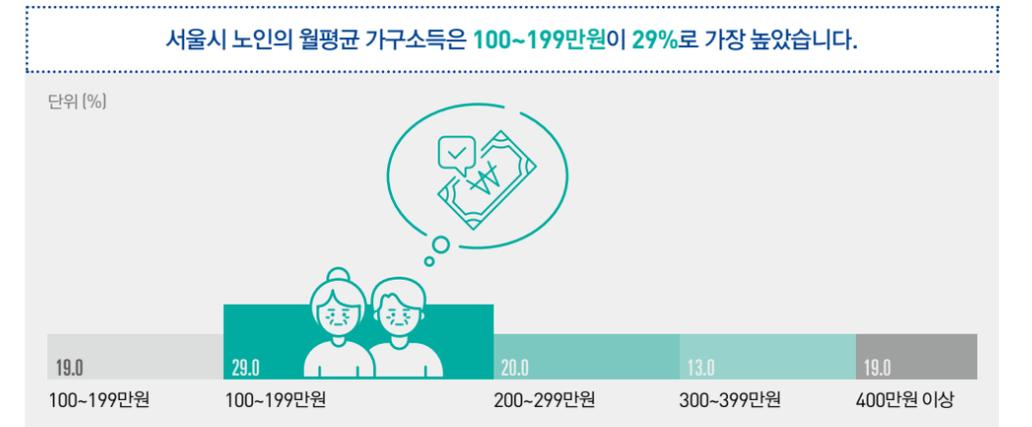
✓ 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

2019년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9%, 4.2%로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9년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만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9.9%이며, 청년 고용률은 43.6%이다(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9세)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8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르고,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하다(김복순, 2019). 이는 청년 중 상당수는 일해도 여전히 근로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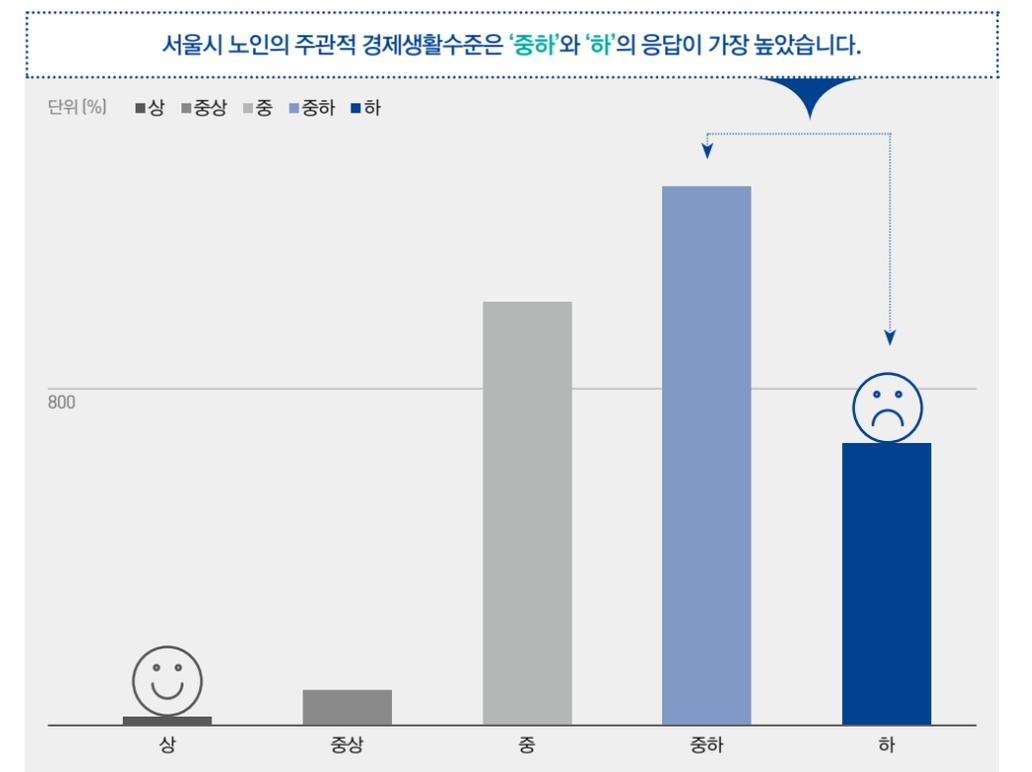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빈곤(중위소득의 50% 미만) 노인은 46.3%이다(OECD, 2015). 소득과 함께 주거 또는 자산 차원에서도 결핍을 겪고 있는 다차원 빈곤 노인들은 약 21%이다.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노인 3,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8.2%에 달했다. 응답 노인의 64.1%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중하' 또는 '하'라고 응답했다.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35.1%였고,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었다.

● 서울시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 서울시 노인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Seoul

★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돕는다.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해산급여(70만원)와 장제급여(8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Seoul



★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물품 및 현금 지원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한다.



청년수당

★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금 50만원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와 같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자치구별로 생애 한 차례만 지원한다.

서울시 일자리카페

Seoul



★ 청년의 성공취업을 위한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성공취업에 필요한 상담, 멘토링, 취업특강부터 스터디룸 무료 대여까지 취업준비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만 15~39세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p>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청년 특화공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서울시 중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가은도서관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문화공간 서울시 중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나귀와 플라타너스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더웍스코리아 창업가들과 소통하는 곳, 더웍스에서 취업! 서울시 강남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 청년들의 실용적인 취업경쟁력 서울시 동대문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남산부권주거복지지사 마이플 같이 편안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입니다. 취업... 서울시 강남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강북문화정보도서관 청년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더빅스터디 청년들이 모여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중로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도봉문화정보도서관 마음고 싶은 도서관, 친구 같은 도서관 서울시 도봉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앵스타디 카페(건대점)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동부여성발전센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을 만들어가는 공간 서울시 광진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류각영청년복지센터 시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존을 통해 시너지... 서울시 마포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서울형
뉴딜일자리

Seoul

★ 경력도 쌓고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이다. 월 최대 임금 222만원, 시급 10,523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50+
사회공헌일자리

Seoul



★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일자리

50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이다. 은퇴한 장년층이 학교, 복지시설, 지역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르신 사회활동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65세 이상(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은 만60~64세 참여 허용) 노인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부록 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두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센터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보달청사 본관 5층	1577-9337	www.kihf.or.kr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	02-3412-2222	gangnam.familynet.or.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2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02-883-9390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	02-458-0666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 3층	02-830-0450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3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층, 3층	02-599-3301 02-599-3260	dchfc.familynet.or.kr
마포구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3층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02-730-7595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2층	02-322-7554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02-6919-9745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ng.familynet.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02-922-3304	sbfc.familynet.or.kr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1층	02-403-3844	
양천구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4층	02-2065-3400	ychc.familynet.or.kr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02-2699-6900	
영등포구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2678-2193	ydpfc.familynet.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 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2 서울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설립되었다. 자치구별로 이원화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 및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다. 시간제 보육,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통해 지역 내 육아자원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부모에게 연결하며, 보육반상회를 통해 육아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 또한 마련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24 4층	02-772-9814~7	seoul.childcare.go.kr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72길 7 3층	02-546-1735~7	gncare.go.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6길 16	02-486-3516	gdkids.or.kr:8443/front/user/main.do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02-944-7480~1	childcare.gangbuk.go.kr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2길 50	02-2064-2730~2	gskids.or.kr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2층	02-851-2834	gwanak.go.kr/site/educare/main.do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02-467-1827~9	gjcare.go.kr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02-859-5678	guroccic.guro.go.kr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happycare.or.kr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nwscc.or.kr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12길 28	02-3494-3341~2	doccic.go.kr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62	02-2237-5800	ddmccic.or.kr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1 3층	02-823-4567	dccic.go.kr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02-308-0202	mcic.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02-3217-9550	sdmccic.or.kr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347길 46	02-598-9340	youngua.seocho.go.kr
성동구	성동구 남계로 160	02-499-5675	sdtoy.co.kr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	02-918-8080~2	ijoa.gongdan.go.kr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02-430-7192	spscc.or.kr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02-2646-7790~1	ychccic.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02-833-6022	ydpcic.or.kr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02-749-9673~4	ysccic.or.kr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02-351-3629, 02-351-3630	epmjuccic.co.kr/index.php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3층	02-737-0890	jnccic.or.kr
중구	중구 다산로32길 5 3층 사무실	02-2263-2626	jgkids.or.kr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jccic.or.kr

3 서울특별시 한부모지원센터 [seoulhanbumo.or.kr]

2009년에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부모의 가족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

주소	전화번호
구로구 가마산로 272 서울시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02-861-3020

4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

서울지역 직장맘을 위한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역량강화교육 등 직장맘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운영하여 노무사의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남권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02-852-0102	www.gworkingmom.net
서북권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02-308-1220	epworkingmom.tistory.com
동부권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02-332-7171	www.workingmom.or.kr

5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내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인력 개발기관(통칭)은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마포구 마포대로 89 POST TOWER 7층	02-590-1900	swrd.seoulwomanup.or.kr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센터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	nambu.seoulwomanup.or.kr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dongbu.seoulwomanup.or.kr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972-5506	bukbu.seoulwomanup.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02-2607-8791	seobu.seoulwomanup.or.kr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	jungbu.seoulwomanup.or.kr

●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양재대로 1390 신성빌딩 4층	02-475-0110	gd.seoulwomanup.or.kr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02-980-2377	gangbuk.seoulwomanup.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층~5층	02-886-9523	www.kwoman.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빌 2층	02-867-4456	www.kurowoman.com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	www.job365.or.kr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02-921-2020	www.job2060.or.kr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 이수텐빌딩 2~5층	02-525-1121	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해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플라자 3층	02-6929-0011	seocho.seoulwomanup.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무학로2길 54 신방빌딩 1층	02-3395-1500	sd.seoulwomanup.or.kr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중대로9길 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61	02-858-4514	www.ywcajob.or.kr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	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02-389-1976	www.epwoman.or.kr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투에프코트빌딩 7층	02-6929-0002	kangnam.seoulwomanup.or.kr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www.sbwomen.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02-3409-1947	jungnang.seoulwomanup.or.kr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만 50~64세의 중장년층이 50세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 교육, 취업/봉사 등을 통한 재도약 정보, 제2인생 컨설팅, 재무/법률/여행/취미 등의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본부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02-460-5050	50plus.or.kr/org/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02-460-5151	50plus.or.kr/sw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02-460-5250	50plus.or.kr/sc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02-460-5350	50plus.or.kr/ssc/index.do
금천50플러스센터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02-892-5060	50plus.or.kr/gch/index.do
노원50플러스센터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50plus.or.kr/nwc/index.do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50plus.or.kr/dsc/index.do
동작50플러스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50plus.or.kr/djc/index.do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여의도복지관 3층	02-2635-5060	50plus.or.kr/ydp/index.do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02-394-5060	50plus.or.kr/sdm/index.do
성북50플러스센터	성북구 지봉로24길 26 3-4층	02-923-5060	50plus.or.kr/sbc/index.do

7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제공한다.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동 3층 317호	02-385-2642	02-354-9280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dfsc.or.kr]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며, 동료상담 서비스와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센터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얼빌딩 3층 304호	02-6949-3133~4	seoul.dfsc.or.kr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밤곡로1길 10 826호	02-3412-8551	gn.dfsc.or.kr
강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 12길 95, 102 B동 401호	02-6959-443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발산로40 강서도매시장 내 4층 관리동 7호	02-6956-1991~2	gsdfsc.or.kr/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5층	02-456-0708	gj.dfsc.or.kr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552, 5층	02-2614-9579	gr.dfsc.or.kr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탑골로2길 59-9 2층	02-802-0502	gc.dfsc.or.kr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행정지원센터 B101	02-907-9633	db.dfsc.or.kr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802호(답십리동, 클래식타워)	02-2249-1717	ddm.dfsc.or.kr
동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505호	02-835-7780	dj.dfsc.or.kr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8 삼라마이다스 202호	02-303-3618	mp.dfsc.or.kr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1층	02-394-4430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효령로55길 22 208호	02-597-8339	sc.dfsc.or.kr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118 라성아카데미타워 1122호	02-6929-2456	m.seongdongdfsc.or.kr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342	02-912-5991	sbfscenter.modoo.at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5, 장애인커뮤니티센터 2층	02-798-9935	ys.dfsc.or.kr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미주빌딩 403호	02-357-3345~6	ep.dfsc.or.kr
종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종랑구 상봉로20길 29, 202호	02-2209-0665	jn.dfsc.or.kr

부록 2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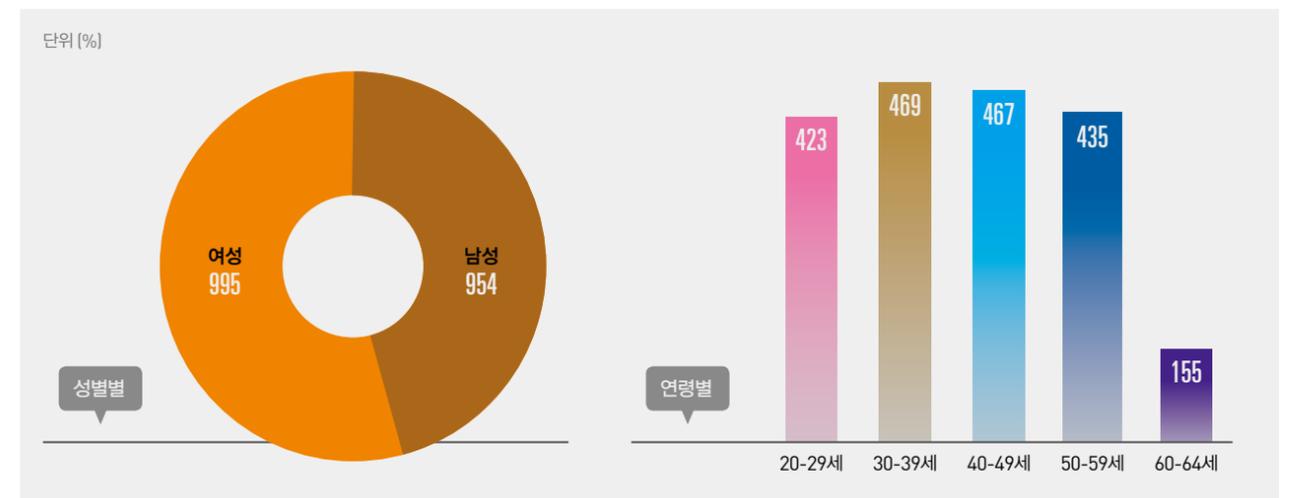
▣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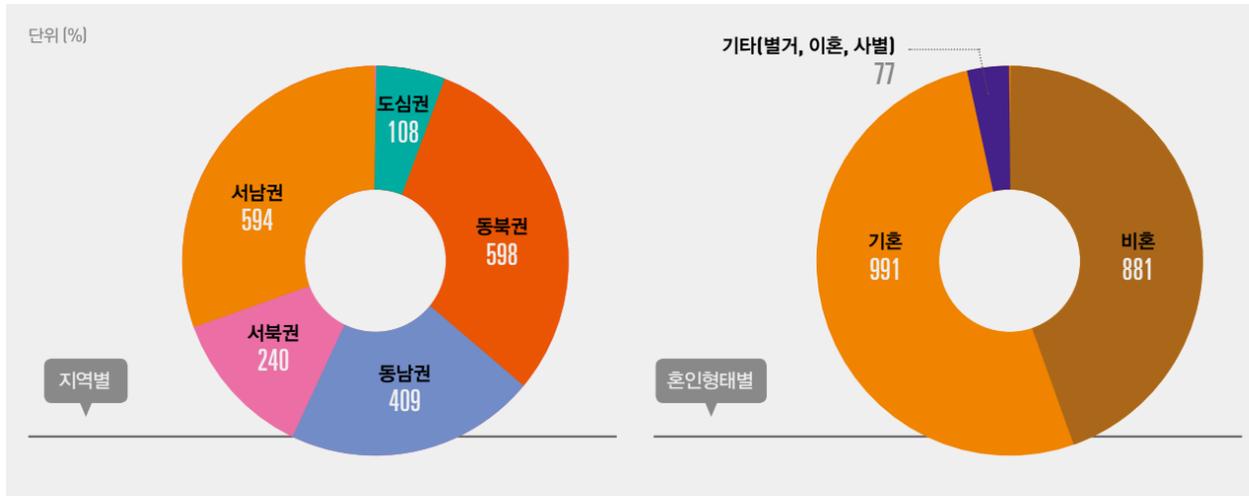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만 20~64세 서울시민 1,9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성 954명(49%), 여성 995명(51%)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령대별 참여자는 만 20~29세가 423명(21.7%), 만 30~39세가 469명(24.1%), 만 40~49세가 467명(24.0%), 만 50~59세가 435명(22.3%), 만 60~64세가 155명(8.0%)이었다. 연령대와 거주권역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할당표집하였다. 응답자 중 비혼자는 881명(45.2%), 기혼자는 991명(50.8%), 기타 77명(4.0%)이다.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954명 (48.95%)
	여성	995명 (51.05%)
연령	만 20-29세	423명 (21.70%)
	만 30-39세	469명 (24.06%)
	만 40-49세	467명 (23.96%)
	만 50-59세	435명 (22.32%)
	만 60-64세	155명 (7.95%)
거주권역	도심권	108명 (5.54%)
	동북권	598명 (30.68%)
	동남권	409명 (20.99%)
	서북권	240명 (12.31%)
	서남권	594명 (30.48%)

●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특성





2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 구성원에게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3 조사내용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및 돌봄,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0년 12월
판명·판수 초판 1쇄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총괄팀
집필진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영미, 최하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318.8167
편집·디자인 위브런 컴 02.514.3194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BN 979-11-6599-155-5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3,000원
	
9 791165 991555	
ISBN 979-11-6599-155-5	